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3월 5일) · 주간

제1041호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원경 스님(심곡암 주지)
나누면 내면 아름다움 커져
복지와 문화로 대중과 교감
16·17면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종교 지형 급격히 변화 새 포교 패러다임 절실

조계종 포교원 · 불광연구원 공동 연찬회 개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의 종교 지형은 급격히 변화 중이다. 이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30년 간의 종교 지형 추이를 살핀 〈한국인의 종교〉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기성 종교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런 종교 지형의 변화에 어떻게 불교가 대응해야할지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불광사 불광연구원은 4월 16일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 를 주제로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불교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이사는 "불교인이 시주하거나 절에 가는 것은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직종교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크게 뒤지는 등 내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이사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안적 삶에 불교가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우리 사회는 아직 개발 신화와 성장 신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저성장 사회에서 삶의 방식은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한국 종교, 특히 불교는 대중들의 삶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도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와 문화에 맞춘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행점검표 통해 교육화
사찰운영위로 조직화해야
불교 상장례 정립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의 미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정서와 문화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면서 "현대인이 추구하는 공통과제는 건강, 체험, 지혜 등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에 맞춘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명상 및 수행, 신행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신망과 자질을 갖춘 수행자의 확보도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가장 큰 과제는 신망과 자질을 갖춘 수행자의 확보"라며 "효과적인 신도교육과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불교 상장례 문화의 정립과 전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장례식을 어떤 형태로 치르는 것이 좋으냐' 는 질문에 68%가 불교식, 27%가 유교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교식 문상의례, 불교식 상차림, 불교식 장례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포교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불교 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것은 신행의 질이 낮아진다는 점"이라며 "'불자신행점검표' 등을 활용해 불교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안과 신행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찰운영위원회' 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참사 1주년… 치유발원 타종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는 타종식이 일제히 열렸다. 조계종은 4월 1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을 진행했다. 조계사에서 진행된 타종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종하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동참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아 추모법회와 세미나 등 추모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관련기사 5·31면〉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 희망 모색, 100인 대중공사 출범

금산사 · 선운사 양대 교구본사 사부대중 200여명 동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전북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가 출범했다.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준비위는 4월 12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준비위는 4월 12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도법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스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과 24교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해 양 교구 100여명의 스님들과 김백호 17교구 신도회장, 정만수 24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 관계가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미 종단차원에서 3차례 열렸던 사부대중 대중공사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의 금산사와 선운사 사부대중이 지역불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추진위원장에 양 교구본사 주지인 성우스님과 경우스님, 양 교구 신도회장인 김백호 회장과 정만수 회장이 선임됐다.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 대중공사를 이끌어갈 공동집행위원장에는 덕산스님과 종고스님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한 '전북불교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는 최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불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불교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사부대중과 재가 신행단체, 종단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까지 고루 참여하는 소통과 실천의 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교구에서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한다" 며 "지역 사부대중이 허심탄회하게 전북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기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준비위원장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오늘 이 자리는 침체된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중공사가 원만하게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도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종단적 바람을 담아 지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금산사와 선운사의 협력을 얻어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며 "전북불교의 새로운 싹을 틔워 무성한 나무가 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격월로 금산사와 선운사가 번갈아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집행예산은 양 사가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1차 대중공사는 오는 6월 14일 선운사에서 개최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로회의 인준 보류 종헌 개정안 재검토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오는 6월 임시회 열기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48차 원로회의에서 인준을 보류한 종헌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중진의원 2차 연석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 인준 보류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가 제안한 종헌 9조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 와 문구와 94조4항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는 문구를 각각 '권리를 제한한다' 와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 로 명확히 해야 하는 의견을 포함해 종헌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로의원 스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종헌에 대해 논의할 종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사 고

감사 편지 공모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 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 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동산반야회·공림공양회·여여원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2015년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제29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제29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1일차 4월 20일 입재 법문 일진스님 운문승가대 강주



●3일차 4월 22일 특별 법문 활안스님 사)한국금강선원 총재



●7일차 4월 26일 특별 법문 대주스님 경기도 부천 대륜사 주지



●9일차 4월 28일 특별 법문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일시 : 2015년 4월 20일 ~ 7월 28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4월 20일(月)	일진스님	운문승가대 강주	17일차	5월 6일(水)	암도스님	마하무량사 주지
2일차	4월 21일(火)	관일스님	경산 석산사 조실	18일차	5월 7일(木)	노휴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3일차	4월 22일(水)	활안스님	사)한국금강선원 총재	19일차	5월 8일(金)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4일차	4월 23일(木)	도암스님	취운암, 통도사 한주	20일차	5월 9일(土)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주지
5일차	4월 24일(金)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21일차	5월 10일(日)	일장스님	유마 승가대학장
6일차	4월 25일(土)	성범스님	대전 구봉선원장	22일차	5월 11일(月)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7일차	4월 26일(日)	대주스님	경기도 부천 대륜사 주지	23일차	5월 12일(火)	가산스님	충북 원융사 조실
8일차	4월 27일(月)	혜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24일차	5월 13일(水)	홍산스님	우리 불교 조계종 종정
9일차	4월 28일(火)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25일차	5월 14일(木)	덕문스님	통도사 율원장
10일차	4월 29일(水)	법선스님	통도사 옥련암 주지	26일차	5월 15일(金)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11일차	4월 30일(木)	경성스님	해인사 희랑대 주지	27일차	5월 16일(土)	효상스님	가창 선흥사 주지
12일차	5월 1일(金)	무불스님	경산 진각사 회주	28일차	5월 17일(日)	해월스님	전 해인사 강주
13일차	5월 2일(土)	혜조스님	남산 토굴	29일차	5월 18일(月)	실상스님	대구 법왕사 주지
14일차	5월 3일(日)	자광스님	관오사 불교사회복지 회주	30일차	5월 19일(火)	종안스님	전 해인승가대 강사
15일차	5월 4일(月)	승오스님	구미 원각사 주지	31일차	5월 20일(水)	광명스님	서울 비로선원 주지
16일차	5월 5일(火)	동봉스님	경기도 우리절 주지	33일차	5월 22일(金)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T. (053)766-3747 F. (053)767-6095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종립 영석고 지역 명문 키워가길”

자승 스님, 영석고 자비나눔 방문… 장학금 전달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자비나눔 방문으로 조계종립 영석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임직원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4월 13일 의정부 동국대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날 방문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의정부사암연합회장 호산 스님 등도 함께 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은 학교 설립자인 안채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을 치하하고, 학교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도 이뤄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영석고 재학생 20명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학교를 설립해서 공심을 갖고 동국대에 기증해주셨다”면서 “설립자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겨 임직원 모두가 동국대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영석고등학교를 지역 제일의 명문고등학교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채란 前 영석학원 이사장은 “내 생애를 바쳐 이룬 학교를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했다”며 “앞으로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도 진지한 불교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자비나눔 방문으로 조계종립 영석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위 · 진흥원 입장 차 ‘평행선’ 확인

조계종 진흥원 특위, 14일 진흥원 방문… 이사장 만남 불발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념, 이하 진흥원 특위)’가 대한불교진흥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일정 관계로 만나지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대한불교진흥원을 방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진흥원 특위 정념, 진화, 자공, 법원 스님은 4월 14일 서울 다보빌딩 15층 대한불교진흥원을 방문했다. 진흥원 측에서는 신진욱 기획총괄실장과 고영인 불교와문화 편집위원이 배석했다.

이날 특위 스님들은 진흥원이 종단 관점에서 봤을 때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관과 재정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 정념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흥원과의 소통을 추진하는 것은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제대로 이어가자는 데 있다”면서 “특위가 진흥원 이사 정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 계승이 제대로 이어져 진흥원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석한 신진욱 기획총괄실장은 “지금까지 종단에서 정관과 재정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그러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말이 맞지 않다”면서 “진흥원은 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 스님들은 이사장과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정념 스님은 매주 진흥원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 측은 실무 협의 입장을 고수했다. 신 실장은 “비공식적으로 불교 진흥을 위한 사업 논의는 가능하다”면서 “특위의 회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양측 실무자 간 접촉과 대화가 우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이사장 가처분 소송

일면 스님 승소… 해결 실마리

법원, 14일 “영담 스님 직무대행 자격없다” 판결

동국대 이사장 직무집행을 두고 진행된 가처분 소송 결과 일면 스님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4월 14일 일면 스님과 영담 스님 간 이사장 권한 분쟁 관련 가처분에서 일면 스님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련 스님과 영담 스님이 일면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 가처분에 대해 각각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면 스님이 영담 스님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은 영담 스님의 직무대행 자격이 없음을 판결했다.

일면 스님은 판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동국의 백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느낀 계기였다. 낮은 자세와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조속한 후임 총장 선임 방침과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함께 밝혔다. 15일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일면 스님은 차기 이사회 개최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구성원들의 입장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일면 스님 측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영담 스님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불법으로 보고 일면 스님의 이사장직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수과정을 완료하고 학교운영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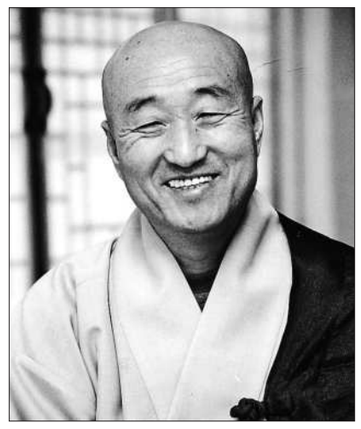
일면 스님 15일 담화문 발표

“인수 진행… 학내 안정 최선”

영담 스님 측 “본안 소송 고려”

“논란 · 충돌없이 마무리 되길”

하지만 이에 대해 영담 스님 측은 지속적인 법적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영담스님 측은 법인사무처와 처장실 등에 대해 폐쇄하겠다는 뜻을 일면 스님 측에 전달했다. 가처분 결정 고지날부터 3일 후 명령위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법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도 진행 중에 있다.


일면 스님

영담 스님 측 법인사무처장 서리 도정 스님은 “가처분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분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3일간 법률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 일면 스님 측은 영담 스님에게 15일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내용증명에는 법인사무처, 이사장 부속실에서 퇴거하고 이사장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과 법인 인감과 직인, 통장 반환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한편, 4월 15일 동국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종단 개입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면 스님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종단 측이 반대 여론을 묵살한 채 총장 선임을 강행할 것이기에 뜻과 의지를 모아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면 스님 측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학교 안정화를 위해 일면 스님이 3일간 기다리라고 당부해 법인사무처 등은 영담 스님 측을 배려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과 충돌없이 조속한 안정을 통해 다시금 동국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첫 시행

고시위, 4월 10일 개최

비구 · 비구니 스님 54명 응시

공통 · 전문분야 대해 면접 갈마

합격하면 종덕 · 현덕 법계 받아

“25년 스님 생활해도 떨려요

그간의 삶 돌아보는 계기될 것”

응시 스님 전원 합격 영예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4월 1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1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조계종 종단 지도자로서의 법계를 인정받기 위한 1급 승가고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4월 1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1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1급 승가고시에는 총 대상자 80명 중 54명(비구 28명, 비구니 26명)이 응시했으며,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해 결시 없이 시험을 치렀다.

1급 승가고시는 종단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그만큼 응시 조건도 까다롭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비구) · 혜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법납 25년 이상의 스님으로 결계신고를 필하고 매년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5년간 이수해야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종덕(비구) · 현덕(비구니)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1급 고시는 필답 고사없이 그간의 수행이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 앞으로 계획을 묻는 면접 고사로 이뤄졌다. 면접은 비구, 비구니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8~10분 동안 갈마위원 5명이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면접 갈마를 대기하고 있던 스님들은 편안한 표정이었지만 약간의 긴장감은 묻어나왔다. 1급 승가고시 첫 번째 면접자로 나선 각승 스님(법주사)은 “25년 스님 생활을 해서 자신이 있었다. 막상 앞에 서니 솔직히 떨린다”면서 “고시 법계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고시 제도가 발전해 승단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면접을 마친 묘장 스님(구미 도리사 주지)은 “응시를 위한 이력서를 준비하며 그간 살아왔던 수행이력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초발심을 되짚고 앞으로 수행 생활을 준비하고 종단 · 사회 지도자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와 과정으로 승가고시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또한 25년을 치열하게 살았던 스님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1급 승가고시는 앞선 2, 3급 고시와 마찬가지로 필답과 논술 고시까지 방식이 확대된다. 승가고시의 강화를 통해 개개인 스님들의 자질 향상과 승단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승납 25년이상의 스님들은 종단의 지도자로서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큼 1급 승가고시가 갖는 비중은 크다”면서 “올해는 처음 시행이라 갈마위주로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필답 고사 등도 병행해 치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가고시는 승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실제 많은 스님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승가고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고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1급 승가고시는 응시한 스님 전원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4월 14일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선응 스님(중앙승가대 교학처 교학국장)과 송탁 스님(팔공총림 동화사)를 포함해 비구 스님 28명, 비구니 스님 26명 등 고시에 응시한 스님 54명 전원이 합격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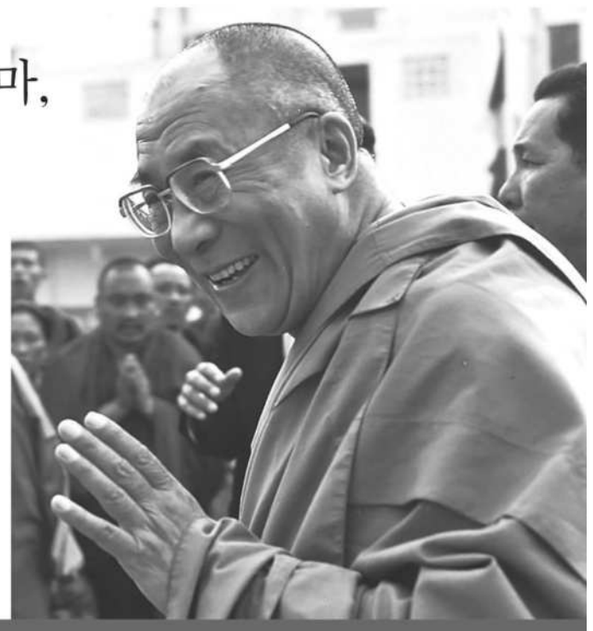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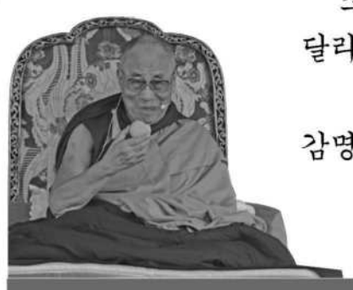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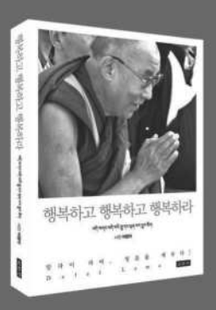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온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 사회 참여 강박에서 벗어나야”

조성택 교수, 16일 ‘불교평론’ 기획논단서 주장

“한국불교계는 근대 이후 보편화된 사회참여에 강박관념과 같이 매몰돼 있다. 만해, 한암, 성철 스님이 보여준 사회참여 방식과 같이 불교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웃종교가 활발히 진행한 정치참여, 사회참여에 불교가 맹목적으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사진〉는 불교평론이 4월 16일 개최한 기획논단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세 번째 마당에서 “한국불교가 근대기 사회참여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불교만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흥미로운 것은 세속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해 온 기독교는 ‘영성’ 가치를 요구받고 있으며 불교는 세속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며 “기독교가 왜 다시 영성을 탐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전통불교의 형태에서 정치사회 참여의 목소리가 커지며 불교 내부에도 불의의 권력에 저항하는 정치참여, 환경 생태문제에 대한 사회참여, 사회복지 전개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하나는 물질적 구제활동이며 또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는 정신적 구제활동”이라며 “불교계가 물질적 구제활동에만 치중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불교가 사회참여에 앞서 과연 불교가 믿는 가치를 시민사회에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옳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문제에 참여, 혹은 개입



불교 맹목적인 사회참여 비판
기독교 영성 복귀 움직임 주목
“사회 참여 앞서 점검 · 성찰해야”

을 한다면 불교 정체성을 지키지만 사회공공선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공공선과 종교적 선은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독교의 예를 들며 “낙태나 동성애의 경우 기독교의 반대 입장이며 이를 사회에 전파하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으로는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 교수는 한암 스님과 만해 스님의 상반된 사회참여 방식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만해 스님은 불교전통의 보수성으로 시대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만해 스님은 대승의 방편과 선종의 입전수수가 있지만 출가기반의 보수성의 한계를 느끼고 불교 내부의 논리가 아닌 사회진화론과 같은 세속의 이론과 논리로 불교유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반면 한암 스님은 철저히 현실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이는 만해 스님이 개혁을 통해 현실을 부정한 것과 같이 외면을 통해 현실을 부정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성철 스님의 사회참여에 대한 비판 또한 있지만 이 역시 이러한 경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참여를 한 것”이라며 “불교가 사회참여에 앞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주 불국사, 사물인터넷과 만나다

어플 ‘내 손안의 불국사’…최신 모바일IT기술 접목

입체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
증강현실 체험도 눈길

최신 모바일IT기술과 한국문화의 보고(寶庫)인 전통사찰이 만난다면? 사물인터넷 · 증강현실 · 위치인식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가 개발돼 화제다.

문화재청은 4월 15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를 개통했다. 이번에 개발한 ‘내 손안의 불국사’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해 관련 사진과 동영상, 3차원 입체영상 등으로 총 80여 건에 이르는 불국사 관련 콘텐츠를 수록했다. 불국사 소개 · 나의 불국사 · 불국사 이야기라는 3가지 메뉴로 관람정보, 문화재정보, 주변 관광정보와 같은 기본정보 제공을 비롯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저장하고 관람후기도 작성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문화재 인근에서 앱을 작동하면 애니메이션 효과 및 설명, 입체영상 등을 보여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활용성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불국사 이야기’ 매뉴에는 주요 건축물과 문화재에 대한 설명문과 사진, 3차



‘내손안의 불국사’ 어플 초기화면

원 영상으로 안내하는 ‘일반 모드’, 친근한 캐릭터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 모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학습하는 ‘퀘스트(탐구) 모드’, 불국사와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석굴암을 동영상과 파노라마로 감상하는 ‘특별전시관’ 등이 구성돼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 손안의 불국사’에 앞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3년 ‘내 손안의 덕수궁’과 2014년 ‘내 손안의 경복궁’을 선보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제24회 행원문화상 각 부문 수상자 공모

학술 · 예술 분야… 6월 30일까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학술과 예술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해 선정하는 행원문화상이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 · 사진)이 2015년 행원문화상 학술상과 예술상의 수상자를 공모한다.

학술상은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 저서(역주 포함)를 출간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2년 이내 출간된 학술연구 저서가 심사 대상이다.

또 예술상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음악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분야(서화부문 제외)에서 업적을 이루거나, 방송 ·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포교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행원문화상은 학술과 예술분야 공로자 2명을 시상하게 되며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자는 서울 서초동 재단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runner333k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수상자는 오는 8월 중순경 개별 통보 및 교계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9월 16일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전국 부처님오신날 준비 ‘START’

연등회 포스터 및 봉축 현수막 시안 발표

서울 조계사도 봉축선포식 무차대회 준비도 진행 중





연등회 포스터(사진 왼쪽)와 조계사 봉축 선포식(사진 오른쪽) 불교계는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에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 포스터와 현수막을 발표했다. 부처님오신날 포스터에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 적혀 있으며, 연꽃을 수지한 보살의 손이 눈에 띈다.

연등회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연등회 포스터는 국 · 영문 포스터 2개가 한 세트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연등회 관련 소형 홍보책자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소형 책자 역시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제작됐다.

전국 사찰들도 본격적인 봉축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연등회의 주요 무대인 종로 조계사(주지 원명)도 4월 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축 선포식 ‘와락’을 개최했다. 조계사 신도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축하공연과 율동배우기 등으로 봉축준비를 위한 단결을 다짐하고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축 준비에 앞서 율동을 배우며 건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봉축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또한 ‘와락’이라는 이름처럼 이웃을 함께 끌어앉을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조계사는 앞으로 정오의 힐링 ‘소리나눔 콘서트’(4월 23일~5월 22일 매주 목 · 금), 동자승 단기출가 ‘보리수 새싹학교’(4월 26일~5월 26일), 이야기로 만나는 부처님 ‘경전을 읽다’(5월 9일) 등의 일정을 통해 봉축의 기쁨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올해 광화문 광장에 열리는 평화기원대회 및 간화선무차대회 준비 역시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는 최근 전법회관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며 대화를 준비 중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열리는 세계평화 기원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고승 300여 명과 불자 20여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초청인사 입국 후 16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오후 2시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인 회의가 진행된다. 이어 연등회 일정에 맞춰 세계평화 기원행진과 함께 광화문에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진행된다. 간화선무차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평화메시지’가 발표된다.

17일 오전 9시 조계사에서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재가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는 연등회 문화행사 순례 및 봉은사 전통문화체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민 · 정혜숙 기자

“반기문 총장 직접 만나 평화 메시지 전달”

정여 스님 5월 5일, UN 본부서 10만$ 구호기금 전달

라오스와 미얀마 등 국내외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세상을 향기롭게(대표 정여)는 4월 16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5일 UN 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여 스님은 “반기문 총장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 방문을 부탁할 것”이라며 “남북이 협력해 비무장 지대 공원을 조성해 물물교환의 장을 만들어 서로 돕고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여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아프리카 식량 및 급수지원 사업기금 10만 달러를 반기문 총장에게 전달한다. 5월 5일 열릴 전달식에는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 정여 스님, 정오 스님(장안사 주지), 도명 스님(여여정사 주지), 원담 스님(충북 무극정사 주지)도 함께 참석한다.

정여 스님은 “사업기금은 아프리카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 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아기들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아프리카에도 불교 포교를 위한 바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아프리카 후원 사업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 정여 스님은 2008년 범어사 주지를 역임, 북한 어린이 신발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북한 어린이 생필품 및 신발 보내기 사업의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민들레자비원 등을 운영했다. 2011년 (사)세상을 향기롭게를 개설하고 UN 기구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어린이 급식지원 및 난민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세상을 향기롭게는 국내 무료급식 및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 생계비,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업으로는 라오스 청허 · 보리 영어 학교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며 미얀마와 중국 연길 등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위문 및 수계식 법회 동참 스님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훈련병 5천여명이 오계 수계를 받았다.

- 승가종 종정 월인 대종사
-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 대종사
-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오 스님
- 대구 동화사 선오 스님
- 대구 동화사 종운 스님
- 승가종 종회의장 혜륜 대종사
- 승가종 원로원장 혜공 대종사
- 승가종 경북 종무원장 지운 대종사
- 승가종 울산 종무원장 도성 스님
- 승가종 포교원장 도안 스님
- 승가종 월인 문도장 법종 스님
- 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스님
- 승가종 재무원장 무착 스님
- 승가종 부산 종무원장 봉선 스님
- 승가종 원로위원 포운 스님
- 승가종 비구니 회장 법해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영월 스님
- 지장사 현오 스님 ● 무상암 지혜 스님
- 천지암 달오 스님
- 수월정사 원명 스님
- 대원불교조계종 사서실장 무량 스님
- 천운사 법경 스님
- 정광 스님 ● 선웅 스님
- 법주 스님 ● 선견 스님
- 선조 스님 ● 효득 스님
- 심정 스님 ● 혜전 스님
- 승가종 총무원 원해 스님
- 승가종 총무원 원광 스님
- 승가종 총무원 원타 스님
- 법성 스님 ● 무찰 스님
- 무량사 법산 스님
- 영통암 성봉 스님
- 영통암 성심화
- 보성사 조선재
- 보성사 백경희
- 보성사 원명 스님
- 오성사 법오 스님
- 해동선원 지덕 스님
- 양지암 정연 스님
- (대전)서래암 법지 스님
- 구릉선원 보운 스님
- 천운사 마산포교원 법성 스님
- 수월정사 우정 스님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 (051)552-8554, (051)556-0278 전송: (051)556-8551

일 주 문



부처님오신날 맞이 8일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5월 18~25일 부처님 오신날 맞이 8일기도를 개최한다. (02)768-8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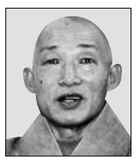
108유아수계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복중태아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108유아수계법회를 연다. (02)3218-4800~6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대회

경주 불국사 종우 스님은 5월 10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대회를 진행한다. (054)746-1472



황수경교수와 함께 템플스테이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5월 8~10일 황수경교수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내 마음의 작은 쉼표'를 마련한다. (054)429-1700



'통일시대의 준비' 토론회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법응 스님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통일시대의 준비' 토론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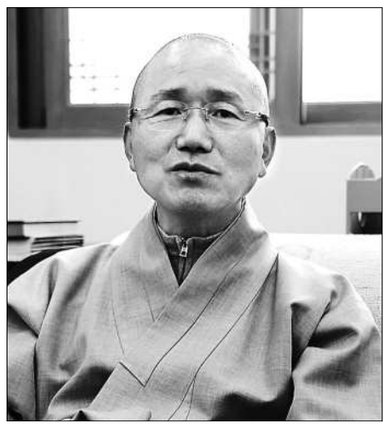


공불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상인 회장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제24회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 초월한 선문화체험 공간운영"

전통명상수련센터 완공한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



4월 21일 대광사 선명상센터 낙성식

총 5개층…명상대학 3월에 개원

상담심리학, 요가 등 프로그램 다채



이번에 새로 개원한 명상수련센터 내부

"이번에 완공된 수련센터는 불교의 장르를 뛰어넘어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선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찰이 참배의 공간서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다양한 이들이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도심포교를 주창하신 한국천태종 개산조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기에 대광사도 꾸준히 변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사진〉은 4월 21일 신축한 선명상수련센터서 도용 종정예하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2011년 5월 착공한 선명상수련센터는 연건평 9,300㎡(약 3천평) 규모로 세워졌다. 총 5개층으로 지어졌으며, 1~2층 주차장, 3층 명상센터(약 8백평), 4층 신행공간(참선실), 5층 기계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도 스님은 "선명상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3월에는 사단법인체인 '행복명상'을 설립했습니다. 예산이나 운영은 이곳에서 전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명상대학도 3월 오픈해 현재 교육중에 있는데, 앞으로 초·중·고급 각 단계별로 1년씩 총 3년 과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는 김열권 교수 등 관련 전문가 3명이 140여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 스님은 "선명상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많은 요즈음은 심리상담의 역할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도 가르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광사 수련센터는 개원전부터 지역민들에게 관심이 높다. 월도 스님에 따르면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명상대학 정원 모집에 경쟁률이 2~3 대 1을 육박할 정도로 몰렸다고 한다. 명상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데 커리큘럼으로는 명상지도자과정, 명상 이론 및 실기, 심리학, 상담심리 등을 강의한다. 또한 월도 스님은 "선명상센터 완공전 효율적 활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효율적인 체험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색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월도 스님은 "선체험 뿐만 아니라 요가 및 명상체조는 물론 다도프로그램 등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게 장르를 점점 넓혀갈 생각입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열린선원, 사리 친견 특별 법회



열린선원(원장: 법현스님)은 4월 12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정진 설법회 및 타다유키(일본인 교사가수) 초청공연을 열였다. 이번 법회는 3년 전인 2012년 5월 5일 미얀마 민잔서 이운한 진신사리 9과의 친견법회와 특별초청공연을 겸해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진신 사리를 친견한 인연공덕으로 삼매정진하며 열심히 전법하라"고 당부했다.

열린선원 진신사리는 개원 기념법회일인 6월 6일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해 친견토록 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함께 밥 먹는 것도 교육입니다"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한 성공 스님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면서 밥값 들고 가는 장병을 보셨습니까? 교육도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에도 급식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진주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된 (사)마하어린이재단 이사장 성공 스님(진주 성전암 주지)은 지원 계기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교육은 의무이고 그 안에는 급식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말이다.

진주 이반성초교와 지원 협약

내년 2월까지 30명 학생 급식

실제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마하어린이재단은 4월 6일 지역의 이반성초등학교와 급식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이뤄진 것으로 이반성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생 중 무상 지원되지 않는 3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급식 지원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300여 만원이다.

성공 스님은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는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무 급식이 사라지고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게 되면 아이들은 적지 않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의무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급식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찰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성민 기자**

위덕대, 해병 1사단과 협약 체결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4월 10일 해병대 제1사단과 학·군간 교류와 협력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해병대 제1사단 본부 회의실서 체결했다. 양 기관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체결된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학술연구 분야의 교류와 지원, 군부대 교육 진흥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서 해병대 황우현 제1사단장은 "지역사회발전과 군 교육진흥을 위해 지역에 위치한 위덕대가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 인력의 계속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장병들의 계속 교육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덕대 홍욱헌 총장도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군 인력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학과 등 다각도의 교육시스템을 마련,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위문

4월 11일 호국연무사서 5천명 수계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은 4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지운 법사)에서 5천여 명 훈련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인 스님을 비롯해 대원불교조계종 청봉 스님, 승가종 종도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다.

월인 스님은 법문에서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법문을 한 것이 오늘로 7번째지만 매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오계를 잘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계를 수지하고 군복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불교 조계종 청봉 스님은 나옹화상 게송으로 법문했다.

월인 스님은 훈련병 대표로 나선 20여 훈련병에게 연비를 했으며 승가종 스님 50여 명이 일일이 5천여 훈련병들에게 연비 후 계첩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동종, 우물파기 첫 삽

4월 3일, 조동종 불자 성금으로 자비 실천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3일 캄보디아 씨엠립 복끌란 마을을 찾아 자비 우물파기의 첫 행사를 진행했다.

4월 3일 오전 11시 조동종 부종정 법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덕우 스님과 종단 임원 및 불자 1백여명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복끌란 마을(이장 레촙)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가져간 위문품을 전달하고 한국 조동종 불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자비우물의 첫 물길을 열었다.

이날 조동종 자비우물파기 현장에서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우리가 오늘 복끌란 마을에서 자비우물을 판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개, 세 개 나아가 이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는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자비우물을 통해 복끌란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종단 사찰과 불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큰 자비행을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1기 불교의식 법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3개월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법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스님 :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 262-1117(보경사 종무소)

※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조계종은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00여 대중이 모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보듬고 치유하며 위로

불교계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 잇달아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슬펐는지 추모 주간에는 하늘도 자주 울었다. 전국 사찰에서부터 진도 팽목항 현지까지 법회, 템플스테이 등 추모행사와 세미나가 개최됐다. 불교계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시행령을 새로 제정할 것 등 현안에 대한 촉구를 비롯해 생명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기도 했다.

"생명 가치가 우선인 사회위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수습을 기원하는 추모법회를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계종 종단 교역직 스님들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대중 스님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헌화와 분향에 이어 추도사와 추모사, 호소문 발표, 천도의식 등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이 사바세계에서 겪은 아픔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고, 행복한 세상에서 왕생하길 기원한다"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남아있는 우리들이 잊지 않고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명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지만 실종자 9명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며 "그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한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 밖에 없다. 정부는 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대표해 △특별조사위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 △세월호 인양을 조속히 개시, 완수할 것 △세월호 문제 마무리까지 돈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것을 그만 둘 것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실종자를 대표해 나선 허흥환 씨(허다윤 학생 아버지)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3일 동안 내린 비는 세월호 304명의 피와 눈물"이라며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세월호 인양을 발표해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교, 安心의 역할자가 돼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4월 15일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세월호 1주기 추모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불교 측 발제자로 나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세월호의 윤리학과 불교의 역할' 제하의 논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며 불교와 종교 사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포용하는 안심(安心)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윤리적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근현대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 안에서 형성된 결과물들이 더 이상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세월호의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 배려윤리와 연결된다"면서 "종교계는 종교성을 기반으로 공감의 지속과 함께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포용하는 안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강렬한 고통은 말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다"면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서 그 자체로 위안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14일 추모법회 개최
3대 종교 사회적 역할 논의
팽목항서는 법회 · 템플스테이

위로하고 보듬고

진도 팽목항에서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과 법일 스님 등 진도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팽목항 법당에서 세월호 인양, 희생자 극락왕생, 실종자 수습 등을 발원하는 기도가 진행됐다.

또한 조계종은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등 100여명의 복지기관 종사자와 조계종직할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50여명, 진도불교사암연합회, 전라지역 6개 교구본사 스님과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한다.

세월호 1주기 맞아 아픈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의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안산시와 인접한 용인 법륜사에서는 4월 11일 '희망으로 피어나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진도 팽목항 법당을 열고 실종자의 귀환을 염원하며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해남 미황사와 주지 금강 스님도 위로와 추모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진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쌍계사는 '우리 마음의 힐링'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승려시인협회는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시 낭송회'를 열고 시심(詩心)으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랬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목 놓차 부르고 싶은 이름들아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청화 스님

갔느냐
아직 풀꽃 한 송이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눈빛, 그런 얼굴로
영 영 너희들은 떠나간 것이다.

4월의 모래밭 위에
한없이 쓰고 또 쓰며
목 놓아 부르고 싶은 이름들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아.

어디서나 발목을 적시는
너희들의 울음을 우는 바다
그 바다, 그 넓은 바다 앞에
너희들을 잃고 비틀대는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겠느냐.

달도 별도 없는
너희들의 밤하늘을 보면
새싹 하나 나비 한 마리도 없는
너희들의 봄을 생각하면
아 가슴에서 울컥울컥 치솟는
이 뜨거운 불덩이를.

그러나 깨달았다.
너희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 것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우리는 그리고 이 나라는
모두가 손발이 없는 불국였다는 것을.

이 부끄러운 몸에
너희들을 향해 가는 손발이 생길 때까지
지금 앞을 막고 있는 커단 바위들에
4월 16일을 새기고 또 새겨
마침내는 흙이 되게 하리라
어딘가 지켜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승려시인협회는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1주기 시낭송회를 열고 시심으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랬다.



팽목항에서 추모도 이어졌다. 사진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이 팽목항에서 추모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금강스님 페이스북 갈무리〉



4월 14일 조계사 대중전에서 열린 추모법회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등 3대 종교단체는 4월 15일 세미나를 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템플스테이 TEMPLESTAY

서울시와 함께하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2015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간 즐기는 템플스테이

체험기간 | 5월 1일(금) ~ 5월 14일(목) 14일간
예약기간 | 4월 17일(금) 11:00 ~ 5월 12일(화) 17:00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선착순 10,000명
참 가 비 | 1박2일 체험 10,000원 / 당일 체험 5,000원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를 참조하세요



신행 · 포교 소식

도선사, 제2회 삼각산 산신대제 봉행

5월 2일~4일까지 영가 극락왕생 발원

삼각산 도선사(주지 송산 도서)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제2회 신령스러운 삼각산 산신대제' 를 봉행한다. 삼각산은 조선시대 전국 산의 조종(祖宗) 12곳 가운데 으뜸으로 여겼다. 이는 삼각산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삼각산이 국가 제사, 수도 방어, 천문 관측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매년 봄과 가을에는 국가서 삼각산에 제물을 내려주고 관리를 파견해 삼각산제를 지냈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도 지냈다고 전한다.

도선사는 삼각산 내 사찰들이 행한 각종 재(齋)와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삼각산 산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산신제는 한강 쟁탈 전쟁과 함께 몽골과 전쟁 · 임진왜란 · 병자호란 · 의병운동 · 한국전쟁 등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수많은 전란으로 돌아가신 영령들과 산에서 서식하다가 죽은 동 · 식물들,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성(城)을 쌓다가 죽은 원혼 등을 모두 모셔서 시식(施食)을 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한다.

주지 송산 도서스님은 "산신제를 통해 삼각산서 영면한 모든 유주무주 고혼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삼각산 산신의 원력으로 극락왕생하고, 이승과 저승의 모든 존재들이 겪는 번뇌를 해소해 소통과 화합의 기운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리랑카 삼장법사 수가따왕사 스님 법회

6월 20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향천선원서

스리랑카 정부가 인정하는 삼장법사이자 미얀마 파욱숲속사원에서 오랜 수행을 한 수가따왕사 스님<사진>의 법회가 열린다.



수가따왕사 스님은 6월 20일 까지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향천선원에서 경장, 아비담마, 수행에 관한 법회를 연다.

수가따왕사 스님은 빨리어에 능통해 삼장은 물론 주석서, 복주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철저히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삿담마사라 스님이 통역을 진행한다. 삿담마사라 스님은 미얀마 파욱숲속사원에서 오랫동안 수행을하고 수행자들의 통역을 담당해왔다. (02)2254-3100

이나은 기자

2015년 웰다잉 교사연수과정 개강

불교여성개발원 5월 2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에서 '웰다잉 교사연수과정' 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교사,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웰다잉 교육의 의미와 효과 △웰다잉을 위한 뇌과학과 교육 △청소년 자살현황과 예방 △새생명체험 등을 진행하며 하지원 웰다잉운동본부장, 김기호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2008년 웰다잉운동본부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 지원으로 전국에 웰다잉 강사를 파견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에는 학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단체 등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웰다잉 교육을 활동해 학교폭력, 자살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과정을 개설했다" 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청소 · 설거지…사찰 봉사로 신심 키운다

부처님오신날 또는 정기법회가 있는 날 사찰에 방문하면 옷을 맞춰 입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찰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법당에서 경을 독송하고 참선하는 것만을 수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법당을 청소하고, 공양간에서 밥과 설거지 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의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신심을 키우고 있다.

조계사 자원봉사센터(팀장 이기복)는 2012년 발족돼 사찰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6~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 돼 있는 조계사는 조계사 신도로서 사찰 기본교육과 조계사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봉사행정 접수 교육 홍보 기도 민원 불사 등 종무행정 지원업무와 신도 신행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원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불자에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열린 종무행정의 참여자로서 신행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 사찰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이기복 조계사 자원봉사센터 팀장은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3~4년이 됐다. 봉사활동도 자발적이기 보다는 스님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점점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며 "사찰의 일원으로 신도들이 편하게 사찰을 다닐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도 느껴 더할 나위 없는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조계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김순희 씨는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남을 위한 일이나 봉사에 대해서는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 사찰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다" 며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서 더 자발적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또는 정기법회가 있는 날 사찰에 방문하면 옷을 맞춰 입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찰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법당에서 경을 독송하고 참선하는 것만을 수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조계사 자원봉사단원들이 법회 후 법당을 청소하고 있다.

조계사 · 봉은사 · 능인선원 등
봉사단 조직적으로 운영
청소부터 행정까지 사찰 전반 담당
"법회 후 정리정돈 봉사의 첫걸음"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사찰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해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인 능인선원은 1986년 47명의 제1기 불교학교 졸업생을 시작으로 매 기수마다 3천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능인선원 봉사단은 이들 졸업생 가운데 봉사를 희망하는 불자들로 구성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자원봉사자들은 본원이나 지역 분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본원의 경우 법당 청소에서 공양봉사를 비롯해 기획본부, 교육본부, 관리본부, 재무본부, 구매본부 등 사찰의 주요 부분에서 활동하며 사찰운영의 동력이 되고 있다.

능인선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찰 법회나 행사 진행을 통해 불교를 배워갈 뿐 아니라, 봉사를 통해 신도들간의 결속력을 다져가고 있다" 고 말했다.

봉은사(주지 원학) 신도회는 110여개 '연등' 을 조직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신행, 봉사, 친목, 사회복지, 사중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신도들은 각 연등에 소속돼 매주 월요일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봄과 동시에 배식, 설거지, 사중 내 해우소, 탑전, 영산전 계단, 해수관음상, 법왕루, 미륵광장, 일주문 등의 청소와 불전함 수거, 식권판매, 신행상담, 접수봉사, 응향각, 작은보시 큰자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노력 봉사 및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봉은사 신도회는 이처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연말 시상식을 열고 있다. 신도회는 "신도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실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며 "사찰봉사활동도 기도 · 수행에 버금가는 신행 활동이어 신도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마음선원도 2008년 6월 27일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안양과 인근 군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흔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찰자원봉사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사찰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내가 앉아서 법회를 보았던 법당 청소, 방석을 정리하는 자리정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회 날 후원에서 점심공양 준비를 돕는 일까지 참여하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기를 닦거나 꽃 공양을 준비하는 등 평소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일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사찰 봉사활동의 첫걸음일 것이다. 불자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행과 봉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세계7대성자명상대전 준비위, 강원랜드와 MOU

7월 18~24일 강원랜드서 2만5천 참여하는 수행캠프 개최

전세계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7분의 수행고승과 함께하는 대규모 수행캠프가 열린다. 세계7대성자명상대전 준비위원회(위원장 각산, 이하 위원회)와 (주)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는 4월 13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내 하이원리조트에서 사업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7월 18~24일 강원랜드에서 열리는 세계 7대성자명상대전 '명상힐링캠프'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향후 명상을 통한 도박치료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7대성자명상대전 준비위원장 각산 스님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개최되는 올해 명상대전은 해외와 국내 참가자 등 연인원 약 2만5천여명이 강원도 하이원 행사에 참가하는 대규모 수행캠프가 될 것" 이라며, "특히 올해는 전세계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7분의 수행의 고승들을 모시고 세계최초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강원랜드 함승희대표는 "국내 최고의 휴양레저시설인 하이원리조트에서 내외국인 3천여명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뜻 깊은 일" 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외 홍보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 행사기간 집중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운영 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는데에도 합의했다.



세계7대성자명상대전 준비위원회와 (주)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는 4월 13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내 하이원리조트에서 사업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이번 세계명상대전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연인원 2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하고 7월 2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만5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수계법회와 담마토크 행사를, 26 · 27일 양일간은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대규모 대중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글쓰기·리더십교육으로 복지사 역량 UP↑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업무부터 사업 운영 메뉴얼을 제작하고 향후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이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해당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재단 산하 기관을 비롯해 불교계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복지재단은 4월 7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복지 글쓰기'를 개최해 산하 시설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할 때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비롯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수단인 소식지를 제작할 때 어느 정도 글쓰기 실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문 신유식 팀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특성상 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홍보글쓰기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해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과정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장에서 30명의 산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 등에서 실용글쓰기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백승권 실용글쓰기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특히 복지재단은 4월 7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복지 글쓰기'를 개최해 산하 시설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용글쓰기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백승권 실용글쓰기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글쓰기 업무 많은 종사자들에
'사회복지 글쓰기' 호응
직급별 보수교육도 실시
"명상 프로그램 · 해외연수 계획"

이번 교육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3가지 주제에 맞춰 △글쓰기의 기초과정인 글의 구성, 전개, 표현방법과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이웃을 발견하는 글쓰기 △홍보글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지시설 이용자를 비롯해 내 주변 이웃들의 삶을 에세이로 정리하는 '이웃을 발견하는 글쓰기' 시간과 보도자료, 안내문, 각종 홍보용 글쓰기 작성방법을 배우는 '홍보글쓰기' 시간이 유익했다는 반응이다.

공유리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직업특성상 이용자들을 만날 때 말도 잘해야 하고 글 쓰는 기술도 필요하다. 평소 업무 시 글을 쓰려고 하면 두렵고 겁부터 났는데 이번 교육을 듣고 글의 패턴을 익히고 구상을 하면서 쓰니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며 "사회복지사들도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모한다. 이럴 때 글쓰기 능력뿐 아니라 기획 · 마케팅 · 홍보업무 등이 요구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계 인재들의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비롯해 불교사회복지지도자 최고위 과정 등 다양한 연수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입사자 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시설장 연수 등 직급별로 나누어 해당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입사자 연수를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에 입사한 사회복지 실무자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불교적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적 가치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불교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 중간관리자 연수를 통해 현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불교복지를 이끌어 갈 차세대 핵심리더들의 리더십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이밖에 복지재단은 시설장 연수를 통해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핵심리더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복지재단은 회계교육, 코칭클리닉 등을 통해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스킬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산하 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박 2일 화두명상(가칭)'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며, 직급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종사자 해외연수를 오는 11월 준비하고 있다.

서찬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교육자원부문 팀장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감정노동에도 해당돼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이다. 복지재단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산하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증진을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어르신들도 상담봉사자로 나선다

성북노인복지관, 실버키퍼 봉사단 교육 실시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홍희자)는 4월 13일 어르신상담가 양성프로그램 '실버키퍼(Silver Keeper)봉사단' 전문상담교육을 실시했다.

'실퍼키퍼(Silver Keeper)봉사단'는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우울 및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구성됐다. 복지관은 상담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전문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오리엔테이션 및 심화상담입문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어르신 상담가의 의미와 역할'에 배움으로써 전문상담에 대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교육과정 이수 후에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우울예방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02)929-7950



'실버키퍼(Silver Keeper)봉사단'는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우울 및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구성됐다.

이나은 기자

부천청소년문화축제 'Fantastic Youth'

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로 5, 8, 10월 진행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개성을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문화경연 축제가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이하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와 부천시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에 이어 제4회 "2015 부천청소년문화축제 Fantastic Youth"행사를 개최한다.

Fantastic Youth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만들기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총 3회(5월 25일, 8월 15일, 10월 17일)에 걸쳐 열리며, 부천지역 청소년 개인, 동아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진행은 밴드, 댄스, 노래 3개 분야의 경연 방식으로 2차례의 예선과 1회의 본선으로 치러진다.

1차 예선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5일(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석왕사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5월 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예선은 8월 15일(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오정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참가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예선 참가자 접수는 사회복지법인 룸비니(032-668-0076)와 부천시원종종합사회복지관(032-677-0108)에서 받는다.

본선은 10월 17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석왕사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별도 참가신청접수 없이 1, 2차 예선 수상자들 간의 경연으로 열린다.

1, 2차 예선 수상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주최기관의 상장을 시상하며, 본선 수상자는 부천시장상, 교육장상등의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본선의 대상 수상자는 10월 17일 당일 행사 직후 열리는 '부천시민음악회' 오프닝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나은 기자

이천시 복지관 장애인의 날 행사 열어

4월 18일 이천시 온천공원서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광)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8일 이천시 온천공원에서 '2015년 이천시 장애인 식캠페인'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캠페인에서는 '생각의 장애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천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 소속된 13개 장애인복지시설이 함께 하며 장애유형별 장애체험, 장애바로알기 OX퀴즈를 실시했다. 이밖에 행사장 내에서는 3월 23~4월 10일 진행한 제2회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작품도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배우 엄태웅, 관음종 서울복지원에 후원

가수 홍경민씨도 점자금강경 법보시

배우 엄태웅씨와 가수 홍경민씨가 최근 불교계 복지단체를 통해 남모를 선행을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엄태웅씨는 관음종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후원한 사실이 복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져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 복지원은 "엄태웅 씨의 후원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은 '인간다움, 사람다움으로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노력'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불교 관음종단 태허조사스님의 설립이념을 계승한 복지재단으로 현재 많은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이곳은 현재 많은 후원자가 어두운 곳의 등불이 되는 자원봉사 실천하는 곳이다.

엄태웅 씨는 평소 "조용히 선행을 펼치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여러 가지 후원이나 사회봉사를 했지만,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서울복지원 관계자의 글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용히 활동했던 소년 · 소녀 지원사업, 조손가정지원 및 위기가정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 노인 복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후원 사실이 전부 밝혀졌다.


배우 엄태웅 씨가 서울복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을 후원했다.

이밖에 가수 홍경민 씨도 지난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점자금강경 재판 간행에 힘을 보탰다.

홍경민 씨는 부인 김유나씨와 함께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어머니 박경숙 씨의 권유에 따라 점자금강경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은 기자**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일어 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로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禪의 키워드… 종교, 깨침, 긍정, 언어, 발견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

김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중국 선종(禪宗)과 한국 선법(禪法)은 그 명맥을 달리한다. 달마로부터 혜능까지 이어져 마침내 교단이 성립된 중국 선종은 종파가 아닌 사상과 법매의 일종으로 한국에 전파된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3월 28일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에서 '선의 역사(禪之 歷史)' 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호귀 교수는 "선의 발생은 불교의 발생과 같은 시기"라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침을 터득한 방식과 선은 그 명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선종은 중국과 한국에 전래되며 동아시아 불교문화에 장착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구하다

선은 깨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시작된 이래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일관되게 깨침의 추구를 향한 행위였습니다. 불교를 구축하고 있는 두 가지 축을 지혜와 자비로 간주할 경우 자비에 중점을 둔 것이 중생제도의 비원이라면 지혜에 중점을 둔 것은 깨침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처음부터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파불교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도 깨침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불교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선은 수행의 성격이 가장 짙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몇 가지로 한정하여 그 기본적인 성격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이상 좌선이라는 수행을 통하여 자기의 본원(本源)에 철저하여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선은 깨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오(大悟)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깨침은 법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서 법과 자신이 몸소 일치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철저하다는 것은 자기를 구명(究明)하는 대오를 말합니다. 그 대오는 실로 생명의 근원적인 통일로서 이것을 견성(見性)이라고도 하고, 작불(作佛)이라고도 합니다.

셋째, 선은 자신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절대타자로서 초월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심즉불(心卽佛)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 사상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낸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이라는 말은 범부와 부처의 모순대립을 근원적으로 회통시킨 것입니다.

넷째, 선은 언어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경전의 문자에도 한계를 정하고, 또한 그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선에서는 불립문자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개념의 실체화를 배척하는 것이지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문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불리문자(不離文字)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선은 발견입니다.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성품을 자각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대대상전(代代相傳) 축적되어 전승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과 도반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선은 본래성의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새로운 무엇이 되기 위한 것[爲]이 아닙니다. 그와는 달리 지금 자기 이외의 무엇이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무엇도 아닌[非] 지금 자신의 어떤 것이 되는[卽]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여기를 벗어난 다른 것이 아닌 즉금의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卽非]. 분별심이 없는 사량[非思量]이 그렇고, 따지고 비교하는 사량을 하지 않는 마음[非心]이 그러하며, 당체의 사량[卽思量]이 그렇고, 망상과 번뇌가 없는 생각[無念]이 그러하며, 현실 그 자체인 마음[卽心]이 그렇고, 사량을 초월하여 자각하고 작용하는 마음[平常心]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선법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시킨 선풍이 조사선(祖師禪)입니다. 조사선은 달마조사로부터 전승된 가풍을 가리킵니다. 조사선은 이후 당나라 시대에 더욱더 다져지고 발전되었으며, 송대에는 소위 간화선과 묵조선이라는 새로운 수행방식을 창출시켰습니다. 간화선과 묵조선은 모두 조사선풍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으로 일종의 수행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화선은 화두참구를 통하여 깨침을 목표로 하는 수행방식이고, 묵조선은 좌선수행을 통하여 본래성불의 도리를 지금 그 자리에서 몸소 구현하는 수행방식입니다.

부처로부터 시작된 선

이러한 선의 원류(遠流)는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인도에서 실행되고 있던 요가수행의 형태 및 방법은 불교가 발생한 이후에 형성된 선수행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의 직접적인 원류(源流)는 붓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깨침의 방법으로서 활용한 것이 곧 선이었고 선으로 제자들한테 수행하는 가르침을 베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은 붓다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붓다가 선의 수행을 통하여 깨침을 터득한 이후로 불교의 역사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선수행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요가 내지 명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 차이를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과 요가는 모두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신을 가다듬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요가의 목표는 후대에는 해탈이라는 목표도 가미되었습니다만 본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몸과 마음의 조화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상의 목표는 마음의 안정을 우선시 합니다.



김호귀 교수는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묵조선에 관한 연구' 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묵조선 연구〉,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 〈묵조선 입문〉, 〈선과 좌선〉, 〈선문답의 세계〉, 〈조동선요〉, 〈현대와 선〉, 〈게송으로 풀이한 금강경〉, 〈길장 금강반야경소〉, 〈금강경 주해〉, 〈규기 금강경찬술〉, 〈원효 열반경종요〉 등의 저서 외 기타 다수의 논문이 있다.

禪은 수행 성격 가장 짙은 가르침
본래 성품 자각해 일상서 구현하는 것
경험이 대대로 축적돼 전승되기에
반드시 스승과 도반 · 지침이 필요
조사선…선법 특징 잘 구현시킨 선풍

이에 비하여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침입니다. 그 깨침을 위해서 몸을 추스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제어하고 집중하며 통일합니다. 이로써 선에는 당연히 명상적인 요소 및 요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 여타의 수행과 다른 점입니다. 나아가서 그 깨침의 결과로 올바른 지혜가 터득됩니다. 올바른 지혜에서는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자비가 도출됩니다. 그 자비야말로 자신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로써 불교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자비는 모두 선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선으로부터 전승되었으며 선으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선을 선택하여 수행을 하였고 깨침을 터득하였으며, 나아가서 선의 방법을 더욱더 보편적으로 개발하고 전승하여 교화의 방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선을 통한 수행과 정진으로 매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하는 경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선경(禪經)에서는 특히 호흡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간주되었습니다.

붓다의 선정주의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한 해탈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문에 붓다는 그동안 초췌했던 육신을 추스르고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고요히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붓다가 경험한 선정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흔히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곧 붓다의 사선(四禪) 수행입니다.

초선은 번거로운 현실을 벗어나 고요한 경지를 맛보는 경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아만과 의심에 찌들어 있다가 잠깐이나마 그로부터 벗어나 느끼는 내면의 순화였습니다. 때문에 이생희락(離生喜樂)이라 합니다. 일상생활을 벗어나 기쁨[喜]와 즐거움[樂]을 경험하는 것으로 아직은 거칠고 미세한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제이선은 선정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의 경험으로 정생희락(定生喜樂)이라 합니다. 선정으로부터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거칠고 미세한 번뇌가 모두 사라집니다. 제삼선은 지속적인 선정을 통하여 기쁨마저 벗어나고 즐거움만을 경험하는 경지로서 이희묘락(離喜妙樂)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기쁨[喜]와 즐거움[樂]이 구분되는데 감각적이고 현상적인 즐거움을 희(喜)라 하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락(樂)이라 합니다. 제사선은 일체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아만과 의심을 여의고 즐거움마저 벗어나 모든 사념이 고요해지는 적정상태인 사념청정(捨念淸淨)의 경지로 분별적인 고(苦)와 락(樂)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고불락(不苦不樂)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희열(喜悅) → 행복(幸福) → 평정(平靜) → 평정의 지속[涅槃]이 됩니다.

붓다는 곧 초선으로부터 제사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수행을 통하여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깨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제사선에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의 중도균형을 바탕으로 깨침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관균형(止觀均衡) 내지 지관균등(止觀均等)이라 합니다. 그것은 사마타의 요소와 위빠사나의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중도의 상태였습니다. 이로부터 점차 사선은 보다 세분화되고 발전하여 팔정(八定)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사선팔정(四禪八定)의 계위가 출현하였고, 나아가서 멸진정(滅盡定)까지 설정되어 구차제정(九次第定)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중국 선종과 한국 선법의 차이

중국의 선종(禪宗)과 한국의 선법(禪法)은 약간 다릅니다. 중국 선종이라는 것은 선을 중심으로 한 교단 내지는 종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법이라는 것은 중국 선종에서 우리나라에 선이 전래될 때 종파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법매, 또는 개념 등으로 전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마로부터 비롯된 중국 선종은 남종 선법을 바탕으로 전개됐습니다. 보리달마는 6세기 초에 중국에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약 500여년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전래와 선의 전래는 그런 점에서 시기가 같지 않습니다. 사실 6세기 이전에도 선은 있었고 전래된 경전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선수행의 일종을 하긴 했지만 그 시기는 오늘날 선종의 역사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선종의 역사는 달마를 초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달마로부터 전래된 중국 선은 약 200년 간 형성시대를 맞이합니다. 다른 말로 초기 선종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순선의 시대'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선의 시대라는 의미는 달마대사로부터 혜능대사까지 선이 전해지며 한 스승 아래 한 제자만 두는 정통의 맥을 잇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혜능으로부터 당 시대 이후 오대시대까지 약 200년간은 선이 가장 크게 발전하던 시대라고 해서 선의 발전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황금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대시대 이후 송 대까지 약 3백 년 동안은 선풍이 계승되었다는 의미로 계승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송 대 이후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를 계승 이후 쇠퇴기라고 부릅니다. 그간에 당 말기부터 오대 시대에는 선종오가의 분립으로 나타났고, 송대에는 새로운 선수행법의 창출을 보였습니다. 순수한 선사상 외에도 정통사상, 밀교사상 등 수행법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명대 이후 선정융합(禪淨融合) 내지 수행법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법랑 스님이 선법을 전한 시초입니다. 중국의 달마와 같은 존재이지요. 법랑 스님이 도진대사 아래에 있다가 신라로 와서 신행 스님에게 중국 동산불교의 선법을 전하는 데 이것이 우리나라 선법 역사의 최초가 됩니다. 법랑 스님은 700년 대 중반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삼국통일이 되어있었고 200년 전 법흥왕 때 불교가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이후 200년이 지난후에 비로소 선법이 전래된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법랑 스님 이전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등에 의해서 불교 교리가 보편화 되어 있었으며 선법의 일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효 스님은 많은 선 교리를 전하긴 했지만 우리 선법의 역사로는 법낭 스님이 최초의 선법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 중기의 선법은 거사선의 유행과 함께 특히 송 대의 임제선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려시대는 사굴산문 및 가지산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고, 고려 말기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의 법맥으로 계승되어 청허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등사서를 통한 법맥의 강조와 더불어 사기(私記)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성매매, 부처님은 사회적 문제로 보았다"

김한상 동국대 박사, 〈불교학연구〉서 성매매 해결방안 밝혀

성매매 문제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눈길을 끈다. 김한상 박사(동국대 불교대학)는 최근 〈불교학연구〉 42호에 실린 '테라와다 불교의 관점에서 본 매춘' 논문을 통해 부처님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밝혔다.

먼저 김 박사는 부처님은 성매매 여성의 업을 소멸하고 근본적인 성욕을 절제하는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성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불교가 흥기하기 전 고대 인도에도 존재했다"며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사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많았고 부처님은 이에 대한 철학적 해결 방안을 아끼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빨리경전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임시 아내로 표현했다.

김 박사는 "빨리 경전에서 매춘부는 결혼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신분이기에 이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불사음계를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들 역시 '임시 아내'에 속해 만약 다른 남자와 계약이 돼 있다면 불사음계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테라와다 불교의 관점에서 성매매 자체는 선도 불선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생에 지은 불선업의 결과를 받기 위해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인식하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들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대사회에서 성매매는 부도덕한 범죄로 치부됨과 동시에 성매매 여성을 비난하는데 그치지만, 불교에서 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사여성을 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며 "욕계에서 다수사람들

빨리경전의 성매매 인식 다뤄

종사여성 직업교육 · 복지 주장

부정명상 통한 성욕 절제 제시

의 감각적 욕망에 의한 결과이기에 사회의 성매매는 모두의 업으로도 확장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상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빈곤문제로 성매매에 빠져드는 여성이 많다. 이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다른 직업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대사회에서 성문화 퇴보에 따른 불교적 사상적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명동 거리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의 성매매 근절 캠페인 모습. 김박사는 불교계가 성매매 인식 개선과 성욕절제를 위한 수행 보급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성욕에 대한 자기절제 방법을 사회에 전하고, 남성 위주, 물질 만능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세속의 대중들의 욕망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사회에서 성매매를 없애버리면 통제할 수 없는 성욕이 분출되고 다른 방면의 성문화나 도덕의 퇴보를 초래한다. 고대 인도에서 성매매를 그릇된 생계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성욕을 절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숫다니파타〉에서는 역으로 성을 구매하는 남성에게 이는 파멸의 문이라고 표현하며 감각적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말한다. 즉, 성욕을 수행으로 승화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예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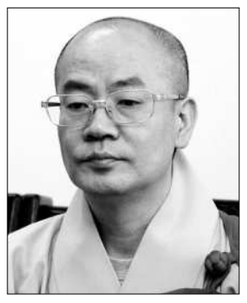
김 박사는 끝으로 "몸의 더러움을 관찰하는 부정명상 등을 통해 불안정한 성욕에 대항해 마음을 유지하는 정신요법을 개발할 수 있다"며 향후과제를 밝혔다.

한편,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된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 42집에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원효의 제7말나식관',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천태사상과 원효사상의 공통요소'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후기 화엄학 유행과 배경'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화엄경 편집은 호탄에서 이뤄졌는가' 등이 함께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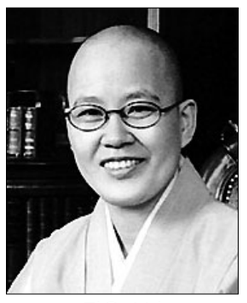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단나학술상에 법상 · 자명 · 정운 스님

중앙승가대 연구업적 기여자에 수여… 4월 29일 시상식


법상 스님


자명 스님


정운 스님

중앙승가대가 부설 연구직원 및 연구논문, 저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단나학술상에 법상, 자명, 정운 스님이 선정됐다.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4월 13일 동국대 강사 자명 스님과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이 우수저서 부분에,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우수학술논문에는 법상 스님의 〈정토학연구〉 제21호에 게재된 '오정심관과 천태의 화법사교' 논문이, 우수저서 부문에는 자명 스님의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민족사)와 정운 스님의 〈대승 경전의 선사상〉(불교시대사)이 선정됐다.

우수 저서와 학술논문 각 분야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법상 스님은 1984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 후 동국대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교육원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과 교육원 교육아사리 소임 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우수저서 필자인 자명 스님은 1979년 해인사로 출가해 벽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PC동호회인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에서 지도법사를 맡아 인터넷 포교에 앞장섰으며, 서울 마하보리사를 창건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포항공대, 경희한의대 등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대학생 포교현장에서 활동해왔다. 2011년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운 스님은 1989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 후 동국대 선학과에 입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지냈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과 불교 인터넷방송 그리고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경전강좌를 강의했다. 2009년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전숲길(한권으로 읽는 경전)', '명상, 마음치유의 길' 등 저서를 펴냈다.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 강사,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4월 29일 오후 4시 중앙승가대 자비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031) 980-7709

노덕현 기자

염불선 사상과 흐름 한번에 살핀다

청화사상연구회, 5월 1일 '염불선 발전과정' 세미나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과정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5월 1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고찰과 그 발전과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염불선과 선정계위'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정중무상의 인성염불과 청화선사의 염불선'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원효의 염불관과 청화의 염불선'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먼저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조준호 연구교수는 초기불교에서 염불의 선정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조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염불선에 대한 위치를 조명하고, 현대 불교의 선정에서 염불의 위치를 재조명한다. 조 교수는 "부처님 당시와 초기경전에는 '염불이 곧 선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지만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며 염불선정의 가능성과 여지가 봉쇄됐다"며 "불교 본래의 염불선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현대 불교신앙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염불선은 단순히 칭명에 끝나는 것이 아닌 선정에 이르는 수행법으로의 위상을 지닌다. 굴곡된 염불선정을 복원시킨다면 대중불교와 산중불교의 교차점에 서있는 한국불교계에 또 다른 발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은 "염불선은 불교의 여러 수행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며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수행법"이라며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살핌으로써 청화대선사의 염불선사상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이태승 원장' 체제로

5월 2일 취임식…재가불자 중심 신불교운동 전개

2015년 41주년을 맞아 신불교운동을 선포한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김종화)이 새 수장을 선출하고 조직쇄신에 나섰다. 한국불교연구원은 4월 5일 개원41주년 이사회를 열고 제6대 원장에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를 제6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태승 신임원장〈사진〉은 "연구원의 설립이념인 보살사상의 현대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임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에 이어 선출된 이태승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부, 석사를 마치고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인도 후기대승불교철학을 전공으로 하여 불교학박사를 취득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샨타라크쉬타의 중관철학〉을 비롯해 〈을유불교산책〉, 〈인도철학산책〉, 〈실담범자입문(공저)〉, 〈지성불교의 철학〉 등이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이번 이 원장 취임을 기해 조직쇄신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신불교운동' 전개를 위해 그동안 전국구 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불교연구원을 열린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데 이어 불교연구실, 열린유마선원, 전국구도회 등을 통해 사회참여에도 활발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불교연구〉 학회지 발간을 이어가는 한편 실참에 필요한 2년 기초과정과 1년 전문과정의 강좌 등도 진행된다.

이태승 신임원장의 취임식은 5월 2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주요 불교인사와 전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그리고 전국구도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불연 이기영 박사(前 동국대 교수)가 1974년 설립한 재가불교 중심의 불교학술 및 신행단체다.

노덕현 기자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행복가정 프로젝트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불교계가 상호 이해와 배려 등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명상상담평생교육원(원장 인경)과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주지 진경)은 4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는 총 8개 과정으로 △만사형통, 엄마의 소통리더십(김상임 블루밍경영연구소) △나를 찾는 행복, 에니어그램(김동성 마음텃밭 명상상담센터) △심리도식치료, 나의 내면아이 만나기(김동한 명상상담평생교육원) △내 삶을 힐링하라(인경, 진경 스님) △카톡 말고 소통, 스마트미디어 UCC 소통하기(박명석 청운대) △내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상담하기(김문자) △행복한 가족 세우기(인경 스님) △가족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인경 스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 내 대화를 통한 소통을 늘려 최근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족 내 소외 문제, 세대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는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강의 후 법련사에서 재강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명상상담평생교육원, 5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법련사에서 강의가 이어진다.

인경 스님은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간 소통단절, 소외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가족 구성원간 역할을 느끼고, 다른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진경 스님은 "취임 후 대중 문화포교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인경 스님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며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만큼 새로운 포교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02)733-5322

노덕현 기자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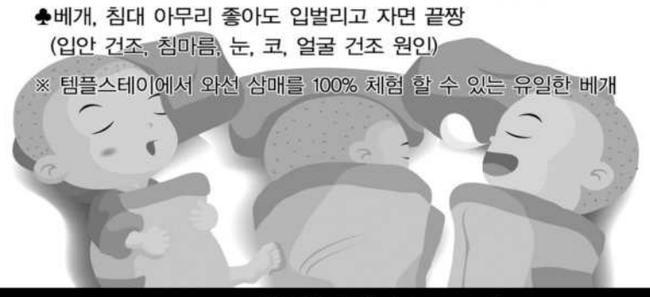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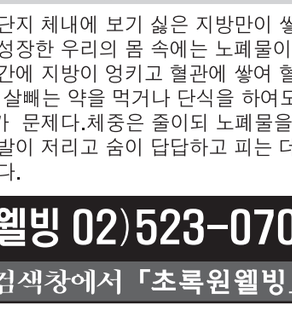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괘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제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천 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 모 집 : 수시 모집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신논현역 교보문고타워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리자(유리자동서), 옥룡자(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외 등
승가 비전 풍수 중점 강의



전화 ☎ 010-5559-1529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예봉 합장

화순에 '진각국사 기념관'이 건립된다

진각국사 837주년 기념 학술대회서 화순군 공개

한국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기념관이 화순에 건립된다. 진각국사선양회(회장 대현)가 4월 11일 전남 화순 군민회관에서 개최한 '혜심 진각국사 탄신 제837주년 기념 제2회 학술대회 및 제9회 다례재'에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진각국사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서 구충곤 군수는 "화순에서 출생한 진각국사 혜심 스님은 보조국사의 법맥을 이어 한국 간화선 전통을 확립시킨 선구자이지만 그 업적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혜심 스님의 선풍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먼저 화순군민회관이 있는 남산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현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혜심 스님의 삶을 되돌아 보고 그 수행정신으로 실천행을 펼치기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1부 기념식에 이어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조명제 신라대 교수의 '혜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염송집〉',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의 '진각국사 혜심의 여성성불론'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진각 혜심의 선사상 체계와 불교사적 의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최정렬 조선대 명예교수, 이중표 전남대 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명제 교수는 "고려 후기 선은 공안선의 수용과 전개가 주된 흐름이었다. 종래 연구에는 수선사(순천 송광사)를 개창한 지눌 스님의 역할에 주목해왔다"며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눌 스님 이후 혜심 스님의 공안선 수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는 "혜심 스님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여성 성불을 인정하고 비구니들에게 문호를 열었다. 이는 생활에서 사부대중이 화두참구 토록하는 대중불교의 단편"이라고 말했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혜심 스님의 선사상 속에는 조사선과 공안선, 간화선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선과 교, 정토 및 밀교적 요소 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의 조화 또한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학술대회에 이어 3부 행사로는 다례재가 진행됐다. 다례재는 광주 미륵사(주지 목언) 차공양팀이 집전했다.



4월 11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열린 진각국사 837주년 학술대회 모습. 이날 구충곤 군수는 진각국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진각국사 혜심 스님은?

진각국사 혜심 스님(1178~1234)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보조국사 지눌 스님 밑에 출가했다. 1210년 지눌 스님 입적 후 수선사 2대 주지로 수선사를 확장하고 선풍을 더욱 진작시켰다. 혜심 스님은 고려 고종이 즉위한 1213년 선사(禪師)에 제수받고 1216년 대선사로 올려졌다. 1234년 6월 26일 문인인 마곡(麻谷)에게 "이 늙은이가 오늘은 너무 바쁘다"라고 말하고 가부좌한 채 앉아서 입적했다. 이때 나이 56세, 법랍 32세였다. 혜심 스님의 저서로는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을 비롯해 〈심요〉(心要),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이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각국사선양회장 대현 스님을 비롯해 前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과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사장, 구충곤 화순군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서 불교관 운영

불자선수 및 임원 대상 명상 프로그램·연합법회 등 진행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불교관이 운영된다. 광주시(시장 윤장현)는 4월 7일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열고 대회기간 외국인 불자선수들과 불자임원들을 위한 '불교관'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의 가장 큰 국제행사"라며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은 "광주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대회기간 불교관에서 예불과 명상, 연합법회 등의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지역 스님 9명과 함께 개신교계 목사 10명 등이 초청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종교계 협조를 요청받았다.

한편 전세계 대학생 종합스포츠 대회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라남·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총 21개 종목에 170여 개국 20,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수 죽림정사, 백용성조사 봉찬대재

독립운동가이자 대각교운동을 펼친 백용성 스님 75주기를 맞아 용성스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찬대재가 열렸다.

4월 12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개최된 봉찬대재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을 비롯해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신봉수 상무이사, 세계불교청소년교화후원회 박상록 사무국장, 정토회원 등 6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봉찬대재는 7여래불·69전등조사·7대사·역대 104조사에 대한 다례재, 용성진종조사 입멸 75주기 추모법회,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이어 백용성조사의 유훈십사목 낭독 둥이 이어져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용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기



는 자리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은 이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용성종사와 같은 애국 선열지사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독립운동으로 나라와 민족 사랑을 실천한 스님의 정신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8회 한·중·일 3국 평화의 종 타종식

완도 신흥사 주최, 4월 14일 일본 입석사 등 참가



완도 신흥사가 4월 14일 개최한 평화의 종 타종식에서 한중일 3국 관계자들은 우호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는 4월 14일 완도군청 관계자, 장보고 대사 관련 단체, 신흥사 신도와 지역민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중·일 3국 평화의 종 타종식을 열었다.

이날 타종식에서는 일본 야마가타현의 공양미 전달과 함께 타종인사 소개, (사)장보고연구회 정영래 회장의 축사와 타종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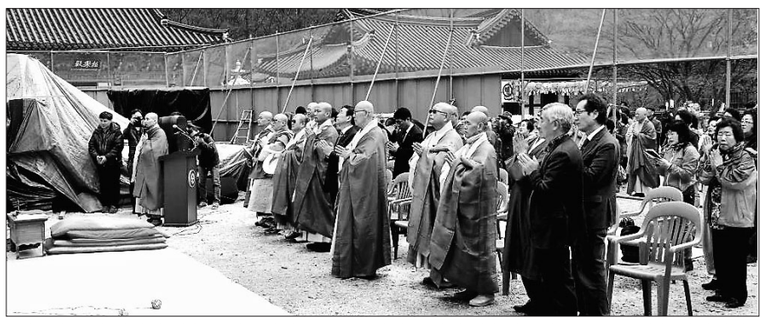
이날 법일 스님은 "장보고 대사는 당시 신라와 당,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평화를 견인했다"며 "장보고대사의 역할과 업적에 보은의 마음을 담아 우호를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평화의 종 타종식은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한·중·일 3국 우호촉진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완도 신흥사, 중국 적산법화원, 일본 야마가타현 입석사 등 세 곳에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일본 야마가타현 입석사에서 부처님께 바칠 공양미를 직접 가지고 방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 내장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25억원 예산투입,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준공 목표



4월 7일 열린 내장사 대웅전 상량식에는 200여 명이 동참해 대웅전의 순조로운 복원을 기원했다.

2012년 10월 화재로 소실된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의 복원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4월 7일 상량식이 열렸다.

상량식에는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벽련암 진공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대웅전의 순조로운 복원을 염원했다.

상량식은 산신제에 이어 타종, 경과보고, 발원문 낭독, 축사, 상량문 낭독, 상량순으로 진행됐다.

복원 중인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각지붕 형태로 25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166㎡로 대웅전 주변에는 높이 1.4m의 석축이 설치된다.

혜산 스님은 "각계의 정성으로 공사를 추진해 상량식을 갖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우화정 개축,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성역화 사업 등 숙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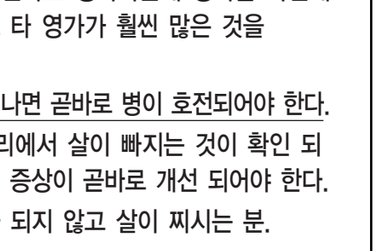
구례 화엄사 염불봉사단 출범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4월 14일 신도들의 체계적인 사회회향 활동을 위해 '화엄사 염불봉사단'을 발족했다.

화엄사 총무국장 효광 스님을 단장으로 이날 창립된 봉사단은 30여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해, 구례지역은 물론 인근 순천, 광양지역의 다양한 염불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영관 스님은 발대식 인사말에서 "부처님은 한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중생을 구했다. 이는 중생의 고통에 대한 절절한 공감과 울림이 바로 수행임을 보여주신 것"이라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회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자신의 수행을 가꾸는 것



은 물론 화엄정토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엄사는 매주 화요일 불교의식의 이해, 불교자원봉사의 의미, 염불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최첨단 장비로 소중한 문화유산 지킨다

범어사 3차원 정밀 측량 최첨단 장비 도입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3차원 정밀측량' 최첨단 장비로 문화재 보호에 나섰다.

범어사가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홍용성)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나섰다. 3차원 정밀측량은 최첨단 정밀 기기를 사용해 문화재의 모습 및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3차원 3D로 재탄생시키는 측량 기술이다. 4월 15일 범어사 작업현장을 찾아 '3차원 정밀측량' 의 필요성과 문화재 보호의 방향성을 알아봤다.

이날 대한지적공사 부산 · 울산지역본부(이하 지적공사) 연구원들은 드론(Drone) 장비를 이용해 범어사 경내를 촬영 중이었다. 드론은 무인 항공기로 지상 최대 100m 항공을 날아 좌우 200m까지 정밀 촬영 할 수 있는 도구다.

드론의 촬영 성능에 대해 최차환 과장은 "경내에 있는 작은 동전과 돌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하는 기기다. 땅에 있는 5cm의 물체까지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적공사는 입체측량장비인 3D지상라이더(Lidar) 장비를 통해 범어사 실내공간을 정밀 촬영했다. 지상 라이더는 1cm 크기의 물체도 정밀하게 나눠 촬영하고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부까지 촬영하는 장비다. 두 장비를 통해 취합한 자료는 네트워크 'RTK' 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보 조각을 맞추고 현실 세계와 같도록 3D 공간을 만든다. 이 3D 입체공간은 가상체험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범어사 문화재 침하 지역과 비틀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아울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문화재 보수시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도 있다.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다 본 범어사 영상 자료와 그동안 확인 할 수 없었던 문화재 벽 뒷면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범어사는 '3차원 정밀측량' 최첨단 장비로 문화재 보호에 나섰다. 사진은 4월 15일 정밀 측량 중인 범어사 경내 작업현장.

부산서 처음 시도하는 시범 사업
최신 장비로 문화재 복구·관리 가능
3D 정보로 범어사 새 모습 발견


드론 무인 항공기로 촬영한 범어사

범어사 재무국장 석산 스님은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지금도 문화재 수리를 할 때 옛날 사진을 보고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범어사의 3차원 정밀 측량은 대웅전 기둥 나무가 어떤 종류로 쓰였는지도 확인이 가능해 정확한 복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적공사 최차환 과장은 "부산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집약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의 자존심 범어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이며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런 소중한 장소에서 시범 측량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석산 스님은 "범어사뿐 아니라 문화재 부문에 전체적으로 3차원 정밀 측량이 보급되길 바란다. 문화는 국력이다. 문화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물론 이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힘이 좌우된다. 이런 기술은 일찍 도입 됐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적공사는 7월 말까지 범어사 경내에서 일주문, 대웅전, 관음전, 팔상전, 석탑 등 문화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범어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범어사는 3D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작해 홍보할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 여성불자회 '문화 인재불사' 나서

금정중 파라미타 학생에게 중국문화탐방 후원 및 장학금 전달

부산 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가 파라미타 학생들을 위한 문화탐방을 후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종립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 소속 파라미타 학생 14명과 이석언 교법사는 부산여성불자회가 4월 3일~7일 주최한 중국정주문화탐방에 참석했다.

이들은 중국 허난성 정주, 허난성 박물관, 중원북탑, 소림사, 만선산풍경구와 낙양 용문석굴, 백거이묘 등을 방문했다.

금정중 파라미타 회장 한승현(16)학생은 "용문석굴에서는 중국인의 지극한 불심을 느낄 수 있었다. 소림사에서는 제 또래의 학생들이 진행한 무술시범을 보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소감을 말했다.

정진완 교장은 "이번 중국문화탐방은 수년간 본교에 장학사업을 해 온 여성불자회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재단에서 불교신행우수학생을 위한 해외견문과 봉사활동을 추진해보라는 사항이 있었다. 본교에서 그동안 추진한 활동들을 종합해서 앞으로도 미국 어학연수와 동남아 불교국가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여성불자회 후원으로 중국 문화탐방에 참가한 금정중 파라미타 학생들

또한 여성불자회는 4월 16일 부산불교연합회 교육관에서 파라미타 학생 20명 및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추천한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삼밀사, '관세음보살 · 원상 봉안 가지불사'

불교총지종 부산 삼밀사(주교 서령)가 4월 14일 삼밀사 경내에서 '관세음보살입상 및 원상 봉안 가지불사' 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 통리원장 법등 정사, 중앙종의회의장 수현 정사, 부산 · 경남교구장 시정 정사를 비롯해 교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관세음보살상 봉안의식은 총지종이 발굴한 정통 밀교 비밀가지의궤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비밀가지의궤는 밀교 진언으로 진행하는 전통 의식이다.

삼밀사 관세음보살입상은 화강암으로 조성된 높이 6m의 입상이다.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염송 정진하는 불교총지종 신도들에게 이번 봉안가지불사는 큰 의미를 전해 주었다. 하성미 기자


총지종 삼밀사 '관세음보살입상 및 원상 봉안 가지불사' 개최

소외계층 아동 위한 차문화 명상 프로그램

동명대 세계선센터 4월 11일 진행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아동복지시설 '해바라기 그룹홈' 소속의 아동들을 위한 차문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월 11일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 4층에서 열린 차문화 명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인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프로그램은 긍정적 자아상을 위한 별칭 정하기, 차 도구 설명 및 다도 시연, 동명대 나들이로 진행됐다. 특히 강사로 나선 이영희(차문화와 명상), 조인숙(MBSR) 교수와 세계선센터 배인숙 부센터장은 아동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하고 수업 또한 재능 기부로 진행해 훈훈함을 더했다.

아동복지시설 '해바라기 그룹홈' 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및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양육하는 소규모 보호시설이다. 이영희 교수는 "다도를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질서도 배우며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세계선센터는 이번 첫 수업을 시작으로 아동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동명대 세계선센터 소외계층 아동들을 차문화 명상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했다.

부산 자비암, 제 10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부산 자비암(주지 자관)이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4월 12일 자비암에서 열린 이번 위령대재는 주지 자관 스님, 황선옥 신도회장을 비롯해 동래구 이진복 국회 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래읍성 마안산에 위치한 자비암은 매년마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을 지킨 호국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주지 자관 스님은 "동래 읍성을 지킨 호국 영령 천도는 곧 자비암과 부산 동래의 안녕과 평안을 발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무심선원 4월 12일 낙동강 수륙대재

무심사 무심선원(선원장 무심)은 '제8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재' 대법회를 4월 12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대종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암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륙용왕재는 지수화풍의 4대 신에게 마음의 작용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 불교의 목적을 바로 알아 우주의 근본진리인 참 나를 발견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화사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

동화사는 4월 14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오신날 홍보대사로 활동할 동자승의 '삭발식 및 수계법회' 를 열었다. 이번 동자승 삭발식에는 대구지역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8명이 참여했다. 동자승들은 달구벌점등식과 관등놀이 축제, 연등회 및 연등행렬 등에서 부처님 오심을 경축하고 부처님 오신 참뜻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축의 기쁨을 홍보할 동자승들. 동화사는 4월 14일 대웅전에서 동자승 삭발식을 개최했다.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벚꽃 삼매경 빠진 천년고찰… 번뇌는 저만치

봄꽃이 아름다운 사찰

③ 경주 기림사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안거를 보내신 기원정사의 숲인 '기림'에서 붙여진 경주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기림사.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전각을 하얗게 뒤덮고 있다.



임진왜란때 승병지휘소였던 진남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205호인 삼층석탑



김시습 선생의 영정을 모신 매월당

경주 기림사(하성미 기자)

경주 함월산 기슭에 있는 기림사(祇林寺)는 불국사보다 앞서 지어진 가람이다. 한때는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릴 정도의 대찰이었다. 기림사는 천축국(인도)서 온 광유성인이 창건해 임정사(林井寺)라고 불렀다. 그 후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원효대사가 사찰을 크게 확장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 때에 이미 대적광전을 건립해 삼신여래를 봉안했고, 동쪽에는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을 건립했다. 그리고 서쪽에는 석조오백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을, 동쪽에는 삼층목탑과 정광여래사리각을, 남쪽에는 무량수전과 진남루를 건립했다. 그러나 사리각은 없어지고 삼층목탑은 그 터만 남아있다.

기림사를 품고 있는 함월산은 추령을 사이에 두고, 안개와 구름을 토하고 삼킨다는 토함산과 마주해 솟아있다. 그런데 지명이 주는 산과 사찰의 이름이 흥미롭다. 기림사가 들어 앉은 '함월'은 달을 품은 산이라는 의미다. 달을 잘 담을 수 있는 둥글고 넓은 분지 가운데, 용이 날아오르고, 봉황이 춤추며, 신령스런 거북이가 물을 마신다는 영구 음수형의 명당자리란 말이다. '기림사'도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머금거나 받아들여서' 마침내 평안한 경지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절집이라는 뜻이다.

기림사 주차장에 차를 대면 약 200m 남짓의 산길이 보인다. 산길은 그리 길지 않지만 나무가 높고 숲이 깊어서 제법 운치가 있다. 산길 옆으로는 투명한 계곡물이 흘러 내리는데, 입 안에 머금어 보고 싶을 정도로 물빛이 청명하다. 기림사의 맑은 물 친견에 대한 시발점이다. 천왕문만 지나면 다양한 종류의 약수를 실컷 들이킬 수 있다.

기림사에는 '오종수(五種水)'라는 명물 약수들이 있다. 오탁수(烏啄水)는 물맛이 하도 좋아서 까마귀도 쪼아 먹었다는 물이다. 명안수(明眼水)를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 하고, 화정수(華井水)를 머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 이슬 같은 약수도 있으니 그 이름은 감로수(甘露水)다. 마지막으로 장군수(將軍水)가 있는데, 마시면 기개가 높아지고 몸이 웅대해 진다고 한다. 이 다섯 종류의 물로 차를 달여보면 물맛에 따라 차맛이 각각 다르다고 전해진다. 장군수는 대적광전 앞 삼층석탑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탑으로 막혀버려 찾아볼 수가 없다. 장군수의 수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일화가 전해져 온다. 하나는 장군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 한 일제가 덮어버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성종 때 장군수 옆에서 역적모의가 발생하자 나라에서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우물은 화정수와 명안수이다. 특히 화정수는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물이 가득한 우물이었다. 명안수는 자리는 있으나 물은 말랐다고 한다. 부주지 운암 스님은 "물길을 찾아 복원하는 일도 기림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나머지 우물은 문헌에 따라 찾아서 차 문화 유적지로써 그 위상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왕문을 지나면 반기는 것은 일자형으로 길게 좌우를 편 진남루다. 임진왜란 때 승병 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진남루는 다른 절집의 강당처럼 거대하거나 높지 않다. 진남루 벽면은 외창 역할을 하는 나무문이 정갈한 모습으로 야무지게 닫혀 있다. 장방형 문짝이 빚는 절묘한 조화가 조각보를 보는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벽면이다. 진남루는 경남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자방루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건물인 셈이다.

광유성인 창건, 643년 원효대사가 재건

'오종수' 유명… 화정수 · 명안수만 남아

석축아래는 옛 전각, 윗녘에는 새 전각

전통학림운영, 차문화 복원 사업 등 계획

진남루를 등지고 섰을 때 정면은 대적광전, 왼편은 응진전, 오른편은 약사전이다. 대적광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조선 후기 법당으로 보물 제 833호다.

대적광전은 배면 일부만 제외하고는 모두 장방형 막돌 1벌대 쌓기한 기단 위에 자연석을 적당히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과 주좌와 고맥이좌까지 다듬어진 초석들을 혼용해 약한 흘림을 한 원기둥을 세운 다포식 건물이다. 어칸과 협칸의 공간포는 2구(具)씩이고 측칸의 공간포는 1구이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이다. 공포의 짜임은 외 3출목 내 4출목으로 주두와 소로의 굽면은 사면이고 굽받침은 없다. 정면 각 주간에는 소슬빗살꽃살창을 달았다. 어칸과 협칸은 4짝씩이고 측칸은 3짝씩인데, 어칸과 협칸의 모양은 서로 같지만 이들은 측칸의 모양과는 다르다. 좌우 측면 전면쪽 측칸에는 두짝의 여닫이 꽃살창호를 달았다. 후면의 어칸과 두 측칸에는 두짝 판문을 달았다. 대적광전은 공포에 조각을 많이 넣어 17세기 건축 흐름을 알 수 있고, 특히 수리를 할 때 옛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아 중요한 건축사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법당 안에는 흙으로 빚은 3m 이상 높이의 커다란 삼존불이 봉안돼 있다. 문득 올려다보면 아득해 지다가 정신이 번쩍 들 법하다. 조선 인조 7년(1629)에 조성된 것들로 보물 제958호다. 한가운데가 지혜의 광대무변함을 상징하는 본존불(本尊佛) 비로자나불이다. 왼편은 노사나불, 오른편은 석가모니불이다. 무인처럼 주위를 압도한다.

흥미로운 것은 비로자나불의 수인(手印)이다. 수인은 수행자의 다짐을 나타내는 손 모양을 말한다. 예를들면 석굴암 본존불의 수인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다. 우리나라 불상들은 대체로 이 수인을 하고 있다.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얹은 길상좌(吉祥坐:결가부좌의 하나) 상태에서 왼손을 배꼽 앞에 가만히 놓고 오른발을 짚은 오른손의 검지로 땅을 가리키는 자세다. 석가모니는 득도하기 전에 마왕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으나 땅의 신을 이용해 마왕을 물리쳤다. 항마촉지인은 '땅을 가리켜 마왕을 항복시킨 손 모양'이란 뜻이다.

기림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지권인(智拳印)이다. 지권인은 왼손을 가슴까지 올려서 검지를 편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가만히 감싸쥔(혹은 머금은) 손 모양을 말한다. 비로자나불은 모두이 수인을 하고 있다. 이때 오른손은 불계(佛界), 왼손은 중생계(衆生界)를 뜻한다. 그러니까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지금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미혹함과 깨달음도 본래 하나라는 설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림사는 2m가 넘는 석축으로 아랫녘과 윗녘이 구분되어 있다. 아랫녘에는 대적광전을 비롯한 옛 전각들이 모여 있고, 윗녘에는 삼천불전을 비롯한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진남루와 대적광전 등 무채색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다양한 모양의 담벼락이다. 차곡차곡 머리통 만한 돌로 쌓은 돌담과, 기왓장을 포개 무늬를 넣은 흙담 등이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을 변주한다.

기림사는 보물들이 많은 사찰이다. 사찰 입구의 성보박물관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림사 보물의 중심은 박물관 한가운데 모셔져 있는 건칠보살좌상이다. 1501년(연산 7년)에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든 속에 삼베를 감고 종이를 발라 그 위에 옻칠을 하고 다시 금을 입힌 불상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은 늘씬하게 잘 빠졌다. 옷 주름도 여성의 숄이 흘러 내리듯 뇌쇄적으로 몸을 감싼 파격적인 디자인이다.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꽃미남 같은 불상이다.

박물관에는 삼존불에서 나온 복장유물과 지옥, 염라대왕을 묘사한 탱화 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옆 산자락에는 김시습의 영정을 모신 사당도 있다. 이 영당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1435~1493)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본래의 영당은 현종 11년(1670) 경주부사 민주면이 선생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 선생이 은거한 용장사 경내에 오산사를 지었으나 고종 5년(1868)에 훼철됐다.

고종 15년(1878) 이를 애석하게 여긴 경주 유림이 경주부윤 민창식에게 청해 기림사 경내에 다시 지었으나 그 후 퇴락됐다. 이후 1998년 경주시서 현재의 위치에 중건했으며, 매년 음력 2월 중정에 향사를 봉행한다.

김시습 선생은 신동으로 장래가 촉망됐으나 단종 3년(1455)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사에 뜻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했으며, 경주 용장사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저술했다.

기림사엔 최근 불국사 승가대학장인 덕민 스님이 4월 5일 주지로 부임해 변혁을 꾀하고 있다. 부주지 운암 스님은 "주지 스님이 새로 오셔서 두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승가대학원 성격의 학림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통 교육방법 그대로 학인을 교육시켜 전통학맥을 다시 부흥시킬 생각"이라며 "또 하나는 기림사가 오래된 차문화유적지임을 다시 재현해 내는 것이다. 사찰 뒤편에는 차밭이 1만여평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사찰 전통 차문화를 복원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기림사=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공 초월한 포용적 사고… 四方+三世 반영

탑의 진화

㉞ 7층 불탑

부처님의 열반 직후부터 불제자들은 사리를 보다 더 잘 봉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인도에 남아 있는 산치 대탑을 비롯한 많은 불탑 유적은 한 결같이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려는 조형적 특징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불탑조형성을 수용하였지만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불탑신앙을 반영하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불탑을 꾸준히 조성하여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 다양한 불탑의 층수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연재에서 3층과 5층에 대하여 거론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7층탑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7층탑 조성에 대하여 뚜렷한 문헌적 근거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 사견으로 시공(時空)을 두루 아우르는 불교의 포용적 사고와 연결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즉 동서남북의 사방을 의미하는 세계관적 상징 숫자인 4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인 3을 더하여 7이라는 결론으로 7층탑을 조성하여 부처님께 모든 중생이 언제, 어디에서나 예경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층의 불탑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꾸준히 조성되었다. 상주 상오리7층석탑(보물1285호), 춘천 7층석탑(보물77호), 양양 낙산사7층석탑(보물499호), 정읍 천곡사지7층석탑(보물309호), 공주 청량사지7층석탑(보물1285호), 익산 심곡사7층석탑, 창경궁8각7층석탑(보물1119호) **〈사진1〉**등 제한된 지면으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방대하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전시되어 있는 남계원7층석탑(국보100호)**〈사진2〉**은 그 기품 있는 모습과 달리 매우 기구한 사연이 담겨 있다. 본래 개성시 남계원지에 조성되어 있었던 이 탑은 개성시의 덕암동이 예전엔 개국사(開國寺)터로 알려져, 개국사탑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에 개국사터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탑이 있던 곳은 남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총 높이 7.4m의 이 탑은 2층의 기단부와 7층의 탑신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라 석탑 양식과 고려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 모두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탑은 본래 있었던 남계원지를 떠나야만 했는데, 1915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경복궁이 바로 첫 이주지였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명칭을 격하시키고 황실의 재산을 정리해 처분하는 등 조선의 권위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찬탈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 중 일본은 1915년, 강제 한일병합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박람회를 기획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철거되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넓어진 공간은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석조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로 채워졌다. 이 뿐만 아니라 창덕궁과 창경궁 역시 연회장이나 동물원, 식물원 등으로 조성하여 조선 왕실의 품위와 위엄을 떨어뜨림으로써 조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가 계속되었다.

개성 남계원지에 있던 7층 석탑 또한 이때 '조선물산공진회' 의 전시용품으로 쓰기 위해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기단부를 제외한 7층의 탑신부만 경복궁에 놓이고 말았다. 후에 기단부를 찾아 탑신부 옆에 함께 놓았지만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었던 탑은, 한참이 지난 1990년에야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었다. 한편 경복궁으로 이전하던 1915년에 탑신부에서 고려 제25대 충렬왕(忠烈王) 때 사경(寫經)한 것으로 보이는 7축의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탑의 조성 연대를 추측해볼 수 있었다.

1962년에 국보 제 100호로 지정된 이 탑은, 2005년에 다시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마침내 고달픈 이주를 끝내게 되었다. 비록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진 못했으나 남계원지의 7층 석탑은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서 당당히 국보 대접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 위기에 처한 불탑이 있다. 안동의 법흥사지 7층 전탑**〈사진3〉**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 탑은 놀랍게도 중앙선 철도에서 3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철도를 탑 가까이에 놓았기 때문인데, 탑은 그 후 지금까지도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훼손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탑의 한 편엔 철도와 펜스가 쳐 있고, 또 한 편엔 고성 이씨 종택의 담벼락이 자리하고 있어 탑이 있는 장소는 매우 비좁고 열악하다. 1962년에 국보 제16호로 지정되었지만 벽돌을 정성스레 쌓아올린 기품 있고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철도와 민가 사이에 놓인 탑의 위치와 그로 인한 붕괴의 위험은 참배객으로 하여금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 7층 전탑 역시 조성될 당시부터 이처럼 위태로운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신라 때 창건된 법흥사(法興寺)에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총 높이 17m로, 현존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이다. 일본이 보수를 빌미로 탑의 기단부에 시멘트를 발라 원형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기단부에는 감실이 있고, 유실되기 이전엔 이 감실 안에 비로자나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7층의 탑신부 지붕엔 기와를 이었던 흔적이 있어,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현재 상륜부는 유실되어 없지만 원래 금동제 상륜이 있었다는 기록이 안동의 역사서인 〈영가지(永嘉誌)〉에 남아 있어, 탑의 원형은 더욱 여법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한민족 불탑신앙 반영
불교의 포용적 사고 드러나
탑은 시공간 넘은 예경 수단

또 중앙선 철도 바로 옆엔 낙동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안동댐으로 향하는 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낙동강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통해 이 탑의 조성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안동은 예로부터 남쪽이 뚫려있는 지형이라 강이 홍수 등으로 범람하면 그 물줄기가 모두 안쪽으로 쏟아진다는 풍수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자 '비보풍수(裨補風水)' 의 하나로써 남쪽에 일직선으로 탑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법흥사지 7층 전탑일 것이라 추측해본다. 또한 탑을 조성함으로써, 그 공덕을 통해 강의 범람과 침수를 막고자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동의 법흥사지 7층 전탑이 현존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이었다면, 충주의 탑평리 7층 석탑**〈사진4〉**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탑으로 손꼽힌다. 높이 14.5m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 탑은 '중앙탑' 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명칭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충주는 삼국시대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왔는데, 8세기에 신라의 원성왕은 국토의 중앙이 되는 지점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라의 남과 북 각 끝 지점에서부터 같은 보폭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제히 출발시켰더니 매번 충주의 한 지역에 똑같이 도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지점이 국토의 중앙이라 여기며 탑을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탑평리 7층 석탑이라 한다.

현재 뿐 아니라 조성될 당시에도 신라 유일의 거대한 7층 석탑이었던 이 탑은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2층의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탑신부 5층까지는 여러 개의 돌로 구성되었지만 6층과 7층은 각 한 개의 돌로만 이루어져 있다. 1917년 일본에 의하여 해체 및 보수 되었는데, 이 때 탑신부 6층과 기단부에서 고려시대 거울을 비롯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탑신부에 있던 거울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에, 탑을 조성한 신라 8세기 이후에도 고려시기에 재차 사리장치를 봉안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큰 규모가 주는 웅장함과 함께 상부로 갈수록 탑의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가 그 높이만큼이나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현화사는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던 고려 현종이, 즉위한 이후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기 위해 1011년에 지은 절이다. 현화사는 창건 이후 고려 왕실의 원찰로서 각종 법회가 열렸던 주요 도량이었지만 오래 전에 없어지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지금의 개성시 장풍군 영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으며, 절의 창건 이유와 내력을 새겨 적은 현화사비에 의하면 1020년에 현화사7층석탑**〈사진5〉**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탑과 관련하여 현화사비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申歲十月內 … 遂於當寺創造石塔一座七層 (1020년 10월에 … 드디어 이 절에 칠층석탑을 지었다.)

높이 8.64m의 이 탑은 고려의 석탑 양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며, 고려를 대표하는 석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단부는 단층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신부의 각층 4면 모두에 감실형 안상을 새긴 다음 그 안에 불상과 보살상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각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탑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유려한 곡선들은 이 탑이 고려의 석탑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탑은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 제 41호로 지정되었는데, 후에 다시 국보 문화유물 제 139호로 변경되었다. 절터에 있던 현화사비와 함께 탑은 현재 개성시 고려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 탑과 있던 석등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9층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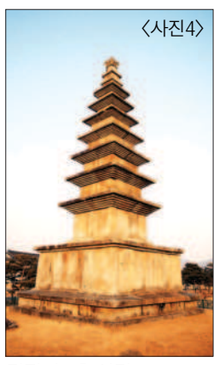
〈사진2〉 남계원 7층석탑



〈사진1〉 창경궁 7층석탑



〈사진3〉 법흥사지 7층전탑



〈사진4〉 탑평리 7층 석탑



〈사진5〉 현화사 7층석탑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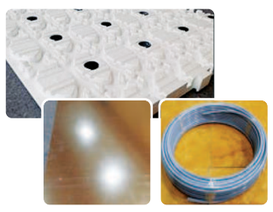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서산 : 010-7301-5854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북광주 : 010-3641-0605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듣고 생각하고 닦는 수행에서 부처님의 힘 나온다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6〉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

〈능엄경〉에서 열거하는 25가지 수행법 중의 하나인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은 부처님이 다른 수행법에 비해 가장 수승한 방법이라 설한 것이다. 이근원통을 달리 관음법문(觀音法門)이라 표현한다. 관음(觀音)이라 한 까닭은 관세음보살이 행한 수행법이라는 뜻과,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관세음보살과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이근원통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그림 · 최주현

이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爾時 觀世音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세존이시여, 저는 셀 수 없는 갠지스 강의 모래의 수와 같은 겁 전의 일을 생각해 보니, 관세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내었사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聞思修)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世尊憶念 我昔無數 恒河沙劫 於時有佛 出現於世 名觀世音

我於彼佛 發菩提心 彼佛教我 從聞思修 入三摩地

두 가지 뛰어난 능력

처음에 듣는 성품 가운데서 소리의 흐름을 거슬러 들어가니, 소리가 없어지고, 소리(所)와 들어간 지혜가 이미 고요해지니, 소리의 동과 정의 두 모양은 전혀 생기지 않았사옵니다. 이렇게 점차 증진하여 듣는 근과 듣는 대상이 다하고, 들음이 다한 자리에도 머물지 않으니, 깨닫는 지혜(能覺)와 깨달아지는 대상이 공하여, 능소(能所)가 공함이 지극히 원만해져서, 공함도 공하여짐도 멸하자, 생멸이 이미 멸하여, 적멸한 경지가 앞에 나타났사옵니다.

그러자 홀연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지면서 두 가지 뛰어난 능력을 얻었사옵니다.

첫째는 위로 모든 시방 부처님의 본래 깨어 있는 묘한 마음과 합하여 모든 부처님의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이며,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중생과 합하여 모든 중생과 비앙(悲仰)이 같음이옵니다.

初於聞中 入流亡所 所入旣寂 動靜二相 了然不生 如是漸增

聞所聞盡 盡聞不住 (能)覺所覺空 空覺極圓 (能)空所空滅

生滅旣滅 寂滅現前 忽然超越 世出世間 十方圓明 獲二殊勝

一者上合 十方諸佛 本妙覺心 與佛如來 同一慈力

二者下合

十方一切 六道衆生 與諸衆生 同一悲仰

32 순응력

세존이시여, 저는 관음 여래를 공양하며, 그 여래께서 가르쳐주신 환술(幻術)처럼 듣는 성품을 훈습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금강삼매(如幻聞熏聞修金剛三昧)를 받들어 닦아서 여래와 사랑의 힘이 같기 때문에, 제 몸은 32순응력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가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들이 삼마지에 들어가서 정진하여 무루법을 닦고 뛰어난 견해가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고요한 경지가 묘하게 밝아서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독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12인연을 끊고, 인연이 끊어진 훌륭한 성품에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연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사제(四諦)의 공한 이치를 얻고 도를 닦아 열반에 들려고 할 때, 뛰어난 성품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여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음욕에 얽힌 마음을 밝게 깨달아서 음욕의 경계를 범하지 않고 몸을 청정하게 지니고자 하면, 저는 그 앞에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천주가 되어 모든 하늘을 거느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자재한 몸으로 시방세계를 유행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자재한 몸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구제하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중생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하늘 궁전에 태어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국의 태자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인간의 왕위에 오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 받는 일을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소리를 거슬러 들으니 적멸경지 도달
부처님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 얻어

순응법으로 다양한 몸 나투어 중생구제
이근원통은 가장 수승한 '관음법문'

만일 중생들이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국토를 다스리면서 방읍(邦邑)의 옥송시비(獄訟是非)를 바로잡아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제관신(帝官身)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온갖 음양 등의 술수로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금계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오계를 받아 지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또 여자가 스스로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집안 살림살이로 출세해서 관저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후의 몸과 재상 부인과 고위 관직의 부인과 정사(政事)에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남근(男根)을 허물지 않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동남(童男)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처녀(處女)가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남아 있기를 좋아하여 사나운 침범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앞에 동녀(童女)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하늘들이 하늘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하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용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야차들이 본 무리에서 떠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야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건달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아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긴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긴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마호라가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마호라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좋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을 닦고자 한다면, 저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사람이 아닌 무리로서,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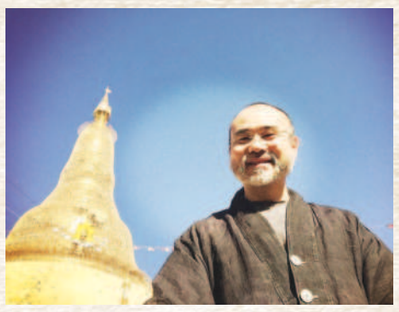
이를 '묘하고 청정한 서른두 가지의 순응력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고 하오며, 모두 듣는 성품을 훈습하여 수행하는 삼매에서 나온 무작묘력으로 자재하게 성취한 법이옵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친견해서
차 한잔만 마셔도
말기암. 빙의. 난치병 등
일체 고통들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타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1899-9532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부처·제자의 문답 속에 眞儀가 담겨있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4. 교리문답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도상. 부처님은 제자와 문답을 통해서도 가르침의 진의를 전했다.

붓다와 문답

붓다는 자주 문답으로써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대조(對照)를 이루고 있으며 소크라테스와 심히 비슷한 점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수는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인도(引導)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신념에 의해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람들 앞에 던지면서 갑작스럽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한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구저분한 문답은 당연히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을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붓다도 또 소크라테스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인도되며 가르침을 받았으며, 납득하였으며, 신념이 생겨났으며, 그리고 실천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붓다 설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답이 자주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다시 새롭게 지적하여 두고 싶은 것은 이 스승의 많은 문답 가운데는 소위 카테키즘(catechism=교리문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카테키즘이란 원래 기독교의 용어로서 문답식으로 정리된 교의(敎義)의 요약(要約)이며 안수례(按手禮)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것을 암기(暗記)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요리문답(要理問答)〉라고 말하며 공적교의(公的敎義)의 교본으로 삼고 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카테키즘은 없다고 생각되어 왔다. 또 불교에도 카테키즘이 있었으면 하면서 그것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 붓다의 문답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붓다는 생각하는 방법의 기본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답식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붓다의 가르침은 예수의 그것과는 종교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아마 인생의 지엽말절(枝葉末節)에까지 이르는 것을 한 가지 생각의 방법 테두리 안에 집어 넣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 적합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히려 인생의 이해와 실천의 근본을 확립하여 융통자재(融通自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본령(本領)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말절지엽(末節枝葉)에 이르는 사소한 규정은 이 길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본령(本領)을 손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해와 실천의 근본을 명백하게 규정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붓다도 또한 자주 같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여러번 제자들 비구에게 물으며 대답하게 하며, 거기에 저절로 카테키즘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문답식(問答式)의 예

이러한 문답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와 연결되는 개념의 설명이다. 한역(漢譯)의 〈잡아함경(雜阿含經)〉및 남전(南傳)의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에 있어서는 수십번씩이나 이 문답이 붓다와 그 제자들 사이에 반복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상응부경전의 〈온상응(蘊相應)〉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경은, 이 문답식을 언제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色)(물질)은 상(常)(변화 없는 것)일까 무상(無常)(변화 있는 것)일까?"

"대덕(大德)이여, 그것은 무상입니다."

"대개 색이 무상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고(苦)일까, 낙(樂)일까?"

"대덕이여, 그것은 고(苦)입니다."

"대개 색(물질과 모습)이 무상하며 고(苦)한 것과, 변하며 옮겨지는 것을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나다. 그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

"대덕이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답식은 수(受)(느낌)에 관해서, 상(想)(표상)에 관해서 행(行)(의지)에 관해서 그리고 또 식(識)(의식)에 관해서 반복되고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같은 상응부경전의 〈육처상응(六處相應)〉이란 이름의 경 가운데는 같은 문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眼)은 상주(常主)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일까?"

"대덕이여, 그것은 무상입니다."

"대개 사물의 무상함은 그것이 고(苦)일까? 그렇지 않으면 낙(樂)일까?"

"대덕이여, 그것은 고(苦)입니다."

"대개 사물이 무상하며 고(苦)하며 변화하는 것을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나다. 그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릇된 일인가?"

"대덕이여,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또 귀, 코, 혀, 몸, 뜻에 관해서도 같은 문답식이 반복되고 있다.

그 해석(解釋)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석존 가르침의 가장 깊은 바탕을 보여주는 것은 연기(緣起)의 세계관이다. 모든 존재는 관계성(關係性) 속에 있으며 상의성(相依性)의 것으로서 존재하며 '연(緣)하여 생기며 연(緣)하여 멸한다' 는 것으로써 존재한다. 한 사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며, 한 사건이 여기에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생기며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토대에 서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없으며 다만 생성(生成)과 소멸(消滅)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표현하는 불교의 술어는 간단명료하게 무상(無常)—모든 것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기의 세계관을 단순한 지식으로써 수지(受持)하며 단순한 체계로써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써 이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상의 원리는 소위 몸에 밀착(密着)한 것이 되며 세포(細胞)에 까지 스며들어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이러한 이해가 능히 우리들의 인생관의 바탕으로서 작동하며 감정에 반영되며 의지(意志)를 발동(發動)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를 끊임없이 인사(人事)의 구체적 사례(事例)에 맞추어서 음미(吟味)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生)에 맞추어서 음미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들의 신체 혹은 소유(所有)를 구성하는 물질적 원리(색)에 관해서 그런 것들은 늘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無常)한 것인가를 물어본다. 물론 거기에는 무상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도대체 자기에게 있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물어본다. 무상한 도리를 자기에게 밀착시켜 보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좋은 것이 아니다. 유쾌한 것이 아니다. 즉 고(苦)의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곧 변환하여 사람의 소망을 배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소망을 배반하며 소망에 반대되는 것은 고(苦)일 수 밖에 없다.

붓다는 이렇게 사유(思惟)하면서 집착이 없는 자유로우며 평화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제자인 비구들에게 물으면서 형식에 따라 대답하게 하였다. 그 제재(題材)는, 어떤 때에는 앞에서 본 첫 번째의 예처럼, 오온(五蘊) 즉 인생을 구성하는 물질적 원리(색)와 정신적 원리(수, 상, 행, 식)의 총체(總體)였다. 또 어떤 때에는 앞에서 본 두 번째의 예처럼 육처(六處) 즉 우리들의 감관(感官)과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한(限), 붓다의 제자들은 모두 스승의 물음에 대해서 능히 형식에 따라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시방에 두루한다는 의미는?

문 불교에서 시식(施食)하여 밥 일곱 알로 시방(十方)에 두루한다는 말은 사리(事理)가 황당(荒唐)하여 더욱 유자가 구태여 믿지를 않는다. 또 신주가 지법(神呪加持法)의 일이란 것이 또한 반드시 삼편(三遍)·칠편(七遍)·사십구 편(四十九遍)으로 한계를 삼는데, 이는 또 무엇 때문인가

답 간략히 세 번을 하는 것은 삼재(三才)의 수(數)이다. 삼재가 갖추어야 만물이 발생하는데, 이는 '작은 변화' 이다. 중간으로 일곱 번 하는 것은 칠요(七曜)의 수이다. 칠요가 갖추어야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중간의 변화' 이다. 갖추어서 마흔 아홉 번을 하는 것은 천지의 수이다. 천지가 제 위치를 해야만 조화가 다함이 없는데, 이는 '큰 변화' 이다.

또 천지의 수가 오십 오(五十 五)인데 그 다섯을 제거하는 것은 그 어버이를 존숭함이고, 그 하나를 비우는 것은 그 임금을 존숭함이다. 사십구 수(四十九數)가 변화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건곤의 위대한 작용으로 부처님의 묘용(妙用)이니, 위에서 이른바 「체(體)는 곧 태극(太極)이고, 용(用)은 건곤이다」한 것이 이것이다.

하늘은 그것을 얻어 삼라(森羅)의 변화가 다함이 없고, 땅은 그것을 얻어 만물의 변화가 다함이 없으며 성인은 그것을 얻어 역도(易道)의 변화가 다함이 없다.

모든 부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신통의 변화가 다함이 없으며, 주술(呪術)을 지닌 자는 그것을 얻어 가지(加持)의 변화가 다함이 없으니, 주재하는 자는 비록 다르나 위대한 작용에 있어서는 곧 하나이다.

그러므로 적게는 일곱 알의 미미함에 이르고, 크게는 마흔 아홉 섬에 이르러 조물(造物)을 잡고 변화하며, 심량(心量)을 응하여 다함이 없이 시방의 모든 세계 군생(群生)의 앞에 두루한다.

그리하여 주린 자는 배부름을 얻고, 배고픈 자는 음식을 얻으며,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얻고, 헐벗은 자는 옷을 얻으며, 수고로운 자는 쉼을 얻고, 괴로운 자는 휴식을 얻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큰 보시가 허공을 다하고 법계를 두루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음이다.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이미 저와 같다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또한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공덕의 발생함을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선근(善根)을 받든다면 무슨 죄인들 소멸하지 않으며, 어떤 본인들 이르지 않으며, 무엇을 구한들 이루지 못하며, 어떤 것을 원한들 성립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로써 왕생(往生)을 천도하면 가를 자가 청정하게 오르고, 이로써 삶을 보존한다면 살아 있는 자는 강영(康寧)하고, 이로써 복을 구한다면 복해(福海)가 더욱 깊어지며, 이로써 수명을 구한다면 수산(壽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또한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자연의 이치이니 괴이할 게 없는 것이다.

하늘에 칠정(七政)이 있는 것은 하늘이 이 수(數)를 쓰기 때문이고, 땅에 칠귀(七鬼)가 있는 것은 땅이 이 수를 쓰기 때문이며, 부처님에 침불(七佛)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 이 수를 쓰기 때문이며, 주문(呪文)에 칠 편(七遍)을 쓰는 것은 또한 이 수에 합한 것이다.

이는 곧 천하의 대통수(大通數)며 변화의 기미니, 무엇이 다름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피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주린 자는 배부름을, 괴로운 자는 휴식을 얻는다

문 지금 부처를 배우는 자는 반드시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삼는데, 정·혜의 의논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답 다르지 않다. 과(果)에 있어서는 정혜(定慧)라 말하고, 인(因)에 있어서는 지관(止觀)이라 말하는데, 지관이란 곧 화두를 참구하는 법이다.

화두 참구하는 것은 하나로 제접(提接)함으로써 초보(初步)를 삼고, 전제로 제접함으로써 자량(資糧)을 삼는다. 자량은 걸음을 걷는 밑천이 되고, 걸음을 걷는 것은 자량의 효과니, 두 가지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그 이를 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로 제접한다는 것은 하나로써 만 가지를 제압함을 말함이니, 지(止)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전체로 제접한다는 것은 의심을 일으켜 참구함을 말함이니, 관(觀)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나누면 내면의 아름다움 커져”…

원경 스님 (심곡암 주지, 前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 1983년 순천 송광사에서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경 스님은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학 8회를 졸업했으며 1991년 미국LA 송광사 분원 고려사 주지를 역임했다. 서울 북한산 형제봉 아래 심곡암 주지로 산사음악회 등 문화포교에 앞장서 왔다. 조계종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스님은 한국문인협회 시인 회원으로 시집 〈그대, 꽃처럼〉을 펴냈으며 선(禪)문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산사 음악회의 최초 개창자로서 30여 회의 산사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한 끼 공양을 위해 이 곳 탑골공원에서 길게 줄서 있는 무의탁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4월 1일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는 따뜻한 밥냄새가 퍼져 나왔다. 문닫을 위기에 처했던 무료급식소가 다시 문을 연 것이다.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는 22년 동안 운영해온 보리스님이 연세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지며 폐쇄위기에 처해있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원각사가 있던 탑골공원은 도심 한복판 중생구제의 자비보시행과 포교가 진행되어 온 곳이었지만 그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불교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선뜻나서지 않던 순간, 서울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나섰다.

“한 심곡암 보살님이 5년간 무료급식을 해오셨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스님이 그동안 문화포교에 매진해 왔으니 복지포교도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사회복지재단 이사를 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은 저에게 원력을 세우게 했지요. 100여 미터 길게 줄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딱해 보이던지…. 그 이후 밥주는 일을 중단하면 안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월 13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한켠에 자리한 무료급식소 사무실에서 스님은 밝게 웃으며 길손들을 맞이했다. 북한산 자락의 심곡암에 주석하는 스님은 무료급식의 임무를 건네 받은 이후 아예 이곳에 자리를 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님이 진행하는 무료급식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로 도움이 없다면 꼬박 하루를 굶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달에 50만원이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형편이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

스님은 어두운 얼굴로 “오히려 국가로부터 최저생활비라도 받는 분들은 형편이 나은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구제가 안되는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 오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스님은 “소외받은 어르신들은 물질적인 빈곤과 늙음으로 인한 한계와 함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있다”며 “불제자로서 급식은 단순한 밥이 아닌 이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하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원력 하에 기존 탑골공원무료급식소 ‘원각사’는 ‘원각복지회’로 이름을 바꿔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종교를 넘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겠다는 의지다. 스님은 이런 활동기반에 심곡암 신도들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22년간 활동해 온 보리 스님이 건강악화로 그만두시게 되면서, 사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그만뒀습니다. 급식복사는 팀제로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진행돼 30개 팀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동안 봉사를 하며 고령으로 활동이 힘든 분들이 차제에 함께 그만두신 것이지요. 이 빈틈을 신도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심곡암 신도들은 심곡암에서 탱화를 이운해와 급식소를 장엄하고, 낡고 낙후된 시설을 자발적으로 나서 고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0여년이 넘도록 묵묵히 자원봉사를 해온 원각사 봉사자들과 심곡암 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비보시를 실천하고 있다.

원경 스님은 “하루 한 끼의 무료급식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현실이므로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탑골공원은 거대한 노인타운과 같다”며 “이 곳 어르신들은 여러 부정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며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단편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무료급식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분이다. 무료급식소 운영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동안에는 보리 스님이 탁발과 기도 등을 통해 운영해 왔지만 원경 스님은 2013년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의 경험을 살려 CMS후원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꾸준히

문화와 복지가 융합된 통섭의 포교

1998년 북한산 심곡암서 문화포교 첫 발

자연과 예술 하나된 산사음악회 기획 호응

지역민과 문화예술인 소통하는 중추 역할

운영중단된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재개

복지재단 이사 경험살려 CMS 후원 전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온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복지분야에 눈을떴다. 스님은 불교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성 교육을 도입했다. 직할교구를 비롯한 전국사찰의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스님은 2013년 홍천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맡아 지역복지활동에도 나섰다. 스님은 소외청소년과 직접적응캠프 등으로 소외청소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난치병 환아 지원에도 나섰다.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야 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소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대아적 무아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시’며 ‘나눔’입니다. ‘나눔’으로 인해 자기 안의 아름다움이 커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지요.”

스님은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따르며 인자하게 웃었다.

수행의 길, 불교와의 인연

이처럼 대아적, 무아적인 삶을 말하는 스님은 어려서부터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 스님 스스로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타고났다’이다. 가수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감수성이 풍부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이 무심코 지나칠 일들에도 스님은 항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철이 들 무렵부터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스님은 ‘세상에 대해 투쟁의 연속이구나, 이런 투쟁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했다. 결국 스님은 부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19세의 나이에 송광사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사춘기 때 우연히 찾은 장흥 부용암에서 금강경과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며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은사 스님을 만나 출가의 길을 걷게 됐지요. ‘감옥에 갇힌자는 나올 날이 있지만, 가족에 갇힌 자는 나올날이 없구나’는 말이 있습니다. 출가자는 자유롭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모든 이를 평등하게 하기 위함이죠. 출가생활 중에 고민과 갈등도 많지만 평등함을 지니는데는 출가자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에도 스님의 풍부한 감수성은 출가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문학, 음악 등에 관심이 많았기에 출가생활 틈틈이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사찰에서 심해가 일어날 때면 시를 쓰고, 또 가슴이 너무나 답답할 때면 노래도 한곡 부르며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법을 닦았다. 이후 스님의 문화적 조예는 예술인들과의 인연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됐다.

“국악인 김성녀 씨, 양하영 씨 등과의 친분을 쌓고 음악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회심곡 등을 공부해 마쳤어요. 어려서 지역 노래잔치 등에서 신동 소리를 주변에서 가수가 되리라 생각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속적인 인연보다 출세간적인 인연이 컸습니다. 하지만 출가와 더불어 예술적인 면이 나오더군요.”

1991년 미국 LA 송광사 분원 고려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1998년 주지로 있던 서울 북한산 심곡암에서 그 재주를 꽃피운다. 산사음악회가 생소하던 시절 불심, 자연, 예술이 하나가 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산사음악회는 문화와 종교,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님은 산사음악회를 주도하고 개창하다시피 했다. 이후 심곡암 산사음악회는 시대의 흐름에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장르가 됐다. 심곡암 산사음악회는 대형스타급 출연진 만이 음악회를 빛내는 것이 아니다. 심곡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분위기,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린다.

“이미 현대사회는 복지와 문화가 융합된 통섭의 시대입니다. 불교 안의 시와 음악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찰의 고유 정서를 크게 헤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스님은 “소통과 열림의 시대”라며 “사찰은 너무 닫힌 공간에서 세상으로 부터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었다.

마하연투어 since 1994

문의처 : 02)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거품없는 상품 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달라 5일
실속상품 99만원, 품격상품 11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실속상품 149만원, 품격상품 179만원

북경/백두산 5일 김해공항, 인천공항 출발 129만원

행복한 나라 부탄 & 네팔 8일

히말라야에 감춰진 꿈의 낙원
베율을 찾아 떠나는 티벳 8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129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109만원
관음도량 상해/보타.낙가산 5일 109만원
보현도량 성도/낙산대불/아미산 5일 109만원
문수도량 북경/운강석굴/오대산 5일 129만원

※ 마하연 투어는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복지와 문화로 대중과 교감



원경 스님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밥을 퍼주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시절 저소득 아동 돕기 모습



원경 스님을 비롯한 심곡암 신도들이 무료급식 재개를 알리고 있다.


심곡암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모습


'보리수 나무 아래' 공연에서 무대에 선 원경 스님

"처음에 음악회를 열 때는 사찰 수행분위기를 헤친다며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보다 많은 대중이 사찰로 와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됐지요."

심곡암에는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분위기에서 교감하는 장이 마련되고 지역 사회에 문화예술인들을 엮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일까. 심곡암 신도 중에는 특히 문화예술인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이가 영화 '명량' 과 '활' 로 유명한 김한민 감독이다. 김 감독은 심곡암에서 기거하다 시피하며 영화 구상을 진행했다. 2009년 영화 '핸드폰' 으로 흥행실패를 맛본 김 감독에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예술을 하는 이들은 도인과 같다"며 김 감독의 불교적 내공이 깊다고 평가했다.

"법화경 화성유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러 가는 중 지쳐 포기할 때쯤 뛰어난 지도자가 신통력을 발휘해 안식처를 마련해주니 모두가 원기가 회복돼 다시 정진의 길로 갑니다. 영화를 비롯한 우리들의 문화가 그런 존재에요. 아름다운 세계를 잠시라도 보여주면 많은 대중들이 힘을 얻고 다시 정진할 것입니다."

다방면에 조예 깊어, 문화포교 앞장

다도와 전통 무술에 조예가 깊은 원경 스님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수행도 중 느낀 점을 향기로운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대, 꽃처럼〉이라는 시집과 산문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란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 등을 펴냈다. 찬불가 '오시리 가시리' 의 작사도 담당하는 등 찬불가 제작에도 일조했다.

"스님이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시라고 했습니다. 큰 스님들은 선과 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 하나에는 인간 본연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스님은 2010년부터는 소림무공도 닦고 있다. 소림무공 72절기를 한국에 전래한 화엄선사의 3대제자인 포자관장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았다. 스님은 맨손 장력공과 나한장봉을 익혀 월정사 무도대회 등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무술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장단이 있고, 완급이 있고, 고저가 있고, 강약이 있는 예술이 있어요."

스님이 무술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이들이 있을 만도 하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무공 시범을 3차례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주저할 만도 한데 천진하게 해요. 다른 이에 상대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의 극복이기 때문이죠. 문무겸비, 정혜쌍수 의미로 수행의 방편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포교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님은 "탑골공원에서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소림무술을 배우는 자리도 추진하겠다"며 밝게 웃었다.

스님은 끝으로 다른 스님들이 복지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스님들이 주축이 돼 사회참여에 나설 때 불교가 산다며 그 무엇보다 스님들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가 하기 전부터 관음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관음보살의 성품은 실천이 섞여 있어요. 불교가 장롱 속의 불교, 금고 안의 불교가 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가치와 보배가 세상을 향해 쓰여져야 합니다. 스님들 중에는 복지학과 출신이 많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부입니다. 이런 능력이 갖혀서는 안됩니다. 1사찰 1복지의 원력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스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정월 윷놀이로 하나되는 사부대중

한 해가 밝아오면 전국 사찰에서는 정초산림기도(7일)입재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화엄성중님을 염호하며 가족건강, 만사형통, 무병장수, 수복강녕 성취발원기도를 한다.

올해 원각사도 많은 신도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정초산림기도 회향을 했다. 7일 동안 매일 정초기도에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더니 몸도 피곤하고 체력도 바닥이 난 상태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주지로 부임하고 나서 매년 '정월대보름 원각사배 윷놀이 대회 행사' 를 열고 있어서다. 이전에 대구 적멸보궁 용연사 총무 재직 중에 신도들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윷놀이 대회의 장을 개최 했는데 내 생각대로 '대박' 이었다. 그때 경험을 살려 지역 사찰과 주민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전법 포교를 위해 원각사에서도 윷놀이 대회를 연 것이다.

보름 전부터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공지를 했더니 신도들은 벌써부터 들떠서 좋은 기색이 완연했다. 다들 올해는 꼭 우승을 위해서 집에서 윷 연습도 했다고 한다.

작년에는 5인 1조로 6팀이 참가했으나 올해에는 12팀으로 늘었다. 지역에서도 우승 한 번 해 보겠다고 원각사에 원정까지 오신 지역 파출소 팀, 동사무소 팀, 자율방법대 팀이 동참을 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선물도 여러 곳에서 지원 받아 푸짐하게 마련했다.

드디어 제2회 정월대보름 원각사배 윷놀이 대회가 시작 되었다. 역시 노보살님들의 저력은 대단 했다. 우기는 데는 당연 최고였다. 평상시 법당에서 기도 할 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데 이날은 푸짐한 상품이 있어서 그런지 부처님 놀라실 정도로 목소리가 우렁찼다.

이곳 저곳에서 한숨소리와 동시에 들려오는 함박 웃음소리. 법당 앞마당에 신도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 윷을 던지며 아쉬워하는 표정,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기쁨은 두 배였다.

내 역할은 행사 진행과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보는 것이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원각사배 윷놀이 대회 행사를 한다고 하니 BTN불교TV에서 촬영도 왔다. 인터뷰 요청이 있어 인터뷰까지 했다. 원각사를 알릴 수 있다니 좋은 일이기도 했다.

예선과 8강, 4강전이 끝나자 이변이 일어났다. 우승 후보였던 공양간 팀과 지역 파출소 팀이 4강에서 탈락했다. 목소리가 우렁찼던 노보살님 팀도 고배를 마셨다. 노보살님은 나에게 "스님이 안 도와줬어요"라고 투정을 부리신다.

결승은 원각사 니르바나합창단 과 원각사 종무소 팀이 맞붙었다. 다들 우승의 욕심이 있는지 윷을 던질 때마다 신중하다. 나 역시 긴장해 가면서 공평하게 심판을 볼 수밖에 없었다. 모나 윷이 나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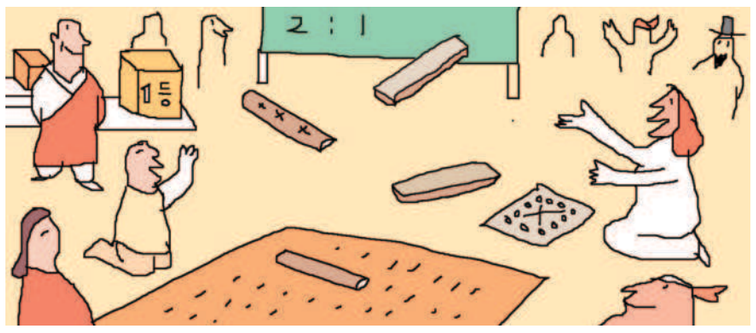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구경하던 사람들 내일처럼 함성을 지른다. 결과는 원각사 니르바나 합창단 팀원이 우승을 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합창단은 기쁜 나머지 절 마당에서 한바탕 춤을 춘다. '뭐, 오늘은 부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미소를 지어본다. 우승팀 확정 이후에는 대회에 동참해 자리를 빛내준 도반, 후배, 기도 스님과 함께 번외 경기를 진행했다.

두 손에 푸짐한 상품을 들고 원각사 일주문을 나서는 신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속부터 밀려오는 뜨거운 정을 느꼈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신도와 지역민이 사위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장 반배를 했다. 그러고 다시 다짐했다.

"처음 주지로 왔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웃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지 잘 살피고 원각사 사부대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과 소통 그리고 사중 화합의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행복의 파랑새가 내 옆에 있었듯이.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세로거치형 현수막
▶종이등표
▶종이주름등
▶봉축 리본
▶지하철현수막
▶봉축현수막
▶어깨띠
▶법보시 염주
▶비닐만월등(연꽃/일반)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공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마음챙김 다이어트로 비만·요요 한번에 해결

英 일간지 데일리메일, 살 빼는 명상비결 공개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질수록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에 영국 조간신문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4월 12일자 보도를 통해 '먹으면서 살 빼는 마음챙김명상 다이어트(Mindfulness diet)' 를 소개했다.

마음챙김 다이어트는 자신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 과정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잘못된 식습관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데일리메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는 초콜릿, 머핀 등 달콤한 음식을 무의식 상태에서 자꾸 찾게 되는데 이러한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며 "자각하며 먹을 것"을 강조했다.

마음챙김 다이어트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은 음식을 먹기 전 먼저 '내가 정말 배가 고픈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가 고프다는 최면을 걸어 먹기도 하고, 이미 배가 부른데도 부족하다며 음식에 집착하곤 한다. 이른바 '감정적 허기' 를 음식으로 달래는 것이다.

데일리신문은 이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음식을 먹기 전 다음의 수행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신체의 움직임을 살피고, 자신의 신경과 긴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있는지 관찰한다. 그 다음 신경을 위로 집중시키며 호흡에 따라 배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라본다.


영국 조간신문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4월 12일자 보도를 통해 '먹으면서 살 빼는 마음챙김명상 다이어트(Mindfulness diet)' 를 소개했다. 이 언론은 "음식과 음식을 먹는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고, 비만과 요요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배가 부른데도 음식에 집착하는
'감정적 허기' 때문에 살쪄
'정말 배고픈가' 질문하며 먹어야
'약간 배고픈 상태' 가 건강에 좋아

이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위가 비워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가득 차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상태이든 그저 그 느낌을 호흡과 함께 계속해서 관찰한 후 자신이 위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생각이 되면 눈을 뜬다.

보도에 따르면 수행을 통해 인지한 위 상태는 7단계로 나눠질 수 있다. 두통이나 속쓰림을 느낄 정도로 굶주린 상태인 1단계부터 위에 무리가 올 정도로 과식한 7단계까지이다. 이 중 일반적으로 '약간 배고픈 상태' 인 2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정말 배고픈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때 음식을 먹는다. 꼭 열량이 낮은 음식만 먹을 필요도 없으며 케이크, 치킨, 피자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을 먹는 중에도 마음챙김명상이 필요하다.

우선 음식을 앞에 두고 눈을 감는다. 눈을 감은 채로 식욕 등의 감정으로부터 모든 신체적 감각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법은 불교 전통적 수행법인 다도 명상이나 요즘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명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을 먹되 배고픔에 휩싸여 그저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닌, 음식과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눈을 뜨고 음식의 냄새를 맡는다. 달콤한 냄새, 매운 냄새 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그 향을 만끽한다. 그리고 음식의 한 조각을 떼어내 입술에 가져다 대고 촉감을 느낀 후 천천히 혀에 올리고 음식의 맛을 느낀다.

데일리메일은 "중요한 것은 맛으로부터 나의 감각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음식이 혀에서 녹아 목을 타고 위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은 단순히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충분히 먹었는지 인지하게 하며 폭식과 과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는 심리학자와 영양사가 함께 연구한 바를 토대로 "마음챙김명상을 식습관에 접목시킬 경우 이 수행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비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요요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아름 수습기자

미국 뉴저지에 불교 바람 분다…"티베트 사원 들어설 예정"

까르마빠 재단(KTD), 150에이커 부동산 매입

미국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Burlington County)에 법향이 피어오르고 있다.

〈Courier-Post〉 지는 "벌링턴 카운티의 한적한 시골인 샤몽(Shamong) 지역에 티베트불교계 사원이 들어선다"며 "이에 앞서 오겐 틴래 도제(Ogyen Trinley Dorje) 스님이 샤몽 지역에서 '불교 명상' 을 주제로 5일간 대중 강연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샤몽 지역에 들어설 사원은 까르마빠(Karmapa) 계열로, 미국 까르마빠 재단(KTD)이 150에이커에 달하는 부동산을 구입, 벌링턴 카운티의 불교 부흥에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샤몽 지역에서 5일간의 강연을 진행한 오겐 틴래 도제 스님은 티베트의 차세대 종교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17대 까르마빠이다.

오겐 틴래 도제 스님은 '불교 명상' 을 주제로 마련한 강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험과 깨달음의 전승이란 명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제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겐 틴래 도제 스님의 두 번째 강연에 참석한 로리 볼프(Lori Volpe · 45) 씨는 "오겐 틴래 도재 스님을 친견할 수 있어서 기뻤다"며 "스님의 가르침처럼 명상을 통해 불법의 진면목을 보고, 또 깊은 연민도 배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까르마빠 재단(KTD) 초청으로 미국을 찾은 오겐 틴래 도제 스님은 5월까지 머물며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레드랜드 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예일대학교 등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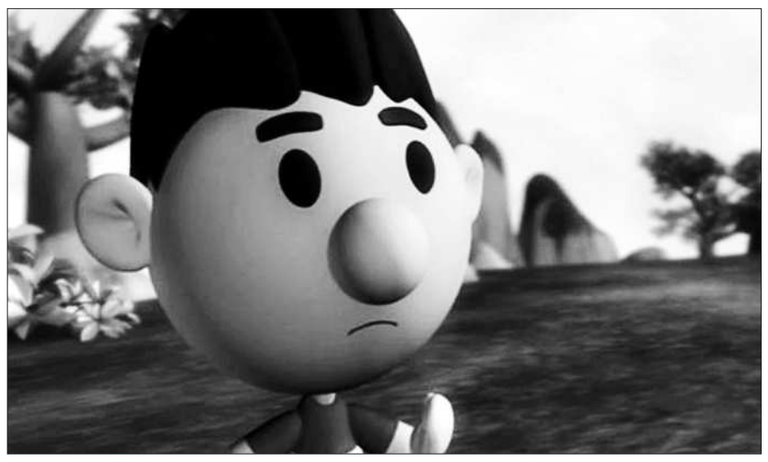

17대 까르마빠 오겐 틴래 도제(Ogyen Trinley Dorje) 스님이 벌링턴 카운티 불자들에게 '불교 명상' 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하고 있다.

특히 예일대학교에선 공공서비스 및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준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처브 펠로십(Chubb Fellowship) 상을, 레드랜드 대학교에선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말레이시아 佛학교, 어린이 콘텐츠 개발

3D 애니메이션 어린이 불경 시리즈… '주지 스님과 고아' 만들어


회교국 말레이시아 대표 사찰 마하 비하라(Maha Vihara) 부설 불교학교가 첨단 기술을 도입한 '어린이 경전 시리즈' 의 첫 번째 성과물인 '주지 스님과 고아(The Abbot and the Orphan)' 을 내놓았다. 사진은 스님과 고아의 한 장면.

회교국인 말레이시아의 대표 사찰 마하 비하라(Maha Vihara) 부설 불교학교에서 첨단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The Star〉 지는 "미하 비하라 부설 불교학교가 디지털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곳에서 어린이 불경 시리즈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하 비하라의 불교학교는 지난 1929년에 개설됐다. 당시 교육은 보리수나무 그늘에 모여 강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읽고 쓰기를 반복하며 경전을 배우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런 모습은 80여 년간 지속됐다.

그런데 〈The Star〉 지에 따르면, 이제 그 모습은 '옛 것' 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The Star〉 지는 "마하 비하라 불교학교의 500여 명의 어린이들은 매주 일요일 보리수나무 그늘이 아닌 3층 건물에서 불교를 배우고 있다"고 전하고, "교재 역시 전통적인 종이책이 아닌 IT 기술이 접목된 3D 애니메이션 멀티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하 비하라 불교학교장 시리 담마(K. Siri Dhamma) 스님은 "120명의 자원봉사 강사 스님들이 멀티 교재를 이용,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아이들이 멀티 교재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어, 교육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멀티 교재는 '주지 스님과 고아(The Abbot and the Orphan)' 로, 마하 비하라 불교학교가 3D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하고 있는 '어린이 경전 시리즈' 중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마하 비하라 불교학교는 이번 시리즈를 위해 지난 2년간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부처님 가르침에 스토리를 더한 '어린이 경전 시리즈' 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노력했다. 첫 선을 보인 '주지 스님과 고아' 는 비자야 사마라위카르마(Vijaya Samarawickrama)라는 스님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으로 전개된다.

"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귀의하기 위해서는 불교 소양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시리 담마 스님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디지털 경전 시리즈를 만드는 게 우리의 서원."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선근을 심을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교국 말레이시아 대표사찰
500여 어린이들에 불교 가르쳐
120명 자원봉사자 멀티교재로 교육
"3D 애니메이션 아이들에게 인기"

이와 함께 마하 비하라 불교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 주목, 제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하 비하라 불교학교에 보다 많은 교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시리 담마 스님은 "오는 연말까지 말레이시아 불교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불교학교 기금 조성에도 관심을 가질것"이라며 "이 기금은 불교학교를 넓히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 Star〉 지에 따르면 마하 비하라는 원만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3일 열리게 될 베삭 데이(Wesak Day)에 5천여 명의 재가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선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원료로하여제작한천연향초
쑥양초세트 · 밀납양초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품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世界佛教 法王廳

國際佛教指導者協會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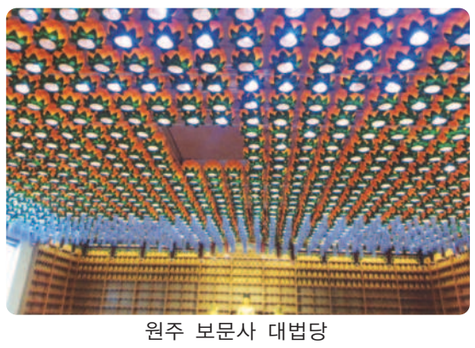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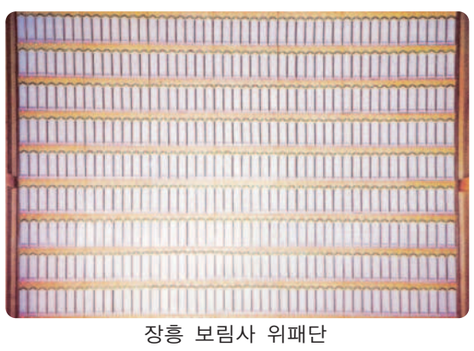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맑은 연꽃은 욕심 없이 살라 말하네

'오채묵향(五彩墨香) 송영방'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서



진흙탕에 맑은 연꽃이 피면 사바세계는 어느새 부처님 세상이 된다. 연잎에 빗방울 떨어져 고이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내고 또 쏟아내는 과정은 소욕지족(所欲知足)을 말해준다. 연꽃의 아름다움을 붓으로 그려낸 우현 송영방 작가(동국대 명예교수 · 사진)는 연잎의 앞뒤 농도를 다르게 표현 바람결에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연꽃을 완성해낸다. 오랜 시간 스케치하고 연구해 완성해낸 결과물이다.

송영방 작가는 연, 대나무, 한국의 산천 등 한국의 자연을 동양화로 완성해냈다.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오채묵향(五彩墨香) 송영방' 전이 6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꾸밈없는 표현의 소박한 자연주의적 풍격(風格)으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룩한 한국화가다. 그는 동양예술정신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인 문인화가의 심상으로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70년대 실험성 짙은 추상화 계열의 작품을 비롯해 실경산수(實景山水),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시킨 반추상의 산수화, 그리고 문인의 정취가 배어나는 사군자와 화조, 인물, 동물화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다양한 드로잉 자료를 함께 소개해 작품세계의 원천과 작가의 투철한 예술적 의지를 조명한다.

특히, 작가는 '백련' '연' 등의 작품을 통해 불교의 상징 연꽃의 아름다움을 화폭 속에 옮겼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꽃 중에 왕이기도 해요. 사바세계는 진흙탕이죠. 이런 진흙탕 속에서 맑은 대공이 쑥 나와서 꽃망울도 나오고 7월이면 맑고 깨끗한 꽃이 만개해 절정을 이루죠. 그 아름다움 덕분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는지 몰라요. 연꽃은 식품으로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씨앗부터 잎까지 두루두루 쓰이니 고마운 존재죠."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불교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지금도 명상과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음을 고요히 맑혀 평소 생활에 임한다고 말한다.

연 · 정토 등에 불교사상 투영해 눈길
반야심경 독송과 명상으로 일상 맑혀
소박한 자연주의로 한국의 美 일깨워



귀몽(歸夢, 1981, 한지에 수묵담채)



송영방 작가는 연잎의 앞뒤 농도를 다르게 표현 바람결에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연꽃을 완성해냈다. 작품은 '연'(蓮, 2015 한지에 수묵)

산속에서 사슴이 뛰어노는 평화로움을 담아낸 '정토(淨土)' 또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라는 불교사상을 담고 있다. "정토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극락세계임을 말해주죠. 분수를 알고 다투지 않고 살면 그것이 극락세계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 각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발원을 정토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이밖에도 산수의 구체적 묘사를 생략하고 이념을 형상화한 산수화 양식으로는 1980년대 집중적으로 제작한 '산과 물과 구름' '춤추는 산과 물' 시리즈가 있다. 실경산수를 바탕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강산의 모습을 율동감 있게 묘사해 작가 특유의 양식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다. 이러한 독특한 산수의 조형은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냈다.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고난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는 그는 서울대 미대 회화과 재학 시절부터 문학잡지나 신문 연재소설 등에 삽화를 그리면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한다. "70년대에 〈샘터〉잡지에 꽃그림을 그렸는데 법정 스님께서 '나는 법정이라는 중이오. 잡지에 난 삽화를 받을 수 있소?' 라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출판사로 넘긴 이미지는 사라져 스님을 위해 다시 그림을 그려 드렸죠. 스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인연으로 스님의 저서 〈텅빈 충만〉 삽화도 그리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그림을 관람하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작가의 어투에서는 소박함과 겸손함이 느껴졌다. 문인화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송영방 작가의 지속적인 행보와 화업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문인화적 발상과 담담하고 소박한 예술세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자연주의적인 한국의 미감을 일깨워 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찰음식으로 춘곤증 이겨내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식 봄나물 조리법 제안

〈금광명최승왕경〉을 보면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봄에는 떫고 뜨겁고 매운 음식이 좋다고 한다. 사찰에서 사랑받는 봄의 대표 식재료는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봄나물. 봄나물은 보통 때의 채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쓴 맛과 함께 매운 맛이 있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산사(山寺)에서는 겨우내 잃었던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봄나물로 다채로운 건강식을 만들어 먹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최근 몸에 활력을 주는 봄나물을 활용한 보다 '뜨겁고 떫고 매운' 사찰음식 메뉴를 소개했다.

먼저 부인병에 효과가 높고 향기 성분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장기를 정상화하는 쑥으로 만든 쑥밥이 있다. 쑥은 어린잎일수록 맛과 향이 좋으며, 굵게 다진 쑥을 얹어 지은 쑥밥에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춘곤증을 없애고 입맛을 돋우는 냉이로 만든 사찰식 냉이강정은 아이들 입맛에 안성맞춤. 냉이를 튀겨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고추장 소스와 고소한 견과류를 더한다. 냉이는 특히 소화기관을 강화시키고 이뇨작용에 도움을 준다. 예로부터 영양 강장식으로 먹어왔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냉이가 눈을 맑게 해 주는 식재료라고 기록되어 있다.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원추리토장국은 어떨까.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라 하여 망우초라고도 불리는 원추리는 봄철에 나는 어린순을 주로 국에 넣어 먹는다. 뿌리에 전분이 많고 빈혈, 황달, 변비 등에 좋은 자양강장제로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 원재료인 원추리와 된장, 마른표고와 다시마만으로 깊은 맛을 내며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쑥 얹어 양념장 곁들인 '쑥밥' 등
봄나물로 다양한 건강식 조리 가능

이 밖에도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산사(山寺)의 조리법은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봄나물을 활용한 사찰음식 메뉴를 소개했다. 사진 왼쪽은 '쑥밥' 오른쪽은 '냉이강정'

'생사의 고해 넘어 열반의 세계'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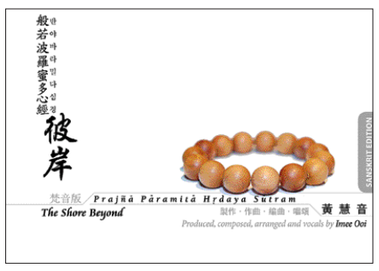
이미 우이 반야심경 음반 발매

이미 우이가 산스크리트어로 노래한 〈반야심경〉이 콘텐츠코리아에서 발매됐다. 중화권과 전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유명한 이미 우이는 그윽하고 신비한 천상의 목소리로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듯 매우 신성한 분위기로 깨달음을 노래한다.

독송이 아닌 음악에 맞춰 노래한 '창송(唱頌) 앨범'으로 〈범본(梵本) 반야심경〉의 원문 그대로를 노래한 국내 최초의 앨범이기도 하다. 또한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원문과 우리말 독음, 영문본, 한문본 & 우리말 독음, 우리말 번역본, 반야심경과 수록곡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담긴 북릿이 삽입되어 불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미 우이가 그윽하고 신비한 천상의 목소리로 여러 악기반주에 맞춰 느린 템포로 반야심경을 3번 이어서 노래하는 첫 곡 '반야바라밀다심경 · 피안'은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번째 곡인 '환희심'은 인트로에서 반야심경의 마지막구절인 산스크리트어 진언 '가떼 가떼 파라가떼 파라삼가떼 보디스와 하(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를 3번 낭송한다. 타악기의 리듬을 중심으로 여러 전통악기 반주와 진언의 운율에 맞춰 경쾌한 템포로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전체를 5번 반복해서 창송한다.



이미 우이의 '반야심경' 앨범 표지

관세음보살이 화현한 듯한 이미 우이의 목소리는 우리 가슴 속 깊이 스며들어 깊은 울림과 파동을 일으키며, 무명(無明)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지혜를 전해 줄 것이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여산 스님 눈에 비친 5.18 광주항쟁

연극 '푸르른 날에' 4월 29일부터 초연배우 마지막 고별무대로 진행

차밭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 중인 여산 스님(과거의 오민호)이 조카이자 '딸'인 운화의 결혼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극 '푸르른 날에'의 역사적 배경은 5.18광주민주항쟁이다. 이 작품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21세기 신파극'이라는 과감한 시도로 새롭게 조명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왔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가 공동 제작하는 연극 〈푸르른 날에〉가 4월 29일~5월 31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무대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올해로 5번째 시즌을 맞은 연극 〈푸르른 날에〉는 지난 2011년 초연부터 함께 해왔던 배우들이 선보일 마지막 고별 무대다.

티켓은 인터파크와 신시컴퍼니 홈페이지, 남산예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능하다.



연극 '푸르른 날에' 공연 장면.

정혜숙 기자

BBS 진주 다르마 콘서트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진주중계소 허가 취득 기념 법회 및 창사 25주년 기념 전국순회 다르마 콘서트 '진주편'을 4월 18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실관에서 열었다.

1부는 진주중계소 허가 취득(주파수:88.1MHz) 기념 법회로 진행됐다. 라디오 중계소 신규 설립 예정인 서부경남권역 라디오 가청권 확대를 발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 원로 스님들과 진주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불교방송의 진주중계소 허가 취득을 함께 축하했다.

2부는 전국순회 다르마 콘서트로 불교방송 진행자 월호 스님, 원욱 스님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즉문즉설 시간으로 진주 지역 불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혜숙 기자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전통 燈에 일상의 발원을 담아

탑골미술관 전통등 전시회 4월 30일까지

불교에서 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불자들은 자신의 발원을 담아 등을 켠다. 지혜의 등 소망의 등은 희망을 밝히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연등 축제를 한달여 앞두고 도심에서 전통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주최하는 '전통등 전시회'가 4월 30일까지 탑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일상의 소망을 담아 희망의 불을 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절집의 사물, 봉황, 부엉이, 새우 등을 작품으로 표현한 2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 전시된 범종, 운판, 목어, 법고는 만인(하늘 · 물 · 땅 · 생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절집의 사물이 위치해 있다. 종은 삼라만상을, 운판은 날짐승을, 법고(法鼓)는 땅 밑의 중생을, 목어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킨다는 의미를 전해줄 것이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은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등으로 표현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요즘 크고 화려한 등축제가 많지만 이번 전시는 전통 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체적 희망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일상 속에서 품고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전통등 전시회'가 4월 30일까지 탑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사물등 · 주마등 20여 작품 전시 '나만의 소원등 만들기' 전시 체험도


주마등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상징한다.

주마등도 주목할만하다. 등 한가운데에 가는 대오리를 세우고 대 끝에 두꺼운 종이로 만든 바퀴를 붙인 다음, 네 개의 말 형상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종이 바퀴를 돌게 구성되어 있다. 주마등은 세월의 빠름이나 어떤 사물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며 인생의 회한을 담아낸다.

이밖에도 불교의 상징인 연꽃등,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봉황, 자손 번영을 상징하는 새우, 장수의 상징 거북을 등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전통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나만의 소원등 만들기'의 전시 체험도 이어질 예정이다. (02)6911-959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계적 거장 '이우환 공간' 부산에 둥지 틀어

불교의 공사상 등 동양적 메시지 전해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조일상)은 4월 10일 이우환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우환 공간'을 개관했다.

이우환 작가는 그동안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 등 불교를 비롯한 동양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여 세계 화단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그는 최근 4년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 총액 기준으로 생존 작가 중에서 40위권을 기록할 만큼 세계적인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우환 작가가 중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인연을 소중히 여겨 '이우환 공간' 건립했다. 1층 전시관은 '관계항' 등의 조각작품이, 2층 전시관은 '대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등 회화작품이 주를 이루며 야외 전시관에도 두 점의 설치작품이 전시돼 1960년대 초기작부터 2015년작 등 총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물론 알프레드 파스트망 전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관장, 크리스틴 스타크만 미국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 드리크리 오제르코프 러시아 에르미타주미술관 큐레이터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우환(1936~)은 서울대 미대를 중퇴하고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전위예술운동인 모노하(物派)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며, 벨기에 왕립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베를린 국립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진 바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우환 공간'을 건립했다.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 '이우환: 무한의 제시'를 개최했고, 201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가졌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妄語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 구하라

〈망어〉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서봄(고아성 분)은 재개발 지역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 집안의 딸이다. 한때는 중산층이라 말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가 재개발 지역 건물을 잘못 사 빚만 남으면서 하층민으로 전락한다.

그런데 어느날 봄이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임신을 하고 말았다. 영어를 잘했고 친구들에게 제법 인기도 많았던 평범한 여학생 봄. 차마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 미혼모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인상(이준 분)이 나타났다. 그간 봄이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인상은 임신해 맘고생 했을 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봄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던 인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 법인 '한송'의 아들이었다.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가난한 집안의 딸 봄이가 출산을 하고 부유층의 집안과 합류하는 이야기로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신데렐라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풍문으로 들었소'는 통속의 구조를 비튼 유쾌한 풍자 드라마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상류층의 삶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풍문'을 통해 가진 자들의 위선과 허영을 꼬집고 비웃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봄이가 인상의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날 출산이 임박하자 다급하게 불렀던 119구급대를 돌려보내고 가정 출산을 감행하는 장면이다. 그 모두가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였다.

이들 풍문의 근원지는 바로 송재원(장호일 분)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와인바다. 인상의 모 최연희(유호정 분)와 사립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친구들이 이 와인바에 모여 주고받는 대화들은 단순하지가 않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아한 말투로 수다를 떨지만 말 안에는 뼈가 있어 서로의 자존심을 긁고 열등감을 자극해 욕망을 확대재생산해 나가며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낸다.



'풍문으로 들었소'는 통속의 구조를 비튼 유쾌한 풍자 드라마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난한 집 딸과 상류층의 만남서 소문에 죽고 사는 위선자들 조롱 말은 인간의 욕망 자극하는 촉매제 구업 경계하고 참회 가르침 되새겨 청각 능력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이미지에 죽고 이미지에 사는 이들에게 소문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무결점의 귀족으로 살기 위해 나쁜 소문은 막아야 하고 좋은 소문을 만들어 내야 한다. 때문에 인상의 부 한정호(유준상 분)는 그토록 반대하던 봄과 인상의 관계를 진정 사랑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순애보의 커플로 포장해 주었고 손자의 돌잔치에서는 거액의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삶을 만방에 알린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풍문은 그들을 힘들게 한다. 사돈처녀의 스캔들, 불순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돈댁의 단순무식한 반항, 그리고 지영라(백지연 분)와 연희의 남편 한정호의 스캔들 등 끊임없이 소문을 통해 욕망을 자극하고 불만을 일으켜 사건이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구업을 가장 경계하라고 충고한다.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를 경계한다. 즉 거짓말, 발림말, 이간하는 말, 악담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세치 혀의 힘은 엄청나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시작하는 〈천수경〉은 '망어중죄금일참회, 기어중죄금일참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신의 구업을 돌아보고 참회하라고 가르친다.

허망한 말들 때문에 선악의 구분이 일어나고 좋고 나쁜 것도 일어나며 후회와 자책이 일고 비난과 질타가 생긴다. 그래서 스스로의 말을 참회하고 돌이키고 신중하게 말하되, 말의 한계성과 허무함을 깨달아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청각으로 소리를 듣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청각 능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불만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공격할 것이다. 때문에, 그렇게 청각능력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각능력을 보호하고 청각능력을 수호한다'라고 말한다.

풍문에 죽고 풍문에 사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풍문이 두렵다면 이제 그 풍문이 빚어내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지 않을까?

정혜숙 기자


'갑질'을 하는 상류층의 삶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풍문'을 통해 가진 자들의 위선과 허영을 꼬집고 비웃는다.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8 ~ 4/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숨만 제대로 쉬면 무병장수 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3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지승호	운주사
4	불교인문학 극락추천서	원빈스님	이층버스
5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6	꿈을 깨면 내가 부처	서암스님	정토
7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달라이 라마	운주사
10	오대산 정념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불교이야기	자현스님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과거와 미래 알려면 현재 자신을 직시하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바새계경〉에서는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작은 병 속에 먹이를 놓는다고 합니다. 병 속에 있는 먹이를 잡은 원숭이는 그 음식을 잃지 않으려고 기어이 움켜쥔 손을 펴지 않아 결국 다가온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당연히 손을 펴고 먹이에 대한 욕심을 놓을 것 같지만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원숭이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더 이상 쓰임이 없다면 잡은 가지를 놓아 버리는, 집착을 여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쥐고 펴는 것이 자유로운 진정한 삶의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불교이야기
엮은이 자현
찍은이 하지권
담앤북스펴냄
1만5천원

정념 스님 58개 안심법문 묶어
'하심' 과 '보시' 가 핵심 키워드
단기출가학교 등 히트 제조기 별명
2017년까지 명상마을 조성 예정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는 12년전 정념 스님〈오른쪽 사진〉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취임 첫해인 2004부터 시작한 단기출가학교는 당시만 해도 불교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스님들과 똑같은 산사 생활을 한달동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입소를 원하는 지원자 평균 경쟁률이 7:1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다. 2015년 4월 현재까지 44기, 3천명이 넘어설 정도로 여전히 호응이 높다. 현재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조계종 대표 수행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실제로 단기출가학교를 거쳐 출가 한 이들도 무려 150명에 이른다.

월정사를 수행 도량으로 일구려는 정념 스님은 본인부터 실천에 앞장섰다.

본사 주지도 선방에 방부를 들인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2008년 만월선원을 짓자마자 제일 먼저 방부를 들였다. 본사 주지지만 여름, 겨울 한철씩 1년에 6개월 동안은 선방에서 지낸다. 선원을 복원하는일에도 정념 스님은 적극적이었다. 1992년 상원사 주지로 취임했을 때 첫 불사로 1947년 화재로 소실된 청량선원을 복원했다.

정념 스님의 업적 중에는 국가적으로 주목 받은 일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반출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를 반환받는 환수위를 구성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실록〉과 〈의궤〉를 되찾아온 공로로 2012년에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을 받았다. 정념 스님은 "현재 〈의궤〉는 고궁박물관에, 〈실록〉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중인데 원래 본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들에게도 한국기록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관도 월정사내에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님은 월정사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옛길인 선재길을 복원하고 오대산 숲길 걷기 등의 행사를 만드는 등 사찰 문을 세상 밖으로 활짝 여는 역할도 했다.

현재는 월정사 입구에 6만여 평에 이르는 터의 땅을 고르고 있다. 바로 세계적인 명상타운 불사를 위해서다.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2017년 완공예정인데 조계종 산하 시설로는 최대 규모가 된다. 앞서 열거한 결과물이 알려주듯 정념 스님은 '히트상품 제조기'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번 책에는 정념 스님의 지난 12년간 월정사 주지로서의 소회와 법문이 오롯이 녹아 있다.

특히 법을 청한 사람들과 서로 눈 맞춰 호흡한 이야기들 중에 지혜, 보시, 수행, 행복 등을 소재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한 '말' 들을 골라 엮었다. 법문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때론 투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생하고 그만큼 울림도 크다.

책 속에 들어 있는 법문은 총 58개다. 참여한 대중들 성격과 형식도 다르니 분명 가까이 보이는 것도 있고 멀리 보이는 것도 있다. 즉 생활 법문이고 때론 안심(安心) 법문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항상 강조한 키워드는 동일하다. 바로 자신을 낮추라는 '하심(下心)' 과 그 실천법인 '보시(布施)' 다.

법문 속에는 북대서 상원사로 내려오다 칡넝쿨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한 나한 때문에 오대산에서 쫓겨난 칡 이야기나 나옹스님의 발우에 눈을 떨어뜨려 오대산서 쫓겨난 소나무 이야기 같은 '전설 따라 삼만리' 류의 흥미진진한 법문도 등장한다. 특히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 첫 장인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에는 이렇게 오대산을 거쳐 간 수행자들의 이야기와 설화가 재밌게 엮여져 있다.

그렇다고 정념 스님의 법문에는 불교 이야기만 등장하진 않는다. '낙안(落雁)' 이라는 말로 유명한 왕소군 이야기나 '방비' 란 한마디 말 때문에 천리 길을 씩씩대며 달려온 소동파의 이야기는 인생무상과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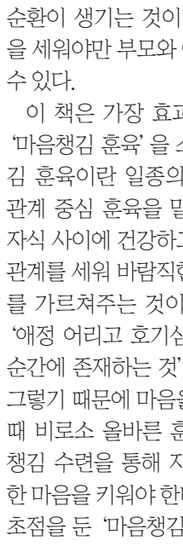
이 책은 마지막 9장 〈미래를 알고자 하면 바로 지금을 보라〉에는 책을 아우르는 결론이 제시된다. "과거를 알려면 현재 자신을, 미래를 알려거든 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라"는 충고다. 부처님 말씀이기도 한 이 말은 바로 '현재, 지금' 을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과거에 끄달림 없이 미래에 대한 확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 준다.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게 또 하나있다. 하지권 작가의 사진 300여 장이다. 적멸보궁이 자리한 중대, 너와집 수행처로 유명한 서대, 그리고 하늘이 터를 닦고 건물만 앉혀 놓은 것 같은 동대나 북대의 사진은 책을 읽어만 봐도 발심 하게 만든다. 암자뿐 아니라 우통수와 금강연 혹은 사고 등 오대산의 깊은 역사와 빼어난 풍광 사진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이에게 효과적인 훈육법은?… '마음챙김'

마음으로 훈육하라

샤우나 샤피로, 크리스 화이트 지음 | 김경영 옮김
길벗 펴냄 | 1만 3천원



요즘 TV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삼둥이 아빠 송일국의 훈육 방식이 화제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감정을 읽어주고 적절한 권위와 경계 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게 훈육하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떼를 쓰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순간적으로 냉정함을 잃고 소리를 지르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부모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엄마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소리를 질러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떼를 써야만 엄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나쁜 관계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올바른 훈육 방법을 세워야만 부모와 아이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책은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으로 '마음챙김 훈육' 을 소개하고 있다. 마음챙김 훈육이란 일종의 통합된 접근법으로, 관계 중심 훈육을 말한다. 훈육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애정 어린 관계를 세워 바람직한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또 마음챙김이란 '애정 어리고 호기심 어린 태도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아이와 함께할 때 비로소 올바른 훈육이 시작된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자기 내면의 지혜와 선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 태도, 관계, 직관에 초점을 둔 '마음챙김 훈육' 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절제력,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이 책에서 보여준다.

훈육(訓育)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른다' 고 적혀있다. '자기절제력' 을 키워서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친다' 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훈육은 '가르치다' 와 '자기절제력'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훈육은 자칫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훈육에 거부감이 크다. 부모들은 진정한 훈육이 무엇이며, 훈육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훈육 방법은 무엇일까 부모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훈육을 강행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결국 행동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재형 양육과 허용형 양육은 둘다 자기절제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그보다는 사랑과 경계를 통해 아이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권위형 양육이 건강한 뇌 발달을 이끌고, 정서지능이 높고 자기절제력 있는 아이가 되게 한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혼내기보다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허용되

"아이의 현재 행동에 집중하라"
자기연민서 바라보는 것 중요

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규칙을 어겼을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자양분을 제때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필요로 하는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이를 야단쳐도 상관없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지금 당장 혼이 나더라도 아이는 참아낼 수 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화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훈육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야단만 친다면 아이는 오히려 반항하고 삐뚤어진다. 때로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화가 난 표정을 지어 부모의 감정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아이는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만약 다섯 살 난 아이가 저녁 8시에 만화 한 편을 더 봐도 될지 묻는다면 분명한 경계를 정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잠잘 시간에 과자를 먹고 싶어 할 때 이를 일방적으로 저지한다고 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망가지지는 않는다.아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아니다. 관계의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해 아이 스스로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아이가 하는 말을 부모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아이를 훈육할 때 지속적인 처벌과 보상을 통해 훈련시키려 한다.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야말로 동물에게나 어울리는 양육법이다. 그에 반해 마음챙김 훈육은 행동에 집중하는 대신 아이의 숨은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에 대응한다. 아이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모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온전히 아이와 함께 있음으로써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아이를 존중해야 할 약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부모가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대신 실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때 가장 적절한 대응법이 보인다. 지금 일어난 일과 자신의 진심에 발을 딛고 있어야 아이와 가족을 위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마음챙김 훈육은 아이와 부모 자신, 삶과 매 순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음챙김 훈육을 도와주는 마음챙김 수련은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단지 개념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어느 순간에 지도, 한계 설정, 경계가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 애정 어리고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려준다.

훈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수들을 자기연민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 힘겨운 감정, 심지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을 연민으로 바라볼 때 치유와 성장의 길은 열린다.

김주일 기자



단 1분이면,
당신의 모든 전생정보을 읽어들인다!

타인의 전생을 읽는 신비한 능력. 15년 동안 1만 5천명의 전생을 읽고 상담해온 박진여 선생의 진정한 삶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생생하고 놀라운 상담 사례들. 사랑, 결혼, 건강, 직장, 가족과 인간관계! 당신의 질문에 당신의 전생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가.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화제의 신간
박진여(전생 리딩 상담가) 지음 | 값 12,800원



★★★ 종교 경험을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박진여 선생의 재능은 참으로 경이롭다. 그녀의 재능은 보기 드물 뿐더러 우리에게도 귀중하다(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 박진여는, 내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소망과 슬픔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티끌 없이 투명한 영혼의 거울이다(이진순, 언론학 박사, 〈한겨레〉 '이진순의 열림' 필자) ★★★ 삶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안목을 열어주는 책이다(민희식, 한양대 석좌교수) ★★★ 박진여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정신적 자산에 감동하고 또 감사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는 고귀한 영적 존재라는 샤르댕 신부의 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정현채, 서울대 의대 교수,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 때론 어떤 정신과, 심리학 박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딜레마를 한순간에 인정하고 수용하게끔 하는 깨달음의 책이다(박지숙, 카루나 마인드힐링연구소 소장) ★★★ 박진여 선생을 만나고 난 뒤, 내 입가에 자주 미소가 떠오른다. 삶의 깊은 의문 하나를 풀어낸 사람에게는, 때론, 고뇌조차 즐겁다(하창수, 소설가)

TEL: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김영사

당신을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명쾌하고 확실한 안내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지음 | 값 28,000원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몹시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선 수행의 길을 선명하게 밝힌 책

삶, 종교,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혁명적인 통합 접근법
켄 윌버의 통합비전 켄 윌버 지음 | 정창영 옮김 | 값 13,500원



이 시대의 수행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켄 윌버를 아는 사람과 그를 모르는 사람. 깨달음과 영성,
종교와 인간의 발달에 관한 온갖 오류를 명쾌하게 타파하는 책! 가장 쉽고 핵심적인 통합이론 입문서

과학이 밝혀낸 신과 종교에 대한 여행

뇌, 신을 훔치다

KBS파노라마 제작진 지음 | 인물과사상사 펴냄 | 1만 3천원



종교와 신에 대한 오래된 질문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인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신을 만났거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세계적인 유명인사도 적지 않다. 예컨대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고흐, 노벨, 나폴레옹, 시저, 도스토옙스키, 모파상, 단테, 파스칼 등이 그런 경우다. 놀랍게도 이들은 신을 만났거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스칼은 31세 때였던 1654년 11월의 어느 밤, 불꽃같은 성령 체험을 했다면서 이때의 체험을 약 600자 분량의 시 형태로 양피지에 기록하기까지 했다.

아예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012년 10월 8일자 〈뉴스위크〉는 '천국은 진짜다(Heaven is Real)'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른 알렉산더라는 하버드대학 신경외과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7일 동안 그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그 후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신의 무한하고 강력한 힘을 믿게 되었다. 그의 말은 진짜일까?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신의 목소리를 듣거나 신을 만났던 것일까? 더군다나 그는 논리적 이성과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던 뇌과학 전문가였다.

21세기에도 왜 종교는 번성하는가?

21세기의 인류는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졌다. 인터넷 쇼핑을 해도 가격과 성능을 면밀히 따진 후 구매를 확정하고, 운전을 할 때도 목적지까지의 통행량과 최단거리를 분석하고, 아니면 아예 그런 기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을 켠 후에야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렇게 우리는 매사에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신과 종교'에 대해서만은 합리적이지 않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도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신과 종교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4,000여 개의 종교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종교를 갖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21세기에 왜 신을 믿는지, 비이성적 ·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믿음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와 과학 넘나들며 '신의 거처'를 찾다

지난 300여 년 동안,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과거 신의 영역이나 초자연적 현상에 속하던 것들도 지금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천둥과 번개는 신이 노해서 내리는 천벌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것,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 등 말이다. 그렇다면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일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그동안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은 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가장 노력해온 게 바로 과학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의 말처럼 '과학은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확실하게 제시'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천여 개 종교 존재
지난해 4월 KBS TV다큐서 방영 내용

급기야 최첨단 과학은 사라진 신의 거처까지 찾아냈다. 물론 그곳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바로 인간의 '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은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많은 것을 밝혀내긴 했지만 아직 신과 종교의 많은 부분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전히 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와 과학의 영역을 넘나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의 질문을 통해 신과 종교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파스칼의 내기 : "신을 믿는 게 이익이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 지금부터 350여 년 전,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제안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다. 파스칼의 내기는 인생은 물론 사후세계까지 건 대단한 도박이었다. 신을 믿었는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천국에 가게 된다.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 신이 없다면 양쪽 다 아무 이득이 없다. 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을 통해 결국 파스칼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다.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

물론 파스칼의 논리에는 한계도 많고 수많은 변수를 무시해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신이 자신의 존재 증명을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것뿐이라는 점에서 파스칼의 논리를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독자들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가운데 독자들은 어느 쪽에 거시겠는가? 파스칼의 내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과학이 밝혀낸 신과 종교에 대한 여행을 떠나보자.

이 책은 2014년 4월에 방송된 KBS 파노라마 〈신의 뇌〉를 바탕으로 쓰였다. 〈신의 뇌〉는 2부작으로 방송이 나갔지만, 사실 4부작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였다. 방송하지 못한 나머지 2부작 분량은 책상 한 쪽 구석에 밀쳐두었고, 책 출간이 결정되면서 애초 4부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까지 모두 다 이 책에 담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

죽음이란 무엇인가

강승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절대평등의 이치다. 때문에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인류는 죽음을 피하는, 혹은 늦춰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다. 과연 죽음은 과연 공포스럽기만 한 것일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등등.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근원적 고민 중 하나인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들이 이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왔다. 하지만 아직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어느 종교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접근하는데, 이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불교의 죽음관을 다룬다. 즉 불교서 보는,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죽음에 대한 인식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삶의 문제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생사관'이기도 하다.

저자에게 죽음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이다. 하긴, '마음'은 불교의 핵심 키워드다. 저자는 마음을 작용, 행태, 본질의 셋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음의 작용은 의식, 행태는 말나식(사량식), 본질은 아뢰야식이며, 이 중 죽음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아뢰야식이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육체는 소멸하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은 마음인데, 그 중에서도 아뢰야식만이 끝까지 남아 미래를 결정하고 함께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목표는 열반, 즉 해탈이다. 이것은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여섯 세계로의 윤회를 그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최상의 자세는 당연히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공(空)'의 체득에 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두가 헛것(幻)이고, 가짜(假)임을 깨달을 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최상이다.

최상이 아니라면 차선으로라도, 즉 천상이나 인간세상에 태어나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이다. 선인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 즉 선의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세상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의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세상서 고통을 받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되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삶이 탐진치 삼독에 매여 있으면 죽음도, 그리고 다음 생도 번뇌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수행과 선업을 통해 아뢰야식을 맑게 하면 죽음도, 다음 생도 청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 나아가 삶이 자재하면 죽음도 자재하고, 다음 생도 자재할 수 있다. 바로 해탈이다.

이 책이 죽음의 본질과 삶의 실상에 대해 통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치 이야기를 하듯 풀어놓는 저자 특유의 글쓰기는, 자칫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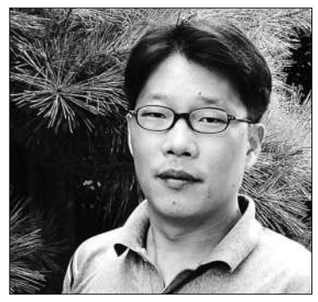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비유 절제 대신 대상 움직임 시어로 포착

우리들의 마지막얼굴

문태준 지음 | 창비 펴냄 | 8천원





우리 시단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 손꼽히는 문태준 시인〈사진〉의 여섯번째 시집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이 나왔다. 불교적 사유가 도드라진 시편들로 주목을 받던 〈먼 곳〉(창비 2012) 이후 3년 만에 펴낸 이 시집에서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대상과 세계에게 솔직한 말을 걸고 싶었다. 둘러대지 말고 짧게 선명하게"라고 밝혔듯이 "되도록 비유를 절제하면서 세계와 대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의 심심(甚深)한 묘사와 나열에 집중"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웅숭깊은 성찰이 깃든 진솔한 언어로 세상과 사물에게 건네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가슴을 울린다.

2014년 서정시학작품상 수상작 '봄바람이 불어서'를 비롯해 모두 61편의 작품이 실린 이 시집은 비교적 짧은 시편들로 이뤄져 두께는 얇으나 감동은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넓고 깊다. 등단 이후 새 시집을 낼 때마다 평단과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왔던바, 이 시집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백화(百花)가 지는 날 마애불을 보고 왔습니다 마애불은 밝은 곳과 어둔 곳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눈두덩과 눈, 콧부리와 볼, 입술과 인중, 목과 턱선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안면의 윤곽이 얇은 미소처럼 넓적하게 펴져 돌 위에 흐릿하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시(如是)〉중에서 문태준의 시는 따뜻하고 편안하다. 그의 시는 세계의 대상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며 우리를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이끈다.

시인은 사물에 동화되거나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서 "몸을 굽혀 균형을 맞추고 삶의 내밀한 풍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새롭고 다양한 말문을 연다.

이 골똘한 '응시'의 문법을 문학평론가 최현식은 해설에서 "여시(如是)의 문법"이라 이르며 "세계-자연-신에 대한 자아의 순간적 차연(差延)을 전제한 '서로 주체'와 '서로 타자'의 형식"이라고 평한다. 시 쓰기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향기이며 악취인 시간을 건축하는 일로 여기는 시인은 "스스로 기뻐하는 높이에 달린" "한알의/영혼" 같은 존재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청빈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

비록 "한덩어리의 옹색한 세계"이지만 세상을 긍정의 시선으로 관조하는 시인은 죽음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도 감정의 동요 없이 소멸의 과정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묘사한다. 죽음을 평범해지고 희미해지는 일이라고 무심한 듯 말하는 시인은 무덤 위에 풀이 돋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온 것 같다는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삶의 원리 혹은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시인은 죽음을 생의 종결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럽고 섭섭하고 기다라니 훌쭉한 햇살이 쏟아지는 '지금-여기'에서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성찰하는 자리로 삼는다. 그리하여 죽음은 생의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번 시집에는 여러편의 연작시가 눈길을 끈다. 특히 제 3부를 이루는 '드로잉' 연작은 이 시집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로 주목할 만하다. 시인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범벅된 눅눅한 삶의 핍진한 풍경을 감성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다. "왜소한 그늘"과 "축축한 음지"서 "스스로 말라가는, 아물어가는 환부"를 어루

'봄바람이 불어서' 등 61편 수록
섬세하고 감성적인 필치로 그려내

만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는 "아픈 혼"들의 궁핍한 초상을 따뜻한 연민과 동정의 눈길로 감싸안으며 시인은 현실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비의를 찾는다. 시인은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새장의 빗장을 풀고 청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사물과 사물, 생명과 생명 사이의 관계를 눈여겨보기도 한다. 시인은 '여시(如是)의 세계'에서는 세상 만물이 가치의 차이로 함부로 묶일 수 없는 자율적 세계임을 통찰하고, 사물과 사물을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둠, 실체와 허상 등과 같은 이분법으로 구분 짓지 않고 유연하게 생동하는 하나의 결합체로 인식한다. '사이'는 있으되 이쪽과 저쪽에 있는 "백중한 둘을 갈라놓지는 않는다"는 깨달음 속에서 시인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에게 강폭만큼 여지가 남아 있는 공감의 세계, '대치' 함으로써 '사이'를 살아가는 화해와 공존이 어우러지는 크고 둥근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망한다.

김주일 기자



見性成佛 · 天人合一, 모두 하나로 통한다

불교로 읽는 古典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지금부터 730여 년 전 고려시대에 일연 선사는 그 유명한 〈삼국유사〉를 출간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 기이(紀異)편 고조선(古朝鮮)장에 '단군신화'가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단군신화'에는 곰이 사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느냐를 따지는 얘기가 아닌 것을 한국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된 '홍익인간' 사상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념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외에 한국인의 공통적인 사상 기반인 '천지인 삼재' 사상도 '단군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단군신화'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 고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 5천년 역사를 관통하면서 여러모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학자로 퇴계 이황 선생을 꼽을 수 있다. 선생이 남긴 대표 저술은 〈성학십도〉인데, 찬찬히 살펴보면 일연 선사의 '단군신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에는 '사람은 하늘에서 왔으며, 따라서 하늘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 사상은 퇴계 이황 선생의 핵심사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단군신화'에는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잡념을 갖지 말고 오직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성학십도〉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경(敬)'인데 그것은 집중을 통한 자기 수양의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단군신화'와 〈성학십도〉는 시대를 뛰어넘는 정신적 연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학십도〉는 퇴계 선생이 68세 되던 1568년에 선조에게 올린 글로서, 성인 또는 성군이 되기 위한 유학의 수양철학을 열 가지 그림과 해설로 작성한 명저이다. 서문에 해당하는 '성학십도를 올리는 글'로 시작해, '태극도'에서 '숙흥야매잠도'까지 10개의 그림과 해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수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퇴계 사상을 '경'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학십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로 '경'에 대한 설명으로 다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스스로 "십도는 모두 '경'으로써 주를 삼았습니다(十圖皆以敬爲主焉)."라고 밝혔고, 그 내용 또한 그러하다. '경(敬)'의 일반적인 의미는 '공경'이지만 선생은 그것을 '집중'의 의미로 썼다.

"경(敬)을 하는 방법은, 마음을 반드시 깨끗하고 엄숙하게 한곳에 집중하여 보존하고,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치를 궁구해야 합니다."

'경'은 기본적으로 집중 명상법을 뜻하는데 학습의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남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경우에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때 더욱 엄숙하고 더욱 '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은미하게 혼자 있는 곳에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은 그때 더욱 집중하고 더욱 고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학습을 함에 있어 '경'으로 집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그림을 볼 때는 마땅히 그 그림에 오로지 집중하여 마치 다른 그림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잡아 실천할 때도 마땅히 그 일에 오로지 집중하여 마치 다른 일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늘 그렇게 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서 해야 하며, 새벽에 정신이 맑을 때에 그 뜻을 풀어서 깊이 음미하기도 하고, 평소 사람을 대할 때에도 몸에 배도록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성학십도〉가 열 개의 그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 '태극도'를 볼 때는 나머지 아홉 개의 그림에는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그 그림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여덟 번째 그림인 '심학도'의 설명에서 '경'의 원리와 목표를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배우는 자는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하고, 몸가짐을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하며, 그 마음을 늘 고요하게 수렴하는 일이 최대한 익숙해지면, 그 공부가 극진해져서 성인의 경지에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됩니다."



퇴계 이황(1501~1570)의 영정. 조선 성리학자로 주리론(主理論) 전통의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종조로 숭앙된다. 그는 도덕적 수양을 학문의 최고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경(敬)을 강조했다. 〈성학십도〉는 이황만의 독특한 '경' 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군자의 유교적 마음 수양 방법을
10개 그림으로 해설한 '성학십도'

핵심 사상 '敬', 마음의 집중 의미
평정심 유지 강조… 명상과 유사
佛 · 儒 관통한 명상문화 뿌리 체감

중요한 것은 '경' 명상이 비단 정좌를 통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병이다."

이 말은 〈성학십도〉에 나오지만 퇴계 선생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주자가 임천 오씨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강조하여 옮긴 것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주일(主一)'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무적(無適)'이라 하는데, 이 둘을 모아 '주일무적'이라 한다. 이는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경', 즉 집중 명상법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다면 '경'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일까? 퇴계 선생은 그것을 '천인합일'로 설명한다.

〈표1〉 단군신화, 성학십도, 불교 비교 분석

구분	단군신화	성학십도	불교
명상법	불견일광	경(敬)	지 · 관 · 선
개인적 목표	사람 하늘	성인군자 천인합일	부처
사회적 목표	홍익인간	인(仁)	자비

"경을 하는 데도가 일상생활에서 떠나지 않으면 중화위육(中和位育)의 공이 이루어지고, 덕행이 떳떳한 윤리에 벗어나지 않아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미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중화위육'이라는 말은 〈중용〉에서 "'중(中)'과 '화(和)'를 이루면 온 세상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한 말을 축약한 것이다. 즉, "치중화(致中和)면 천지위언(天地位焉)하며 만물육언(萬物育焉)하니라"에서 네 글자를 따서 '중화위육'이라 한 것이다. '천인합일'의 비전을 말한 것은 '경'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곧 하늘마음이 되고, 하늘사람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퇴계의 사상이 '단군신화'에 제시된 '사람이 하늘과 하나'라는 천인일체(天人一體) 사상과 통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유학의 근원이 원래 요 · 순 임금을 비롯한 동이인의 사상이기 때문에 '단군신화'와 한국 유학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학이 중국에서 체계화되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기한 점은 유학이 조선에서 독특한 사상으로 재정립되었다는 것이다. 흔히 유학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의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유학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몇 가지 근거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유학은 '경'을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된다. 유학은 공자의 핵심사상인 인(仁)이 중심이다. '인'은 5천년 한국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과 동의어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퇴계, 율곡 등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들은 '인'이 아닌 '경(敬)'을 중심으로 유학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율곡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자기 수양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로잡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율곡 또한 자기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고, 자기 수양 방법으로서 '경'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경'을 "성인이 되는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경'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변화 방법'을 가장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늘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꿈이었다면 그 꿈은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선의 유학은 성선설(性善說)을 당연하게 여긴다. 중국 유학에는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유학에서는 성선설을 옹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상의 원뿌리인 '단군신화'에서 천인일체의 원리를 규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5천년을 이어 우리의 얼이 되었다.

셋째, 조선 유학의 자기 수양 프로세스는 '단군신화'에서 곰이 사람 되는 과정과 거의 일치한다. 퇴계의 〈성학십도〉와 율곡의 〈성학집요〉를 보면 자기 수양의 과정이 대체로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단계 : 입지(立志) - '도'를 이루겠다는 뜻을 세운다.
2단계 : 경(敬) -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가꾼다.
3단계 : 덕인(德人) - '경'의 결과 내면의 변화를 실현하여 '덕'을 갖춘다.

이 3단계가 '단군신화'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자.

1단계 :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원(願)을 세운다.
2단계 :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불견일광백일'이 제시된다.
3단계 : 곰이 여자의 몸을 얻는다.

'불견일광백일(不見日光百日)', 즉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것은 일념 집중 명상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곰이 사람이 된 것은 곧 사람다운 사람, 하늘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조선 유학의 자기 수양 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 단계와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웅녀가 환웅과 결혼을 하는 과정을 퇴계의 천인합일에 비유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웅녀는 땅의 사람이며, 환웅은 하늘의 사람이니 둘의 교합은 천인합일이 아니겠는가? 단군신화의 곰 이야기는 모두가 은유로 되어 있고, 퇴계를 비롯한 조선의 유학자들이 유학 사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보다 직접적이다. 그런데도 3단계 자기 수양 프로세스는 맞춘 듯이 일치성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인의 '얼'은 그렇게 5천년을 이어왔다. 천인일체나 홍익인간 사상은 그렇게 한국사상 전반에 깊게 투영되어 있다.

'단군신화' 자체가 일연 선사의 저술에 포함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유학과 불교의 접점을 밝힌 셈이다. 나아가 불교의 명상법과 그 목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교의 명상법은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이다. 〈안반수의경〉은 불교의 명상 수행법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경전일 것이다. 경전에는 명상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수식(數息) - 상수(相隨) - 지관(止觀) - 환(還) - 정(淨)으로 이어지는 5단계를 제시한다.

첫 단계의 수식(數息)에서 세 번째 단계인 지관(止觀)까지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집중'의 방식이 적용되는 명상법이라는 점에서는 퇴계 선생의 '경(敬)'과 근본 원리가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불교의 명상법은 '환'과 '정'에 이르러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경계가 사라져, 지혜와 열반에 이르는 것이 그 목표다. 달리 말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는 퇴계 선생이 '경'의 궁극 목표로 제시한 말한 '천인합일'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

부처가 되는 방법이나 하늘이 되는 방법이나 결국 하나로 통한다. '단군신화'와 〈성학십도〉와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한국인의 명상법을 중심으로 불교, 유교, 단군신화 삼자를 비교하면 별첨의 표**(표1 참조)**와 같다.

이쯤 되면 5천년 한국인의 삶이 명상과 함께 이어져 왔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의 문화와 정신 등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근원이 명상으로 통한다. 일연 선사, 원효 대사,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등 귀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현들의 삶과 뜻을 생각해 보면 옷깃이 절로 여며진다. 후손에게 대대손손 소중한 우리의 얼을 계승 · 발전시켜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사상에서 그 과제의 키워드를 찾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45,000원~~ (희담석 합장주, 염주)
⇨ 35,000원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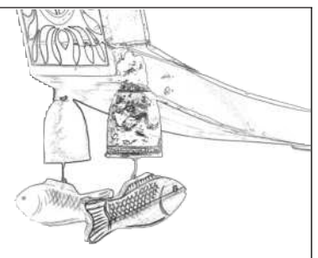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 유교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수행식 중화요리 특허출원
새로운 메뉴 탄생, 밥두부 출원,
짜장이나 짬뽕이 국수(면) 종류지만
소승의 출원은 불교적인 메뉴개발,
채식의 변화 대중화, 연구비만 받고
자금부족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41-542-1120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모든 불교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등
영남범음범패, 바라작법,
오공양춤, 지전춤, 살풀이,
극락무
010-8674-383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70
www.달마.kr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748-300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기도승
종단무관한 곳. 제의
식 가능, 비구승 임.
빈절도 관리해 드림.
초파일 기도 가능
010-3066-268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0-8559-940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삼봉사)
010-4484-57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60세 이상)
010-4450-250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신심있는 공양주 2분과 거사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010-7275-3730 원주스님
042-825-1724 종무소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서울지역 : 4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6시30분
대전지역 : 5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6시30분
1. 개강일
* 서울지역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7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 대전지역 : 5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7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2. 강의장소
* 서울지역 : 2호선전철 서울대입구 3번출구 전방 80m지점. 버스승강장 옆 안경박사골목 전방 100m 좌측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 (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나 여래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니 그 길을 따라가고
가지 않는 것을 나인들 어찌하겠는가.

- 중아함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사찰 양도
- 건물3동 목조법당60㎡ 황토요사85㎡
- 산신각.토지 5,300㎡. 집기류포함
- 양도금액 : 5억 8천만(융자가능)
- 위치좋음, 앞은 마을 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리 22-31
- 대지 1,240평
- 산식각, 미륵불, 요사채 없음 암반수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시장 입구 삼거리
- 카도 버스정류장, 시장부근 장소최적
- 3층중 2층, 법당, 주방, 욕실 창고 삼존불, 소불 108불, 에어컨1
- 가액 : 보증금 1천, 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종교용지 : 77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양도 : 6억5천 ◎ 양도 : 5억3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바다가 보이는 절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위치한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 남향바다를 바라보고 있음
- 도로, 전기, 조경 농막허가(콘테이너)한동 설치
- 지목은 전(관리지역) 총 평수 1,104평
- 건축허가 가능
- 가액 : 2억 (주인직거래)

010-2002-10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장한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미타불,대세지보살,관세음보살,지장보살
- 소불 30불, 탱화(후불, 신중, 지장) 기타 불기용품
- 오피스텔 2층 15평(10층 건물 도시형 주택 및 사무실 약 170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합 3,000만원

010-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 중심포교원
- 시설: 방3개, 거실, 창고, 주방, 심야보일러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음. 한옥 65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 60만원 양도 1억 7천만원

010-6369-11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버스정류소 앞
- 2층 약 60평, 큰법당, 방3 샤워실, 큰 공양간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시설 환경 A급
- 가액 :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천 3백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하철 부근)
- 평수 : 약 45평
- 법당, 방 3,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엄청 싸게 드립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505-010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5층 중 3층(3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소불 100불
- 시설완비(공양간, 방1, 실내화장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423-2335
010-7430-11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면적 300평, 법당 40평
- 요사 51평(이층 15평 별도)
- 방사 : 11개 화장실 3개
- 가액 : 1억 6천(융자 3천) 전세 5천만원
- 안내 및 전세 꼭 하실분만

010-8993-3596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덕면
- 조용하고 깨끗한 절
- 넓은마당, 주차장, 텃밭, 연못
- 대지(종교용지) 380평
- 법당 40평, 요사채 40평
- 삼존불, 108소불 등
- 가액 : 2억 3천만원 (대출 5천만원 포함)
- 시세이하

017-217-1919

사찰(급)안내

- 위치: 구미 근교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좋은자리에 한옥토굴 선원암자

- 별장 전통찻집 노스님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교 대구밀양 30분
- 대지 236평, 건평 기역자 한옥 57평
- 내부인테리어, 에어컨 3대, 태양광전기설치
- 대밭, 잔디정원 양호, 마을 뒤 끝집
- 가액 : 1억 9천(대출 3천 5백) 실매입가 1억 5천 5백
- 곧바로 좋은인연 되십니다

010-7417-45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남부시장내
- 평수 : 34평
- 보증금 2,000만원 달세 25만원
-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5만원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85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합니다
- 부동산은 연락 자제 해주세요

010-9906-9668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50년된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 법당, 방사, 공양실 합 50평
- 지하철 2분거리
- 몸만 들어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4,000만원, 월세 30만원
- 절충 가능함

010-3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강남 최고 요지로 주변상권 좋음. 전철 10분 거리
- 양옥으로 포교원 겸 토굴
- 남향으로 깨끗하고 아늑함
- 정원조성 되어있음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세 180만원 시설비 2,600만원

010-2887-2570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7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 지하 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 양도가 : 2억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양도가 : 3억 7천
- 기차, 버스 10분거리 (터미널)
- 등기 285평 (등기별도)
- 법당 20평 / 별채 20평 / 산신각 3평 / 방 8평
- 요사채 20평 (텃밭 50평 별도)

연락처 011-819-0803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종교부지 206평
- 건물 1층 34평, 2층 23평
- 뒷산계곡 목조황토기와
- 라운드 형으로 된 별장식 건물
- 가액 : 3억 8천

010-4562-10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시설비 일체 없음
- 보시고 결정
- 가액:전세 2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010-8620-88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부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163평, 전답790평,
- 건평40평1채(준공5년), 12평1채(준공1년),
- 원두막1채, 각종 과실 나무와 약초재배중
- 경치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총2억3천만원(조정가능)

010-8591-1076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약 50평)
- 시설: 아미타 삼존불 완벽 법당 유 방3, 실내 화장실2, 에어컨 3 세탁기, 전자렌지, 목재8상탑 등
- 환경: 대로변 산중같은 암자
- 마당 화단유, 주변공원 15평 끼고 대중교통양호, 지하철 5분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약간절충가능)

010-3505-95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롯데호텔 근처 지하철 역 바로 앞
- 4층 건물 중 3층 45평
- 시설, 환경, 위치 A급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

010-3939-7171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 10분거리
- 유명한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물 사시사철 흐르고 옹달샘 있음
- 가옥40평, 25평 2채
- 땅 평수 : 8,500평
- 직접 오셔서 터를 보세요 (주인직접)
- 경기 충남지역 상가와 물물교환 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011-343-67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시장(부근) 사거리 코너
- 평수 : 약 30평 2층, 삼존불, 도시가스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400만원, 즉시법회

010-4667-5658

선 방 안 내

- 위치: 경주 감산사 (선방)
- 방 7평
- 조계종 비구니 스님에 한함
- 가액 : 3,700만원
- 문의바랍니다

010-9168-0229

작은 암자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남산아래 문중
- 종중땅, 텃밭 150평, 일년세(31만원), 지상권
- 건물 집 30평, 방3개, 주방거실, 욕실, 창고방
- 주변 작은마을 집뒤 산
- 몸만오시면 됨
- 양도 저렴한 가액 3천2백만 지장보살, 집기일체 8백만원

010-9787-5505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분수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양도가 : 3억 7천
- 기차, 버스 10분거리 (터미널)
- 등기 285평 (등기별도)
- 법당 20평 / 별채 20평 / 산신각 3평 / 방 8평
- 요사채 20평 (텃밭 50평 별도)

연락처 011-819-0803

명당사찰 부지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10번지
- 종교부지 700평 요사체 40평 1동 여러용도로 사용가능
- 평수 : 전체 약 3,300평 (가보시면 탄복합니다.)
- 대웅전 자리 산신각 자리 토목공사 완료, 전기시설 완료,
- 200 m 암반수 시설완료
- 가액 : 10억 5천 만원

011-9016-10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3층 건물중 3층(75평)
- 단독등기 이전 가능 최고명당터 자리
- 시설완비
- 가액:1억 8천만원(절충불가)
- 꼭 필요하신분 연락 요망

043-845-8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관내
- 평수: 대지 167평
- 법당: 15평,(블록조)
- 칠성당: 3평(콩크리트벽조에 전통한옥지붕)
- 요사채: 판넬 33평 5년된 신축건물
- 마을뒤편 야산아래 남향, 경내에 100년된 고목이있음,
- 가액: 1억7천(절충없음)

010-9664-91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경주 동국대 15분 거리)
- 건평 : 230평
- 방3개, 공양간, 산신각, 법당
- 집기류 일체 두고 갑니다
- 몸만 오신면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5천(조절가능)

054)334-6698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16번지
- 대지 413㎡
- 공양간 1층 100㎡
- 법당(대웅전)2층 100㎡
- 가격 절충

011-595-6522
055)336-0108

포교원 전 월세

- 위치 : 진주시 상봉동 2층 시내 5분거리
- 주불 관세음보살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1,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9632-8686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3〉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라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내면의 ‘부처 에너지’를 보는 확신 키우자”



내 판단이 옳다고 100% 장담하지 마라

금요일 밤의 약속 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갈등의 원인 가운데 어디까지가 자신의 몫인지를 확인하자.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당한 고통의 주된 원인은 내 안에 있는 화의 씨앗이며 타인은 부차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도록 하자.

자신의 책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 호흡을 자각하고, 화를 끌어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낸다면, 불과 15분 안에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도 지옥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는 아직도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지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꽃을 잘 보살펴야 한다. 나는 그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이미 다짐을 했다. 그러나 그 다짐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부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연민을 느낄 것이고, 갑자기 그에게로 가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 것인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돕겠다는 동기가 유발되는 순간에 내 안의 모든 화가 연민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수련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쓰레기가 비료가 되어서 다시 꽃이 된 것이다. 쓰레기가 꽃이 되기까지는 불과 15분이나 30분, 혹은 한 시간이 걸릴 뿐이다. 시간의 차이는 집중의 정도, 자각의 정도, 그리고 수련을 하는 동안 얻은 지혜와 통찰의 양에 달려 있다.

아직 화요일이라면 약속된 금요일 저녁까지는 사흘이나 남아 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임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한다. “여보, 이제 난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그 동안 난 그릇된 판단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당신과 나 자신에게 어떻게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이젠 알겠어. 이제 금요일 저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대개의 경우 화는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고통의 원인을 캐어보고 그것이 그릇된 판단에서 빚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한다. 그는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파괴하길 바라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다.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자식 혹은 아내, 남편이건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판단을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남자가 있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이미 자식을 낳은 뒤였다. 그는 아기가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자주 일을 봐주러 오는 이웃집 남자의 자식일거라고 믿었다. 그는 아기를 의심의 눈으로 보았다. 그는 아기를 미워했다. 그는 아기의 얼굴에서 이웃집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어느 날 그의 동생이 처음으로 그의 집에 왔다. 아기를 보자 동생은 형에게 말했다. “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붕어빵이야.” 동생이 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건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남자는 그 동안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그릇된 판단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 그는 그 동안 말 못할 고통을 받아왔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아내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주었으며, 아기도 고통을 받았다. 만약 그 때 동생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언제까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태양이 바로 그 순간 하늘에 떠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금 그 태양이 실은 8분 전의 태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대략 8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은 그 별은 이미 오래전에, 천 년이나 2천 년 전에 사라진 별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정말로 확신하는가?”라고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 것이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요즘 의사들은 “확실하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의 경구를 써서 병원 벽에 붙여둔다고 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경계하겠다는 뜻이다. 의사들은 정신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숨어 있는 질병을 탐색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렸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릇된 판단하나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이 자기를 배신하거나 증오한다고 믿는다. 남은 그에 대해서 그저 선의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그렇게 믿는다. 그릇된 판단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기기 마련이다.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그 실체를 깊이 재고해봐야 한다. 그릇된 판단을 지울 수 있다면 평화와 행복이 다시 깃들 것이고, 주위 사람들을 다시 살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당한 고통의 주된 원인은 내 안에 있는 화의 씨앗 때문 타인은 부차적인 원인 일 뿐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자신에게로 돌아가 실체 보아야

남을 용서하는 것… 화풀이의 한 방법

누구에게나 한 번쯤 부모님들과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서로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 듯 말 한 마디 없이 냉랭히 지내기도 한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쌍방 모두가 그들 사이에는 오해와 증오와 분열만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힘이 우리 안에는 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햇빛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보면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 햇빛이 늘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야 새삼 깨닫는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분노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대화하고 용서하고 연민의 정을 베풀 능력이 늘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겐 분노와 고통이란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있으면 비가 내릴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온 세상이 어두운 채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태양이 나타날 것이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나와 타인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으면 두 사람 사이의 그 어떠한 감정도 극복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의 것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련을 한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햇빛의 존재를 깨닫고, 부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에너지에 대한 확신을 키우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부처의 에너지에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과 좌정으로서 실천할 수 있다.

내게 화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타인과 의사를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련이다. 타인과 의사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 방법을 특별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능력을 상실했을 때가 있다. 타인이 참으로 쓰리고 아픈 말만을 해대면서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기가 지겨워질 수 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를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피하면 또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경멸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또 엄청난 고통이 빚어질 수 있다. 내가 그를 피하고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대면할 수도 없고, 마냥 피하기만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와의 의사 교류의 길을 다시 트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특별히 훈련을 해서 그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제각기 자기의 일에 분주하기만 할 뿐이고, 아무도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요즘엔 심리치료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가슴을 다 열어젖힐 수 있을 때까지 말없이 들어준다. 진정한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심리치료사는 절대로 편견을 갖지 않고 판단을 내리지도 않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심리치료사 자신도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환자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고통의 씨앗들에 물이 뿌려질 수도 있다. 그가 자신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짜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와의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으며 그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남의 말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안다. 그의 말이 내게서 경청되고 그의 심정이 이해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한다. 그럴 때에야 그에게 진정으로 위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

연민의 마음으로 남의 말을 깊이 들어주려면 그가 얘기한 것을 분석해서도 안 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그가 가슴에 쌓인 것을 다 털어놓고,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에게 위안을 준다는 자세로 그저 듣기만 해야 한다. 남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연민의 정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소망해야 한다. 가슴을 활짝 열어젖힘으로써 거기에 쌓인 고통을 모두 털어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 분석을 하거나 과거의 일을 다시 다지거나 하는 것은 단지 부산물일 뿐이어야 하고, 오로지 연민의 정으로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동 782-41
• 용도 : 근린시설 담보대출 없음
• 1, 2, 3층 도시가스 보일러, 방 6개(일부)
• 삼존불 일체조성, 주차가능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선착순
010-2071-8484
011-586-464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 (방3칸),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 1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전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5평
• 대진해수욕장 차편으로 10분거리, 고래불 해수욕장 5분거리
화목 기름보일러 설치
• 가액 : 2억 8천(대출금융 4천 5백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3동 상가건물
• 지하1층, 지상4층
• 건평 57평
• 2층 관음전, 3층 법당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522-6677

사찰,치유힐링원,연수원
• 위치: 경남 합천군
• 한옥 본관 80평 • 한옥 주택 32평
• 한옥 화장실 6평
• 황토 초가집 3동
• 전망이좋고 조경이 잘되어 있음
• 사찰, 치유힐링원, 연수원
• 운영에 아주 좋음
010-3521-69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011-543-2161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 평수 : 374평(종교부지)
• 강변 야산에 50년된 암자
• 테크노폴리스(고급기술 산업단지)의 연구시설이 집중된 작은도시
• 재래시장, 정류장은 도보로 10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536-63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6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3억 7천)
010-5019-5385

절 터 안 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 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납골당 · 수목장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내석리 산 36번지 (구, 청운사)
■ 토지(임야) : 36,199㎡ (약 10,650평)
■ 건축 : 지역 / 지구 : 도시지역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산지전용 대지 면적 : 3,223㎡ (약 975평)
·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 면적 : 1,259.96㎡ (약 381평)
■ 현재공정율 : 70% 골조완료 마감공 사중
■ 가액(매도) 예정가 : 현재상태인수 15억 (2015년 4월 기준) 완공후 허가취득시 22억
■ 상담문의 010-9344-1661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법정 스님 ㊥

자신 바로보고 성찰하며 사랑 배우다

인간은 누구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다만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짐작할 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울은, 사실 타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다.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보다 타자의 시선에 더욱 의미를 두고, 남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됨됨이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현대인은 거울과 저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말씀은 남의 눈에 비치는 타자의 눈보다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눈이 더욱 진실하다는 점을 알게 하였다. 나는 스님을 통해 자신을 바로보고 성찰하는 내면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은 스님의 진영을 그리는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나는 법정 스님 진영 작업을 하면서 출가 전의 모습부터 마지막 절명하는 순간까지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다시 다비식 이후부터 스님을 추모하는 분위기까지를 읽으려 노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보한 스님의 생전 모습과 입적 이후 추모 분위기 등의 사진자료를 나의 작업 공간에 빼곡히 붙여, 스님의 정서가 곧 나의 정서와 일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스님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골똘히 궁구해 보았다. 그렇게 상당기간의 시간이 흐르자

적요하고 무심한 모습을 이미지화
맑고 청수한 느낌 전달 받도록 의도
자료 거듭 확인하며 스님 모습 화폭에
여러 의견 듣고 종합… 진영 5점 제작
실존하는 삶의 전형 기록하고자 노력

어느 순간 그 분과 내가 마음 속 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사진과 책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치웠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나는 나의 눈으로 확인 하고 느낀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형상화하려 했다.

우선 전체적인 형상은 인간이 자신을 성찰 할 때 나타나는 적요하고 무심한 그리하여 몸에 어떤 인위적인 힘이나 긴장조차 없는 모습으로 이미지화 했다. 이는 진영을 보는 자가 그 모습에서 어떤 맑고 청수한 느낌을 전달 받게 하고자 한 의도였다.

또 진영의 얼굴모습은 약간 숙이는 자세로 설정했다. 그것은 스님과 스님을 찾아 온 사람들이 상호 마음의 눈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이다. 나는 이런 시공간 설정을 위해 스님의 진영 앞에 참배객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둘 사이에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선의 각도와 교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화 했다. 그러면서 몸과 얼굴의 각도를 약간 틀어 놓아 최소한의 정신적 긴장만은 유지하도록 했다.

내가 스님의 진영에 자세와 눈빛의 각도 이외에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동공의 표현이었다.

인물화에서 표현의 중요한 부위중 하나는 눈이다. 눈은 사람의 장기 중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상자의 정신적 깊이와 내면의 삶을 드러내는데 가장 주된 감각기관이기도 한다.

법정 스님의 눈동자와 머리털은 새까맣다. 이로 인해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 나는 눈동자에 특징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되어 그 표현에 특히 주의하였다. 동공은 빛이 약할 때 커지고 빛이 강할 때 작아진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동공은 커진다. 그러나 싫어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체나 모습을 바라볼 때 동공은 매우 작아진다. 동공이 확대되거나 축소하는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스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동공은 크게 그렸다. 그러면서 눈빛은 비스듬히 내려 보는 모습과 조응하도록 했다. 스님께서 바라보는 현상이나 사물이 매우 선하며 긍정적인 힘과 향기로운 눈빛을 주고자 함이었다.

스님은 눈썹이 거의 없었다. 유전적인 요소로 이해된다. 그래서 눈썹 부위가 도드라져 보여 자기 논리와 신념 등이 강한 인상을 만들어 낸다. 눈썹의 주된 기능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심리와 감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있다. 눈썹이 있으면 이마의 피부 움직임을 멀리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기능한다. 스님의 경우는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장치가 없다보니 다른 인물을 그릴 때 보다 인상의 특징을 잡는데 더 어려웠다.

스님의 진영은 모두 5점 제작했다. 현재 길상사 진영각에 모셔져 있는 초상화와 추모제에 사용하기 위한 전신 초상화 2점 이외에 3점을 더 제작하였다.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는 길상사 주지이신 덕운 스님의 숙제 때문이다. 작은 지적을 반영하다보니 진영만 5점이나 그렸다. 심지어 주지스님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작품조차 다시 그려야 했다. 나는 퇴짜를 맞은 그림에서 스님의 눈을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림을 주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고, 진영을 모시는 일에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스님을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으로 모시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사실 유사한 모습과 동작으로 한정된 하나의 인물을 여러 장 그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인내와 집중력을 필요로 했다. 또 결국 타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여러 점의 법정 스님 초상이 남게 되었으니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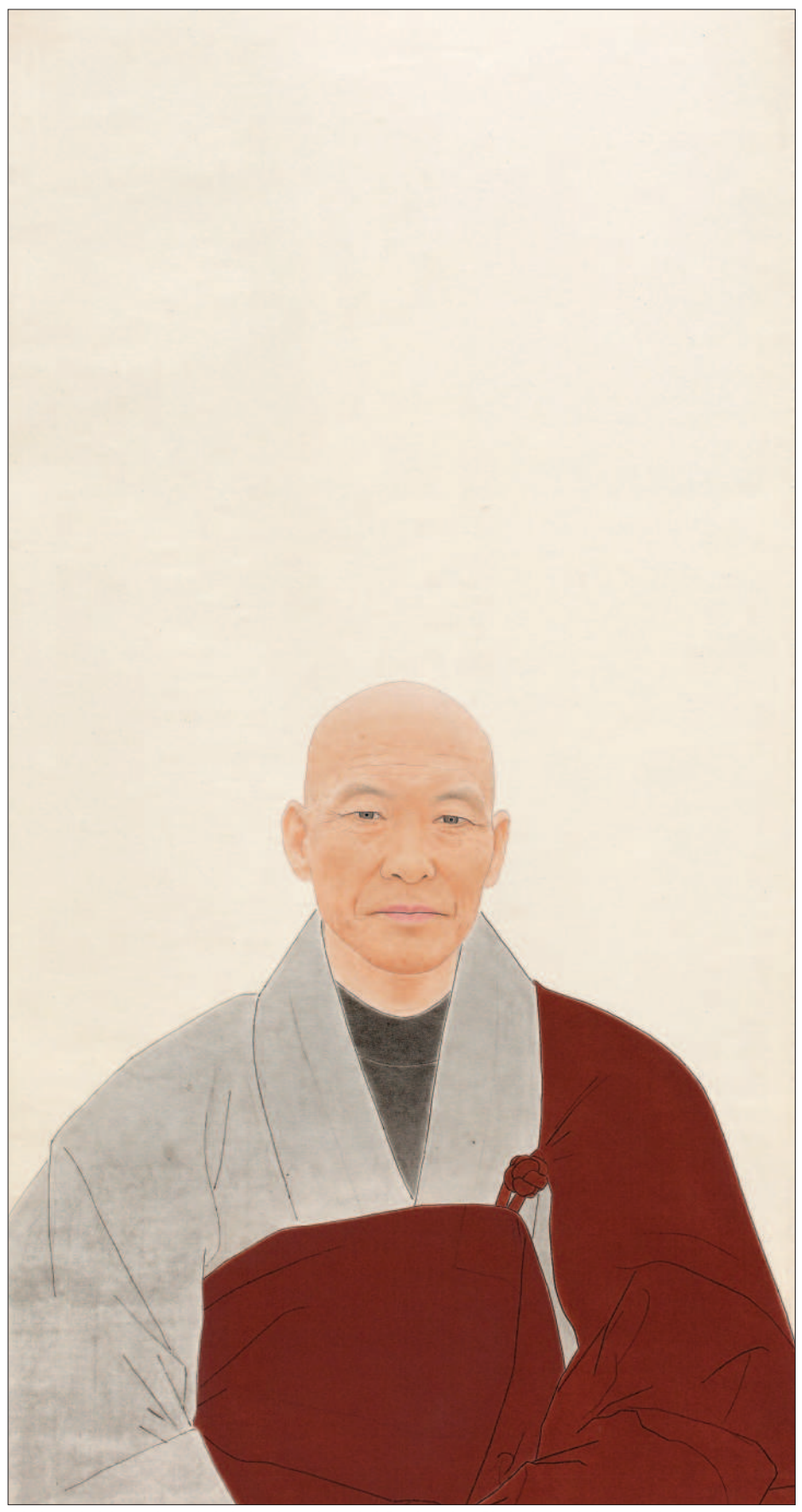
스님의 초상화 작업에 매달린 기간은 수행의 과정과 유사했다.

개인적으로 지난하고 팍팍하던 때에 스님을 주제로 한 작업들은 오히려 약이 되었다.

나는 지난 몇 년 힘든 나날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분노와 증오, 슬픔도 삶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헛딛은 발 길 하나도 삶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나의 문제조차 그림 속에 남기고자 했다. 실존하는 삶의 전형을 종이 위에서 살아 숨 쉬게 하고 싶어서다.



절정. 무채색 꽃을 통해 색 없는 색, 맛 없는 맛, 소리 없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유려한 것임을 법정 스님은 가르쳐 주었다.



법정 스님의 눈동자는 새까맣다. 이로 인해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 법정 스님 진영2, 종이에 수묵채색, 2012년, 길상사 소장으로 김호석 작가가 제작한 5점 진영 중 하나.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나르센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나르센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들소 KW-BS200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싸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모두의 마음속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큰스님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죠? 확실히 봄이죠?

대중 예.

큰스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중 예.

큰스님 사계절 없는 봄! 마음속의 봄맞이! 여여하게 봄을 활보할 수 있는 봄맞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50%의 맛을 모른다면 물질계의 50%에서 허덕거리다가 꺼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허망한 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가늠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 계실 때에 모든 상대가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이런 반면에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망상과 졸음, 그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관(觀)할 때는 반드시 졸지를 말아야 하고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망상과 졸음을 얘기한다면, 그 졸리고 망상이 난다는 걸림에 걸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잔다 깬다, 잔다 자지 않는다' 가 붙어서는 선(禪)에 즉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라는 게 붙으면 거기 직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초발심(初發心) 때는 자경문(自警文)도 읽고, 계율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망상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나가는 관습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쫓아가도 아니 되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발자취가 얼마만큼이나 컸나, 한 짝이 크고 한 짝이 작으니까 한 짝을 얼마나 키웠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色)과 공(空)은 둘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졸음을 금하면서 칼을 목에다 대고 하느니보다 모든 것이,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몽땅,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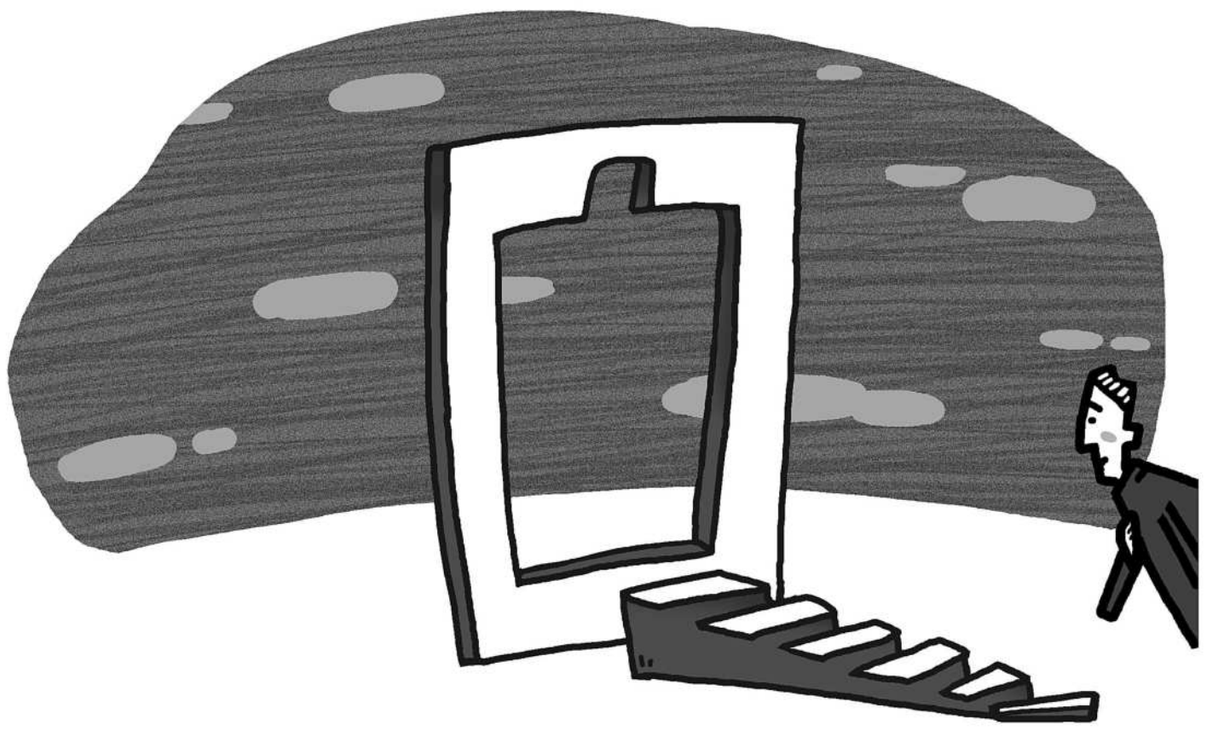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로부터 벌어졌으니까 나로부터 알아야 하지 않나? '졸린다, 졸리지 않다, 졸음을 쫓아야겠다' 하는 것도 거기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직결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나' 라는 혹성의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은 그대로 둘이 아니게 얽혀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응이 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집만 받은 겁니다. 자기 나오기 이전 영혼과 나오기 이전에 살 때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인연들이 전부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몸속으로 한데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 그걸 모릅니다. 악업 짓고 선업 지은 그 인연에 따라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그것만이 아주 입력이 돼서 현실로 착착 나옵니다, 현실로. 그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도 죽이게 하고, 강도질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또는 선한 일도 하게 하고 욕도 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병도 오게 하고 애고도 오게 하고,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를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이 주인공에 놓는 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탄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일어나는 대로 모든 거를 그 불바퀴에 놔라 이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낫게 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이끌어줄 수 있다.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내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이것이 벌써 졸린다 하면 졸리지 않은 게 따라붙고, 망상이다 하면 망상이 아닌 것이 따라붙죠.

이러니깐 수박을 놓고선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봐도 도무지 그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고,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씨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두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오다 점수다 할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와 내가 상봉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초발심에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의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남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것이지 그럭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전화 올 때를 바라고 전화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천년만년 있어도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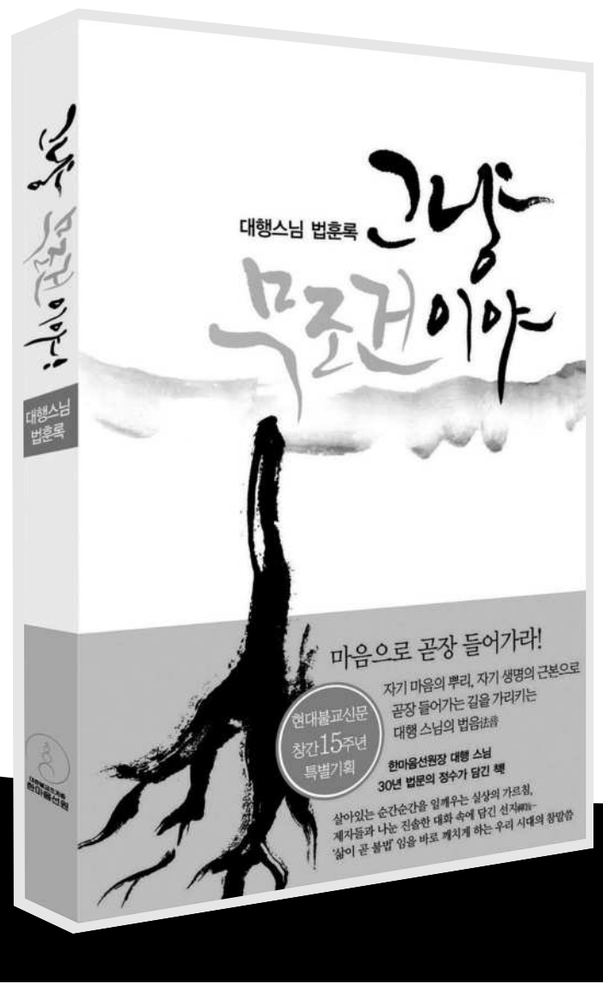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또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안 그렇습니까?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이 마려우면 소통이 돼야 하니까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이 모두가.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직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께서는 진실하게 일념으로 구했습니다. 진실한 일념.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고,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나' 라는 자체에 있다는 그 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근본 자체를,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말합디다마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불바퀴요, 또 전체가 둘이 아니면서도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개인 혹성 하나가 바로 또 불바퀴라는 얘깁니다. 불바퀴 자체가 공(空)도 아니고 색(色)도 아니요 한 것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니까 하는 소립니다.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같이 작용을 하지, 물질계는 물질계대로 놀고 정신계는 정신계대로 놉니까? 안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사시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몸이 움죽거리죠? 이것이 바로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의 혹성 하나가 개개인으로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으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불바퀴가 쉬지 않고 여여하게 화(化)해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조그마한 마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우주 전체에 직결이 돼 있다는 그 사실, 또 이 세상살이 살림살이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불바퀴가 쉬지 않고 여여하게 화해서 돌아갈 뿐이다!

(化)

☞ 29면에서 계속

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예요.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나 보이는 부처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통하고 공생(共生)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용이며 바로 공식화하고 공심(共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끝간 데 없는 진리를 이름해서 바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이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떠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삶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문란치 않게 하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된 자리요, 밤과 낮도 초월된 자리요, 여자와 남자도 초월된 자리요, 동서도 초월된 자립니다. 늙고 젊고도 초월된 자립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 했지요.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가 없더라. 남녀노소도 없고, 마음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채워지지 않을까 봐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서 마음공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스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자꾸 괴롭거든요, 마음이.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많이 괴로운데 이렇게 괴롭지 않고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큰스님 이거 봐!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없을 테고, 대신 밥 먹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죽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자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자기한테서 답답한 것도 나오고 자기한테서 고통스러운 것도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되입력을 해. 카세트에 먼저 괴로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괴롭지 않은 입력을 하란 말이야. '네가 있다면 괴롭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알아듣겠어? 그러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져 버릴 거야. 모든 것이 다 그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여) 저는 엄마한테 여기 스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자꾸 입안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좋지를 않습니다. 스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큰스님 이거 봐. 지금도 얘기했지. 내가 도와줘서 될 일이라면, 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원한다면 서로 한마음으로 응(應)해 줄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네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 봐. 이 '참나' 라는 거는 늙고 젊고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어. 너도 예전에 늙었다가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테니깐 말이야. 알아듣겠어?

모든 사람의 그 한마음 속에 약사도 있을 테고, 관세음도 있을 테고, 아촉도 있을 테고, 아미타도 있을 테고, 또는 지장도 있을 테고, 용신 · 지신 · 산신 · 독성 다 있을 거야, 한 생각에.

>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 되고,
>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 그저 내 앞에 닥친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고
> 그저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는 그런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스님께서 참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체와 육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체가 진정한 참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 유체는 뭐고 무체는 뭐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무체와 유체가, 무심(無心)과 유심(有心)이 다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질문자3(남) 제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거는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그 전생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또 하나의 혼(魂)이 있어 가지고 혼이 제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진정한 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혼(魂)이라는 것은 업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이란 더하고 덜함도 없고 움죽거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능력이 광대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중생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듯이 위로는 참자기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 그것부터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둘로 보지 마십시오. 혼백이다, 무슨 생명이다, 무슨 나다, 이런 걸 다 초월하십시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거기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깐요.

질문자3(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분별, 망상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큰스님 말씀대로 많은 망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순간 제가 느껴 본 것은 '망상이 있기에 보리(菩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즉, 한마음 자리에다 모든 것을 놓고 맡길 때 보리가 싹트는 것이며, 또한 분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망상도 바로 보리로 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생각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일 것이고, 망상이 아니라고, 즉 말하자면 '아, 망상이 없으면 우리가 목석이지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으로서의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좌선이다 입선이다 와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할 때나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모든 걸 막론해 놓고 '그놈이 있으니까 하지. 들이고 내고 하는 놈이 그놈이다.' 하고, '그놈은 또 무엇인가?' 하지 말고 '그놈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무엇인가?' 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못 보고 작년 씨가 올로 이렇게 온 거를 모르고, 작년 씨 찾다가 해 다 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4(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늘 생각해 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을 떠나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를 온 가족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뭘 얻었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에 부닥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도반으로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경계가 크게 온다.' 어떤 사람은 '경계가 작게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계가 크게 왔을 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혹 경계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그냥…. 물론 조그만 것 큰 것 할 것 없이 전부 놓아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제대로 공부가 돼 가는 것인지요. 한편으로 잔잔한 바다같이 순항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도 또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큰 경계가 와야 크게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그러한 정도가 꼭 경계의 크고 작음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큰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느끼고 큰 경계가 없음을 또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가 일취월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답보 상태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여쭈어 봅니다.

큰스님 세상에 공안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듯이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 모두가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 되고,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저 내 앞에 닥친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는 그런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4(남) 저의 가슴에 항상 봄이 와서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5(남) 테이프로 법문을 듣다가 의심이 나서 스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체 중생이, 또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 각각 달라도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윤회 법칙에서 본다면 육도 사생(六道四生)의 윤회를 할 때에, 만물 중에는 유정물과 무정물, 동물 식물 일체가 다 포함되는데, 육도 사생으로 본다면 유정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識)이 있는 세계로서의 윤회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서 산에서 고행하시는 중에 어느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자체의 그 이전 세계를 보니까, 물속에 있는 어류 중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체 중생이 하나라고 하지만 윤회 법칙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물과 식물이 구별이 되고 또 동물이 식물 된다는 그런 윤회의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물과 식물이 구분이 되며, 동물은 여전히 동물로만 진화하는 윤회 법칙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어류가 나무가 되듯이 식물도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어느 사람이 죽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서 가다 보니깐 어느 나무에 도달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신이 되었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사생(四生) · 육도(六度) · 만행(萬行) 하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한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면요, 책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너만이 일러 줄 수 있다. 너만이 알 것이다.'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것은 글자 공부 하고 이론 공부 하고 또는 지식 공부 하고 경서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자5(남) 예.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2년 4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가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051)746-681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불자 세상보기

공무원연금 개혁 초당적 합의 필요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최근 현 정권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공무원연금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져 있고 여당은 이달 23일까지를 자체 시한으로 정해 놓았는데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쟁점들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정권을 넘나들며 정계와 관계를 부패시켜온 한 기업인의 메모가 국가적 개혁의 발목을 잡도록 놔둘 수는 없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부패인사들을 엄중 단죄하면 될 일이지 다른 국가적 현안과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 리스트에 나와 있는 현재 권력실세 중 한 사람도 성완종의 구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국정 최고책임자의 부패척결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작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의 발표로 시동이 걸렸다. 그 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논의하여 같은 해 9월 18일 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같은 해 5월 29일 50개 단체가 함께 〈공적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서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9월 22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공무원연급개혁 정책토론회도 현장에서 공무원 노조(勞組)의 실력행사를 통한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런 강성 노조에 야당이 가세할 때 개혁에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일정은 계속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10월 2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찬성을 얻은 당론으로 발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 은 새누리당에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올해 1월 6일 대타협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금년 3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대타협기구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그 동안 제시된 5개안을 놓고 타협과 절충을 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새정치연합 문제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측이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절차 문제로 개혁에 제동을 걸 때는 아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이 개혁 작업의 최종 단계에서 배제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현안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바 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가예산에서 매일 80억 원씩의 연금 보존액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국회가 시한 내에 이 개혁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5년 후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작년 2014년의 경우 총 국가부채는 1211조원으로 계산되었는데 그 중에서 644조원(총 부채의 53%)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인한 부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인당 부담액이 1048원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이 문제가 국민의 이해에 직결된 초당(超黨)적 사안임을 말해준다.

이번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언제 개혁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 이번이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하는 대중 영합적 정치 속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개혁을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다면 청와대와 여야 3자가 그 필요성에 동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세월호 1주기와 불교의 역할

세월호 아픔 보듬는 '安心'의 역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세월호 이후 1년 동안 불교계가 해온 일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성도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을 구분해 보자면 크게 셋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팽목항의 세월호 법당으로 상징되는 지속적인 예불 활동이다. 전국 곳곳의 절집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주모하는 법회가 열렸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불이 거의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불교계가 세월호와 관련지어 해온 일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 위상은 종교로서의 불교에 맞춰져 있다. 불교의 철학적 속성 또는 영역에 관한 고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고려될 만하다. 왜냐하면 우선 철학과 종교의 구분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그 둘을 구별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 또한 서구 근대 계몽주의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속에서 종교와 철학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화두를 중심에 두고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실천을 전개해왔던 실학적 지향 때문이다. 불교와 유교, 도교 모두 종교이자 철학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철학과 종교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삶의 의미 물음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더 요청되고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세월호'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역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종교로서의 불교는 세월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포용하는 안심(安心)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종교의 역할이지만, 특히 불교의 경우 '그들과 함께 함'을 구현함으로써 정신적인 위안과 최소한의 평안을 줄 수 있다.

일상적인 치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세월호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상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완결함으로써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정신과적 분석 결과를 수용하면서 가능하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 해야 할 역할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동체자비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근간으로 삼아 타자의 고통에 충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법회나 템플스테이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그러한 안목과 능력을 길러주는 공감교육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의 연속선상에서 세월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이나 안전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자신의 물신주의적 사유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성찰의 장 마련 같은 대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자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해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시대 상황을 고려하는 삶의 의미 물음을 지속적인 화두로 던지는 일이다. 세월호는 잠시마나 우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와 국가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와 같은 의미 물음을 우리 눈앞에 던져주었지만, 불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런 물음들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여전한 밝음과 빠름, 편리함을 습관처럼 갈구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배후에 전제되어 있는 어둠과 느림, 불편함의 미학은 극복되어야 하는 적대적 대상일 뿐이라는 일차원적 사유와 행동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한국불교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화두참구를 일상으로 다시 끌어내려 삶의 의미 물음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등이 개최한 세월호 1주기 추모세미나의 발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향기로운 세상' 이웃과 함께하는 봉축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사찰은 본격적인 봉축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에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함께 진행돼 의미가 더하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발표한 포스터를 보면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 적혀 있으며, 연꽃을 수지한 보살의 손이 눈에 띈다. 연등회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연등회 포스터는 국 · 영문 포스터 2개가 한 세트인 것이 특징이다. 소형 홍보 책자 역시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제작됐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 오심은 온 우주의 생명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일체 생명들이 참나를 찾아 더불어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구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일대 서원과 가르침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이 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나라가 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승병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의 전통은 연면히 이어졌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묵묵히 대중교화에 헌신하거나 치열히 수행중이다. 봉축행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우리 한국불교의 가장 큰 축제마당인 만큼 전통은 살리되 이웃과 함께하는 여법한 행사가 되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화려함만 추구하는 외형적 볼거리에만 치중 말고 부처님오신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국민적 아니 세계인의 축제 한마당을 만들자.

전북 100인 대중공사에 거는 기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전북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준비위는 4월 12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미 종단 차원에서 3차례 열렸던 사부대중 대중공사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의 금산사와 선운사 사부대중이 지역불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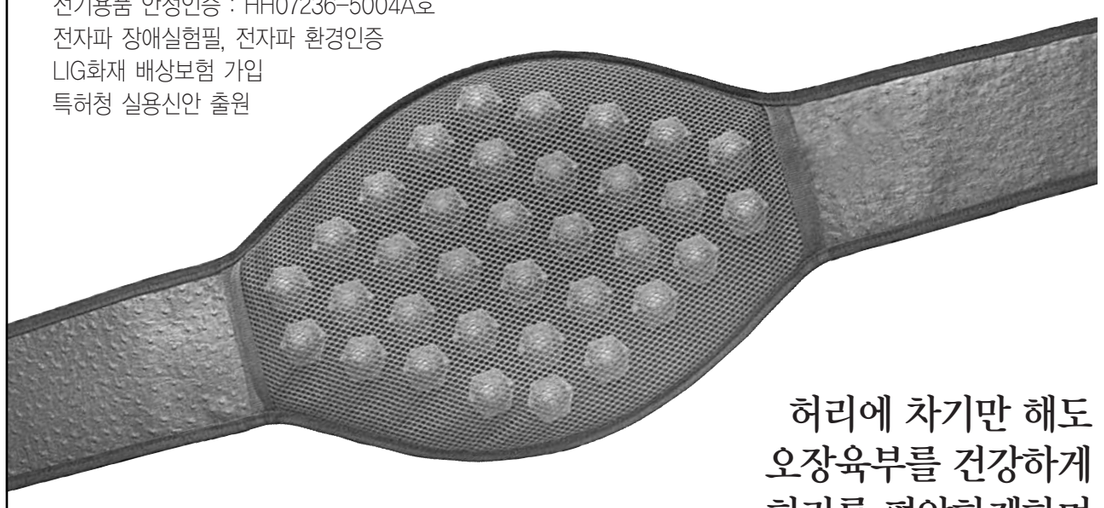
'전북불교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최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불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한다고 한다. 현재 포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은 불자의 고령화,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부재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종교적 양극화로 인해 불교세가 전국에서 가장 약한 곳으로 갈수록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전북지역 대중공사는 지역불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북불교 대중공사에는 교구 본사 사부대중과 재가 신행단체와 종단에 비판적인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전북불교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짚어낼 것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성찰하고 소통하며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준비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침체된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중공사가 원만하게 결실을 맺기 바란다" 며 "대중공사를 통해 채택된 안은 교구종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중공사는 승가 고유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불교의 의사결정 전통이다. 이 같은 소통의 대중공사로 만들어질 전북불교의 새로운 발전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히말라야 고요왕국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
사자의 서 파드마 삼바바 수행처인 탁상사원
행복지수 1위!
부탄 순례
출발일 5월28일/6월19일/7월24일/8월31일
※6인 이상 매일 출발가능!!

순례가 시작되는곳
아제여행사
AJE
☎ 02)730-4008
YouTube f daum 카페 blog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www.ajetour.co.kr
SINCE1999

出 : 5월19일 6월22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出 :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하늘과 맞닿는 땅 티벳
수미산 · 구게왕국 탐방16일
출발일 5월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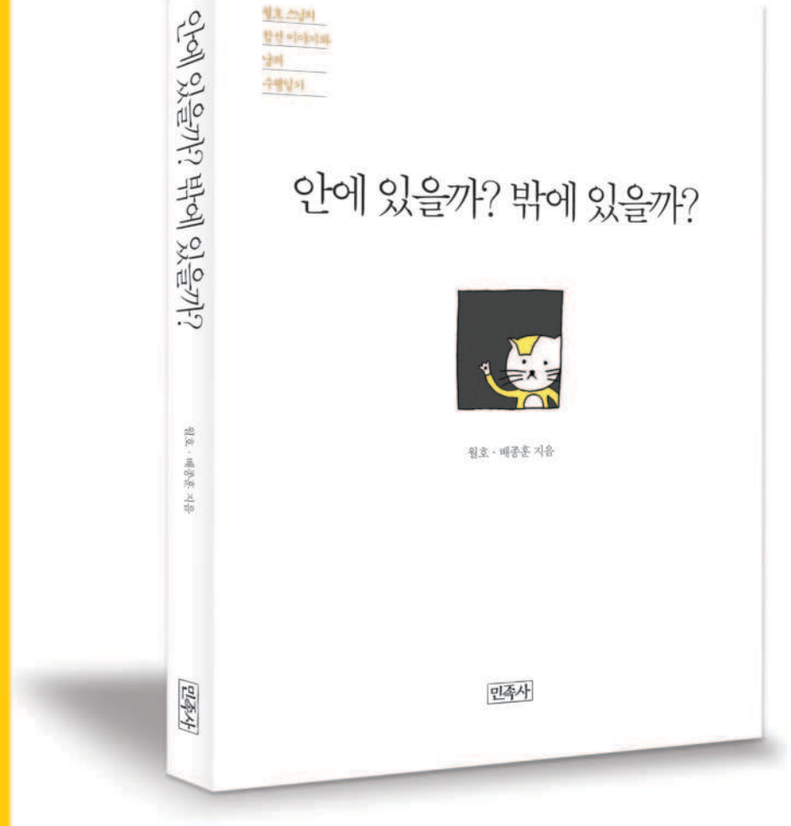
성도와 라싸,하늘열차를 한번에!
티벳 · 중국 아미산 8일
출발일 6월8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동유럽 4개국 8일
출발일 5월27일

월호 스님이 잔잔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하는 참선 이야기와
하루하루 일상속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냥의 수행일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 · 배종훈 지음 | 변형신국판 올칼라 280쪽 | 16,500원



참선은 의미가 있다. 카툰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참선과 카툰이 만난 것이다!

모든 사물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만 나누어 관찰하는 서구식 사고로는 참선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플라톤의 고양이는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양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양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양이를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 월호



민족사 전화 (02)732-2404